

꿈이 있는 나라 케냐

-천천히 걷기-

이원범

활동한 국가: East Africa (Kenya)

활동기간: 3월1~7월25일

활동분야: 쿠키 & 빵 만들기, 요리, 행사기획

소속단체:  Good Neighbors
Kenya

- i. 국가소개 : 첨부파일 참조 (케냐소개ppt (From 자원봉사자 양미나))
- ii. 단체소개 : 첨부파일 참조 (굿네이버스 케냐지부 소개ppt (From 자원봉사자 양미나))
- iii. Good Neighbors Kenya 사업소개 : 첨부파일 참조 (굿네이버스 케냐지부 소개ppt (From 자원봉사자 양미나))
- iv. 활동내용

Vegetables Donation

JEC, JDCC 아이들에게 신선한 야채와 영양가 있는 식단을 주기 위하여 야채 도네이션을 신청하여서 매주 월,목요일 날 공항으로 야채를 받아 각각 사업장에 찾아가 전달해주는 일이다. 주로 나오는 야채는 당근, 브로콜리, 콩 등 이다.

주간	내용
1	O.T 적응 훈련
2	
3	
4	
5	활동 계획서 준비 및 발표
6	
7	일이 대한 이해
8	본격 적인 일 시작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여행

행사 기획 & 진행

굿네이버스 사업장인 JEC, JDCC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조인, 명언 글과 어린이들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아이들 그림 갤러리와 공연 등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전해주었다.

주간	내용
1	O.T 적응 훈련
2	
3	
4	
5	활동 계획서 준비 및 발표
6	
7	어린이 날 행사 계획 및 준비
8	
9	
10	첫 어린이날 행사 진행 JDCC
11	케냐 휴일
12	국제 어린이날 행사 준비
13	
14	국제 어린이날 행사 (From JEC)
15	새로운 일로 교체, 케냐에 있는 한국 아이들 자원봉사 스텝
16	
17	
18	
19	
20	여행
21	

쿠키 & 빵 만들기

행사와 더불어 아이들에게 쿠키와 현지 빵인 만다지를 만들어 행사 때와 세미나,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있는 날 만들어 현지인과 한인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다. 현지 빵인 만다지를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주간	내용
1	O.T 적응 훈련
2	
3	
4	
5	활동 계획서 준비 및 발표

6	
7	
8	Good Neighbors 식당 체험
9	어린이날 행사를 위한 만다지 체험, 만다지 예산안 및 시장 조사
10	첫 어린이날 행사 진행 JDCC
11	케냐 휴일
12	
13	국제 어린이날 행사 만다지 예산안 및 만다지 만들기
14	국제 어린이날 행사 (From JEC)
15	
16	
17	새로운 일로 교체, 케냐에 있는 한국 아이들 자원봉사 스텝
18	
19	
20	
21	여행

v. 세부 활동

vi. 활동사진







vii. East Africa Kenya로 지원한 이유

처음에는 없지 않아 부모님 영향이 컸다. 하지만 아프리카를 알아가던 중 내가 부족한 것을 아프리카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불평하고 힘들다고 소리치는 나에게서는 충격적이었다. 급하게 달려가지 않아도 천천히 걸어가도 충분히 꿈을 이루며 다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었고, 행복이라고는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행복에 만족하며, 즐기며 살고 있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행복한 이곳 아프리카에서 내가 부족한 점을 배우고, 나누며 내가 만든 빵을 아이들과 웃으며 함께 먹고 싶다.

viii. 활동 소감문

인턴십이라는 학교 프로젝트는 참 유익한 것 같다. 세상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다시 한 번 '나'라 사람은 누구인가 되돌아 볼 수 있었다. 사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벽에 붙이치기도 하고, 모두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다시 오지 않을 인턴십 과정을 지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Good Neighbors Work : 굿네이버스에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였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공간에서 일을 경험해보았다. 힘든 점도 많았다. 학교에서 움직이는 필리핀이나 무빙 스쿨 활동처럼 자유롭게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라 회사라는 틀 안에 내가 맞추어 가야하니 많은 제재와 내 자신을 절제해야하는 나한테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굿네이버스라는 안정적인 NGO단체를 통해 아프리카에 올수 있었고 다양한 방향으로 아프리카 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안정적인 외국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Kenya : 케냐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60년대라고 케냐에 살고 계시는 한인 분들께서 말씀하신다. 부족하고 많은 것이 열약하다. 하지만 물가는 우리 한국과 비슷하며 때때로 1.5배 비싸기도 하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을 열고 살며 여유로운 삶을 가지고 있었다. 항상 밝게 웃으며 나를 만난다. 나의 부족한 점들이 모두 이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여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같이 놀며, 생활하면서 어쩌면 벌써 내 마음에 조금이나마 부족했던 점들을 채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너무 여유로운 탓에 행사나 약속시간에 너무 늦게 오거나 일을 하고 있을 때나 물건을 살 때 속이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빨리빨리를 외치고 살았던 나라에서 어쩌면 더욱 느리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아프리카&케냐는 어쩌면 한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일지도 모른다.

관계 :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문제였다. 케냐에서 분명 관계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다. 우선 현지사람들과 관계문제는 여기 사람들은 받는 게 익숙하며 물건 같은 것들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기계나 전자제품 아님 옷, 스카프 등 모든 것 하나하나 모두 "네가 한국 갈 때 이거 나한테 주고 가지 않으면 미친 거다." 이런 말을 하거나 "넌 이런 것들 쉽게 구하니까 나한테 주고 가야한다" 등 한국에선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 때론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 곳 사람들은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소통에서 많이 트러블이 많았다. 하지만 일로서가 아닌 사적으로 만나면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주며 하나하나 아끼고 챙겨주며 살았다. 같은 단원들과 관계로는 처음 형과 누나 한분씩 같이 출발을 하였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지금은 많이 말도 트였다. 하지만 힘든 점도 있었다. 여기 굿네이버스 케냐지점에 사무장님과 형이 연애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나의 입장으로는 조금 문화적 충격도 왔다. 내가 제일 힘들어 하였던 문제가 연애, 감정 문제 이었는데 바로 옆에서 같이 살던 형이 집에 안 들어오며 아예 사무장님 댁으로 생활을 옮기면서 많은 힘든 점이 많았다. 4월~5월은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많은 생각도 하였고 스킨십 장면이나 일적으로 많은 지체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다시 피어올라 감정 조절을 하기 힘들었다. 지금은 마음을 열고 마음을 받아드리기로 하고 있다. 형과 사무장님에게 많은 걸 배우기도 하였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일, 그리고 감정 조절과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어른이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다.

생활 : 생활면에서 힘든 것이 많았다. 사실 외로움이 많은 내가 지구 반대편에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결정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자립된 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최대 약점이기 때문이다. 부모님도 선생님들도 걱정한 부분이 어쩌면 이 생활 문제 때문이 아닌가 쉽다. 처음 생활은 제법 괜찮았지만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같이 온 단원들과 불이침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겼다. 케냐는 치안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게 밖으

로 나가지도 못하였다. 유일한 쉬는 날인 토요일은 교통이 어려워 대부분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스트레스나 기분전환하기 위하여 나가고 싶어도 감혀있는 신세였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그런 생활들을 반복하므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얻은 것도 많다. 내 자신의 기분을 잘 관리하게 되며, 절제의식도 강해졌고 사소한 것이지만 행복하면서 조금씩 여유로움을 찾아갔다. 내가 케냐에 와서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은 생활면 이었던 것 같다. 케냐에서 생활하면서 부족하였던 점을 뒤돌아보면서 되짚어 볼 수 있었고 조금씩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내 생각 : 많은 걱정을 안고 출발한 케냐 여행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와서 다행인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였다. 제일 컸던 감정의 기복 금방 포기 해버리는 마음, 출발하기 전 선생님들과 만나 온갖 말을 다하였던 것 같다. 사실 노력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고 믿지 못하였다. "또 포기 하겠지" 라는 마음이 나한테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을 떠나 4개월 약 5개월 정도 지구 반대편에서 생활하고 봉사하며 내가 스스로 자립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겠지만 나에게 큰 결정이었다. 유독 외로움이 많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 원하는 나이에 선생님들께서도 그 점을 많이 염려 하신 것 같다. 혹 그러다 내가 자신감을 잃고 또 포기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부모님께서도 하셨다. 나 역시 많은 고민과 불안감, 설레임 반반으로 케냐행을 결정한 것이다. 출발 전 생각과 같은 일이 많이 벌어졌었다. 내가 부족했던 점에 관해 많은 문제가 나에게 던져졌고 나는 나를 많이 절제하고 감정을 조절해야만 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행이 나는 약간씩 주춤한 시기를 거치고 무사히 마지막 과정인 인턴ships을 마친 것 같다.

ix. 앞으로의 활동방향

현재 인턴ships을 끝내면서 확실한 계획으로는 1년을 계획했다. 먼저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여름방학 중 하비람이라는 곳을 다녀와 마지막으로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지와 나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인문학캠프와 졸업 후 군대 입대를 예정하고 있다. 공익으로 갈 경우나 제대 후 울산 북구 어울림 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다드림'이라는 카페에서 이주민 여성들과 함께 커피와 간단한 쿠키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싶다. 또 제과제빵에 관하여 좀 더 전문적인 공부와 실습, 여행 등을 준비하고 있다. 크게 본 계획은 아프리카에서 빵집을 개설하여 아이들에게 빵을 전해주는 선교활동을 하고 싶다.

x. 인턴ships을 마치며

학교 마지막 고비 인턴ships을 잘 넘긴 것 같다.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만 하였던 학교생활의 끝에 다가오니 왠지 쓸쓸한 마음만 남고 있다. 아직 인문학 캠프라는 2학기가 남았지만 벌써 마음은 졸업을 한 것처럼 허전한 마음이 많이 들고 있다. 그 동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똥이 이제 사회로 튀려고 한다. 조용한 날이 없었던 학교생활이 내 마음에 중심이 되어 "그때 그랬지"라고 생각 하며 해답을 찾아 갈 수 있다. 모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든다. 친구들에게는 나의 마음을 열지 못하였고 선생님들은 존경, 존중을 하지 못 하였다. 남들과 다르게 더 힘든 곳 더 먼 곳인 아프리카에서 조금 더 나의 마음을 갈고 닦고 싶었다. 간디학교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었는지 아직 분명한 단어로 정의하기 힘들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인턴ships을 통해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성과보다도 안전하게 인턴ships을 끝내고 학교에 돌아온 것으로 난 만족한다. 아프리카 케냐에 나가기 전부터 그리고 끝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만 받으며 인턴ships을 하였다. 케냐에 계신 한인 분들과 굿네이버스 직원 분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 친구들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다.

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세상에 아주 사소하고 조그마한 일들.

제천간디6학년 장현기
기간:3월2일 ~ 8월 14일

목차

1.단체소개

- 간디교육연구소
- 누리마을빵카페

2.간디교육연구소를 나의 인턴십 장소로 선택을 하게 된 이유

3.나의 6개월 동안의 간디교육연구소[누리마을빵카페]에서의 생활

- 1.인턴십과 밑작업
- 2.카페공사 및 오픈준비
- 3.카페영업

4.카페의 공사 진행단계 및 단계별 사진

5.인턴십을 하게 되면서 느낀 점들

6.향후 나의 진로

7.첨부파일

- 일지
- 사진

• 단체소개

• 간디교육연구소

- 간디교육연구소는 학교보다는 덕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 곳으로, 간디공동체에 한 축[마을공동체 만들기]을 맡고 있다. 지금은 다문화센터인 누리어울림센터, 지역아동센터 꿈터, 그리고 1~4세의 가정보육 및 탈학교 청소년 네트워크 '학교너머'를 만들었으며, 지금도 계속 마을 사업들을 계획, 진행 중에 있다.

• 누리마을빵카페

- 누리마을빵카페는 빵을 사려면 저 멀리 충주나 제천으로[버스나 차로 약 40~50분]나 가야 하는 덕산면과 인근 5개 면의 주민 분들과 빵카페를 찾아오신 분들께 깨끗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 하에 만들어졌다. 깨끗한 먹을거리에 알맞게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 설탕, 소금, 버터와 여러 가지 부 재료들을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국산이나 유기농으로 생산한 재료들을 사용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덕산에 문화센터로 자리를 잡아 마을 분들이 카페에 오셔서 아주 편하게 쉬다 가지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보려한다.

• 내가 간디교육연구소 - 누리마을빵카페를 인턴십으로 선택한 이유.

사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빵 만들어서 팔고 내가 만들고 싶은 빵 개발이나 하면 되겠지 하고 간디교육연구소- 누리마을빵카페에 인턴십을 가게 된 것 같다.

작년 인턴십을 정하는 기간에 내가 하고 싶은 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인턴십 장소를 생각하던 도중 덕산에 간디교육연구소에서 베이커리카페를 만든다는 소식이 나한테 들어 왔었다.

사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나의 생각은 '아 그냥 카페에서 다문화가정 아주머니들과 같이 빵을 만들어 팔고 덕산에 걸 맞는 빵 몇 가지 새로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간디교육연구소로 인턴을 가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간디교육연구소에 인턴을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만들고 싶은 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빵을 취미정도로 생각나는 정도에서 취미이상으로 생각을 하게 한 계기가 있어서다. 그 계기는 무빙스쿨로 빵 공장을 다녀온 것 이었다. 빵 공장을 다녀온 이후에 나는 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빵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빵을 더 완성도 높게 만들고 싶어서 2학기 내내 수업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은 제빵실에서 빵을 만든 것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빵 쪽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와중에 은미쌤과 불고 쌤이 나한테 카페를 짓는다고 말을 해 주신 것 이었다. 그런데 처음에 선생님들이 말 하시기를 '네가 카페를 만드는 인턴십을 하면 아마 4월 달 부터는 카페가 완성이 돼서 빵 생산을 하여서 판매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덕산에서 인턴을 하는 것에 대해 쉽게 생각을 하여서 '아 그럼 내가 요새 관심이 있는 빵을 만들 수도 있고 여유티게 인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디교육연구소를 나의 인턴장소로 선택을 하게 되었다.

• 나의 6개월 동안의 간디교육연구소[누리마을빵카페]에서의 생활

1.인턴십과 밭 작업

- 나는 3월 달에 첫 출근할 때 까지도 그냥 가서 카페가 지어지면 빵이나 만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때는 카페오픈예상 날짜가 4월 6일이었기 때문 이었다. 첫 예상은 약 한 달 만에 건물을 완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카페는 7월 달이나 되어 서야 오픈을 하였지만 그때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어쨌든 그렇게 인턴십을 간디교육 연구소로 가자마자 나는 제과제빵에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생각을 하여 구매목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카페에서 판매할 빵들의 레시피를 만들고, 그 빵에 필요한 재료를 최대한 깨끗한 걸로 골라 구입처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이때는 지금 내가 한 이 작업이 정말 아주 별거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그렇게 약 10일 정도 이런 일들을 하다가 성미산마을학교 내부에 있는 미니샵이라는 카페에 카페체험을 2주 동안 다녀왔다. 미니샵에 가게 된 계기는 한식주 소장님이 카페가 약 2주정도면 건물이 어느 정도 이 잡힐 것이라고 하면서 그 동안 성미산 마을에 있는 미니샵이라는 카페에 가서 카페체험을 일정 기간 동안 다녀오라고 하셔서 이었다.

미니샵은 성미산마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자녀에게 깨끗한 먹을 거리를 먹고 싶어서 학교 내부에 만든 카페이다. 처음에 성미산을 가기 전에 성미산에 대해 알아보고 소개를 받을 때에는 되게 생산하는 양이 많고 종류가 다양하여서 힘들고 배울게 많을 거라고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 들은 정보만큼 생산을 하지 않았다. 그냥 몇 가지의 쿠키들과 머핀, 스콘, 케이크 정도와 여러 가지 효소, 허브차, 커피 등을 파는 조그마한 카페였다.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실망도 하였었다. 어떤 이유에서의 실망이냐 하면 나는 거길 간 이유가 빵에 기술을 배우기 위한 이유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첫 날 실망을 하고 미니샵에 일을 한지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내가 성미산에서 빵 말고 배울 것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카페영업, 재고관리, 생산량 관리 등 여러 가지 카페운영을 하면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아갔다. 사실 나는 이 전에는 카페영업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 않았었다. 하지만 카페에 있으면서 카페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카페영업과 관리에 대해 모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배우면서 2주 동안 미니샵 아주머니들과 아주 즐겁게 일을 하였다. 아! 그리고 2주 동안 미니샵분들에게 나는 빵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드렸다. 식빵, 단팥빵, 소보루빵 등등 아주 기초적이지만 가장 기본을 가르쳐드렸다. 그래서 그 인연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분들 소개로 내가 배우고 싶었던 유럽 빵을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홍대에 있는 유명한 빵집에서 며칠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약 2주 동안 카페체험을 갔다가 다시 덕산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아 카페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면서 덕산으로 왔지만 내가 본 것은 전혀 바뀐 것이 없는 카페 터였다. 아예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었다. 정말로 그때는 너무나 허무하였다. 4월 달 까지 지어진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는 정말로 내가 여기에 왜 인턴을 왔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다.

그래서 왜 아직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냐고 여쭙보니 아직 시청에서 건물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공사를 하지 못 한다고, 하지만 늦어도 5월 중순까지 완성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시청에서 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카페에서 나랑 같이 빵을 만들 다문화가정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빵 만들기 수업계획을 만들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시청에서 허가가 떨어져 간디공동체 분들과 같이 카페를 짓는 작업을 하였다.

2.카페공사 및 오픈준비

- 카페공사는 4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약 3달 정도 진행이 되었다. 카페 오픈은 계속 미루어져서 7월 달까지 미뤄졌고 그때까지 계속 공사와 카페오픈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카페를 짓는 작업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

우선 카페 터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만든다. 그 후 시멘트를 붓기 위한 작업을 한다. 시멘트를 붓기 전에 하는 작업은 카페터에 딱 맞게 시멘트를 부을 수 있게 카페 터만한 네모난 나무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작업을 한 후에 시멘트를 붓고 약 3일에서 5일 동안 굳혀주고 설계도대로 철근을 잘라서 기본 형태를 만든다. 그 후에 샌드위치판넬을 잘라서 틀에 맞게 붙인다. 그리고 드라이비트라는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은 방음처리와 건물이 녹슬거나 썩지 않게 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드라이비트는 샌드위치판넬위에 큰스티로폼으로 도배를 한 후에 그 위에 공사용 천을 두겹게 붙이고 그 위에 다시 시멘트를 발라 주면 드라이비트라는 작업은 완성이다. 이렇게 카페 외부는 드라이비트 작업으로 마무리 이가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작업으로 들어간다.

카페 내부 공사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다. 벽면에 황토칠하기→제빵실타일깔기→카페 바닥에 에폭시 붓고 굳히기→가구제작→마무리작업으로 진행이 되었다. 위의 순서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선 카페내부에 전 벽면에 황토를 바르고, 기본 틀을 잡은 철근들을 보기 좋게 감싸지도록 나무를 붙여주었다. 그리고 내부 작업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 몇몇은 지붕위에 올라가서 지붕에다가 싱글을 박는 작업을 한다. 이것은 빗물이 새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지붕위에 보이는 검은 것들이 바로 이것이다.

카페 내부에 있는 기계나, 도구, 집기류를 제외한 모든 가구들은 나무를 가져다가 손수 작업한 것들이다. 카운터, 바, 책상, 선반 등등 제작을 하고 의자도 쓰지 않고 버려진 의자를 사오거나 가지고와서 다시 리폼 시킨 것 들이다. 그렇게 다 만든 가구들을 마무리를 한 후에 카페에 배치만 하면 내부공사는 끝이 난다. 그 후에 카페정면에 데크를 설치하고, 아직 완전히 설치가 되지 않았지만 어닝 설치와 오른쪽 빈 공간에 머릿돌과 게시판을 만들면 카페의 공사는 끝이 난다.

그렇게 나는 카페 터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였다. 쓰레기를 줍는 작업은 나와 태진이형 둘이 맡아서 작업을 하였는데 카페 터 뒷집에 할머니가 생활을 하셨기 때문인지 아주 많은 양에 쓰레기가 나왔다. 잡다한 쓰레기부터 몇 년 된 거 같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그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분리수거 하는데 까지 딱 반나절이 걸렸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통기한이 1999년까지인 잼을 발견한 것 이였다. 그렇게 반나절 동안 청소를 한 후에 포크레인으로 땅을 어느 정도 평평하게 만든 후에 정화조를 묻고 화장실이나 물을 사용하는 곳에서 쓰고 난 물이 정화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다음에 아시바 작업이란 것을 하였다. 아시바 작업이라는 것은 카페 터에 시멘트를 부을 수 있게 나무로 터를 네모 낱게 둘러서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그 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철근을

완전 그 터만큼 체크무늬로 놓고 철사로 그 사이사이를 묶는 잡업을 하였다. 그런데 나는 이 작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도 아직 잘 알지 못한다. 어쨌든 철근을 그렇게 체크무늬로 놓고 묶는 잡업을 한 후에 시멘트차를 불러서 시멘트를 붓는다.

시멘트를 부을 때는 엄청나게 큰 펌프차(?)가 오는데 그 펌프를 하늘이네 아버지께서 끌고 다니며 고루고루 부우셨는데 정말로 대단해보였다. 그리고 나서 시멘트를 평평하게 해 준후 약 5일 정도 굳힌 후에 다음 작업을 시작을 하였다. 그 다음 작업은 철근으로 기본적인 카페의 틀을 만드는 작업과 그 틀 안에 샌드위치판넬이라는 것을 붙이는 작업이다. 이 작업들은 일반 사람들은 하기가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 전문가 분들 세분이서 작업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드라이비트라는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은 간단히 말을 하면 스티로폼을 판넬 위에 붙이고 그 위에 공사용 천을 붙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초보도 할 수 있는 작업이고 작업량이 많아서 공동체 분들이 다 같이 힘을 내서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을 하려면 우선 스티로폼과 샌드위치판넬을 붙이기 위한 접착제가 필요한데 이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 장난이 아니었다. 접착제를 만드는 법은 시멘트와 시멘트용 본드를 일정 비율로 섞어야 하는데 섞는 기계를 들고 약 10분 동안 힘을 줘서 열심히 섞어야 한다. 이렇게 힘을 주지 않으면 시멘트와 본드가 그냥 굳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섞은 접착제를 가지고 스티로폼을 카페 틀과 맞게 제단을 하여 붙이고 거기다가 고정시키는 이상한 동그란 것을 박아줘야 하는데, 이 박는 작업이 또 장난이 아니었다. 스티로폼이 워낙에 부드러워서 전자드라이버를 들고 조금만 힘을 줘도 못이 끝까지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드라이비트 작업을 우여곡절 끝에 며칠에 걸쳐서 카페의 온 면을 작업을 한 후에 남자들은 지붕위에 올라가서 싱글이라는 것을 설치할 하고, 여자들은 카페 벽면에 공사용 천을 대고 다시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을 하였다. 그렇게 해서 나도 여지없이 지붕위로 올라가서 싱글을 깔았다. 그런데 또 이 싱글을 까는 일이 장난이 아니고 힘이 들었다. 우선 지붕에 싱글을 깔려면 그 전에 판넬위를 방수포란 것으로 덮어야 하는데, 그 방수포란 것이 검은색이고 얇다보니깐 햇빛을 너무 잘 받는 바람에 너무 뜨거워지는 것이었다. 싱글작업을 완료하기까지 하루하고 반나절을 작업을 하였지만 하필이면 또 그 기간 동안 햇빛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 정도가 더 하였다. 어쨌든 그렇게 방수포를 깔고 싱글을 지붕에 박는데, 처음에는 못질이 서툴러서 막 하나를 박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모든 일이 그렇듯 익숙해질 만하면 작업이 끝이 나서 못을 망치질 한 두 방에 박는 기술이 생겨서 재미있게 할 때쯤 작업이 끝이 나버렸다.

그렇게 지붕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 다음에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공동체사람들은 벽면에 종이를 붙인 뒤 황토를 칠하는 작업을 하였다. 물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구를 만들거나, 화장실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서 우리가 색을 일정하게 칠할 수 있게 벽에 칠할 황토색을 만들어 주셨지만 말이다.

그렇게 황토를 칠 한 후에는 거의 쓰기 힘든 의자들을 구해오거나 구입을 해 와서 리폼 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소수가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을텐데 간디공동체 분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나와주셔서 의자를 리폼 시키는 일을 금방 끝낼 수가 있었다. 그 후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일이 마무리 대청소밖에 없어서 카페팀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전문가 분들만이 같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는 주방공사 마무리 및 홀 가구를 만들어주시는 전

문가 아저씨 조수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였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인력 두 명이 왔다. 바로 간디학교4학년의 민수와 간디학교 5학년의 지수가 누리마을카페에 무빙스쿨을 온 것이다. 좋았지만 사실 그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했던 일이 있다. 처음에 그 아이들이 온다고 하였을 때 우리의 카페 완공 예정 날은 6월 첫째주 정도로 예정을 하였었다. 하자만 그 날짜에 맞춰서 아이들이 6월 초에 왔었는데 공사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약 보름정도는 공사일만 같이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다행히도 그 아이들의 일정이 끝나기 전에 주방은 어느정도 청소와 정리가 되어서 약 삼일정도는 같이 빵과 쿠키 그리고 케이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다. 그렇게 민수와 지수가 2주일 동안 카페에서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을 잘 해준 덕분에 공사 진행률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지수와 민수가 있는 동안에 진행이 된 일은 이렇다. 테이블만들고 손질하기, 의자만들고 손질하기, 빵 만들고 손질하기, 카페전체 다시 손 보기, 제빵실을 사용이 가능하게끔 정리를 열심히 일을 해 주었다. 그렇게 6월이 후딱 가버렸다. 6월이 지났을 때 카페는 거의 완성이 되어있는 상태였다. 남은 것이란 간판달기, 어닝설치하기, 데크깔기 게시판달기와 내부가구 총 마무리손질 이었다.

드디어 약 3개월 동안의 공사가 끝이 나고 아직 외부는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내가 카페 내부에 있는 제빵실을 가동을 하여서 이것저것 만들어 볼 수 있는 날이 왔다. 사실 내가 처음 이곳에서 빵을 만들어 보려고 하기전에 윤주쌤과 무빙스쿨은 지수랑 민수가 삼일 정도 사용을 하여 쿠키와 케익을 만드는 것을 가구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얼핏얼핏 보기는 하였다. 하지만 그때에는 내가 손에 밀가루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별로 느낌이 오지 않았지만 내가 첫 날 빵을 만들었을 때 그 날과 그 순간은 정말 기분이 뭔가.. 좋고 나쁘고, 신기하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좋기는 좋지만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마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이런 느낌이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실감이 나지 않아서 일까싶다. 그렇게 새로운 제과제빵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님들과 같이 약 5일 동안 새로운 공간을 익히고, 우리가 오픈을 하면 판매를 할 제품들을 연습을 하였다. 왜냐하면 그때 정도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카페 정식오픈이 아닌 가오픈 날짜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위에 이야기를 했듯이. 나는 카페를 만드는 작업을 병행 하면서 카페를 짓는 기간 동안에 여러가지 일을 하였다. 베이커리에 필요한 기계 및 소도구들 구입하기, 유니폼 구입하기, 제과제빵교육 등 여러 가지 일을 틈틈이 하였다. 우선 카페의 설계도면을 보면서 제빵실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얼마만한 크기의 기계를 제빵실에 넣어서 효율적이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기계를 쓸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고 기계를 구입을 하는 작업을 하였다. 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직접 진성제과기계라는 곳에 창고까지 같이 따라가서 오븐과 발효실, 식빵 슬라이서, 쇼케이스등을 직접 고르고 사인까지 해 놓았다. 기계를 구입하거나 이런 것에 대하여 정말 만만하게 봤는데 내가 직접 고가의 기계를 골라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니 그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었다. '내가 지금 어린나이에 괜히 창고까지 따라와서 괜히 이상한 것 골라 가는거나 아닌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하지만 우리학교 제빵실에서 사용하고 있

는 제과제빵기계들도 이곳에서 구입을 하였고,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아주 세세하게 기계들의 좋고 나쁨을 설명해 주시니깐 믿고 결정을 하고 구입까지 하였다.

아! 그리고 대성주방이라는 주방에 없어서는 안 될 큼지막한 기계나 조리대 등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마침 대성주방 사장님과 간디교육연구소에 산나물썰[기획팀장]이 아는 사이여서 대성주방에서 작업대와 오븐을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대성주방 사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오븐은 중고가 만으로도 천 만원이 넘어가는 것이었지만, 제과제빵을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오븐에 기능은 만약 자신이 닭다리를 튀기거나 굽고 싶다면 오븐설정에 닭구이나 튀김을 해 놓고 냅두면 오븐에 인공지능이 알아서 닭다리의 크기나 양을 인지하여 알아서 잘 구워주는 그런 오븐이었다. 물론 빵도 이 지원해 주신다는 오븐메뉴에 있으나 전문적으로 맛있게 빵을 구우려면 직접 사람이 설정한 온도에서 구워야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빵을 한 번에 같은 곳에 넣어서 굽지 않고 각각 온도에 맞는 빵을 따로따로 구워야 하는데, 그 오븐은 대용량이라 한 번에 구울 수밖에 없어서 전문적인 빵이 나오기에는 부적합하였다. 그래도 우리는 그 지원해 주신다는 오븐을 쓰느냐, 아니면 돈을 쓰더라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구입을 하나를 놓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였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대용량으로 구울 수도 있고, 오븐가격도 굳힐 수가 있으나, 빵과 케이크를 전문적으로 구워낼 수가 없는 점이 우리의 고민 이었다. 하지만 윤주쌤과[파티시에] 끝까지 고민을 한 끝에 결국 HRS라는 다용도 오븐을 포기를 하고 일반 테크오븐을 구입을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기계를 구입도 하고, 또 내가 3월 달에 작성을 해논 주방기기 소도구목록을 아예 지워버리고 우정공업사란 곳에 찾아갔다. 그 이유는 우리 누리마을빵카페는 케이크와 빵 둘다 주력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작성해 놓은 구입품목록의 양은 이 지역의 소비량을 예상하여 보았을 때 턱 없이 부족하고 종류도 다양하지 못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제과제빵소도구 전문업체인 우정공업사에 견적을 넣었다.

하지만 역시나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 견적서에 되게 실수가 많았다. 우리가 예상한 생산량에 필요한 도구의 양에 비교를 하였을 때 너무 많이 견적을 넣은 것도 있고, 또 턱도 없이 부족한 양을 견적에 넣은 것도 있다. 그리고 한 단체의 일의 처리순서도 잘 알지 못하여서 순서를 밟지 않고 일을 진행시키다가 다시 한참의 전 단계로 돌아가서 순서대로 다시 처리 하는 게 다 반사였다. 그래서 견적을 넣을 때도 한 두 가지의 단계를 뛰어넘곤 해서 일을 다시 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 우리 카페가 오픈을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그것은 바로 제과제빵교육인데 빵을 나와 윤주쌤만 만들 줄 알지, 같이 일을 하기로 이야기를 다문화가정 어머님들은 제과제빵에 대한 기술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나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서 가르칠 입장은 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총 12차 교육을 기획을 하였다. 장소는 카페 제빵실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간디학교 제빵실을 한 주에 한 번이나 이틀정도를 빌려서 사용을 하였다. 그리고 이 교육은 빵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빵의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것이 정말로 많았다. 식빵을 시작으로 기본적인 생크림케이크까지 완벽히 기술을 습득을 시켜 드리지는 못 하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을 잡게 해드린 것에 만족을 했다. 사실 이 수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었

다. 내가 걱정을 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소통에 있어서였다. 물론 그분들도 한국말을 어느 정도 배우기는 하셨으나 과연 빵에 관한 수업을 할 때 내가 하는 말들, 물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 것이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빵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이 나의 걱정이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을 시작하니 빵에 대한 이론적인 면은 그렇다고 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습득하시는 속도가 빨랐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빵을 만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래, 이론은 우선 제쳐두고 기술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이런 생각을 한 후부터는 원래 내가 계획을 해 놓은 수업시간에 만들 빵의 양과 종류를 늘렸다. 그렇게 12번의 수업을 모두 마치고 난 후에는 아직 혼자서 반죽은 지지 못 하지만, 기본적인 빵들을 성형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오셔서 나는 매우 만족을 하였다. 비록 아직 카페가 오픈 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되려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픈 전의 카페내부에 있는 제빵실이 완성되어 연습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실제로 오픈을 하고 빵을 만들면 저절로 실력이 늘 것이란 것을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지금은 내가 없어도 아주 잘 만드신다. 물론 아직 제품개발이나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는 작업은 개인적으로는 하지 못 하지만, 지금 카페에 있는 빵들은 혼자서도 어느 정도 만드실 수 있으시는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점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란 것이었다. 국적이나 생활을 하던 방식은 다 달라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과 생각을 하는 것은 다 같다는 것을 느꼈다. 물론 아직은 익숙하지 않거나 부딪히는 면도 많지만 내 머릿속에서 우리보다 못 하다라는 생각 같은 것들은 이제 내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지가 않다. 그 분들은 나에게 누나와 같은 분들이며 인생의 스승님이다.

3.카페영업

- 드디어 4개월 동안의 준비를 끝마치고 카페의 가 오픈 날짜가 정해졌다. 그 날짜는 7월 12일 이었다. 하지만 7월10일이 우리학교의 축제날이라 특별히 그날은 간디가족들 대상으로 오픈을 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이 날에 학부모님들께 홍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나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 까지 홍보를 못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그런데 또 여기서 피치못할 일이 발생을 해 버렸다. 7월 10일이 주말이다 보니깐 다문화가정 아주머니들은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카페에 나오지 못 하시는 것. 그리고 운주쌤도 결혼준비 때문에 서울에 무조건 올라가야하여서 나 혼자 남아서 빵을 구워야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전날 반죽을 하여서 냉동을 해 놓자고 하였지만 나는 학부모님들께 첫 선보이는 자리인데 반죽을 냉동해서 사용 할 순 없다고 생각을 하여 토요일 날 나 혼자만이라도 빵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반죽을 냉동을 하여 사용을 하면 물론 다른 분들도 같이 만들어서 몸은 편하겠지만 빵의 맛과 부피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냄새도 약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모님들께 맛이 있는 빵을 맛 보실 수 있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컸다. 그래서 결국에는 태진이형과 같이 축제 날 밤늦게 까지 빵 반죽은 하지는 않고 다음날 만들 빵 속에 넣을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놔다. 예를 들어 소보루와 커스터드크림을 만들고 앙금을 어느 정도 분할시켜 놓는 작업을 하였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날 혼자 빵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다.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이었다. 만드는 사람은 혼자인데 양을 많이 만들 생각을 하여서 많이 만들다 보니 여기저기 모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빵이 발효가 많이 돼서 냄새가 나는 것도 제품도 나왔고 아니면 그 반대로 너무 발효가 덜 되어서 조그마하게 빵도 나왔다.

그런데 그 때 들은 생각은 단 한가지였다. ‘아 내가 아직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축제 날 내가 계획해왔던 양 정도는 혼자 만들 수 있는 정도는 실패하는 것 없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날 어쩔 수 없이 좋지 않게 나온 빵들도 내 놓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씩씩하였다. 그래도 부모님들께서 빵이 맛있다고 많이 하셔서 기분은 좋았지만 더 완성도 있는 빵을 못 내놔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 더 컸다.

어쨌든 그렇게 축제를 넘긴 다음다음날 바로 마을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시작을 하는 날이 왔다. 그 날은 긴장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 선보이는 것이니 최선을 다해 만들자고 다짐을 하고 만들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주방 팀 네 명이 실전에서 손발을 맞추는 날은 이 날이 처음이기 때문에 호흡이 잘 맞지가 않았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첫 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도 첫 날 치고는 굉장히 제품이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역시 영업을 시작해보니 여러 군데서 문제점이 보였다.

영업시작 후에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빵이 나오는 시간과 빵에 양이었다. 그 이유는 빵을 만들려고 하면 넉넉잡고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카페팀이 출근하는 시간은 9시인 것이다. 그러면 빵은 1시부터나 나오는 것인데, 빵집으로서는 너무 빵이 늦게 나온다는 것이 문제였다. 양은 차차 소비량에 맞춰서 늘이거나 줄이면 되는 것이지만 빵은 이른 시간부터 나오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카페 영업시작 후 약 1주일 동안은 내가 자발적으로 7시30분 까지 먼저 카페에 출근을 하여서 반죽을 해 놓았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이 내가 해야된다는 책임감을 느꼈고 다른 분들은 이른시간에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이었다. 아 그리고 영업초에는 반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는 것이 나를 일찍나오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 카페의 공사 진행단계 및 단계별 사진

1.카페를 만들 터에 쓰레기 줍고 땅 평평하게 만들기.





2.카페 터에 시멘트를 붓기 위한 밑 작업하기.





3.아시바 만들고 시멘트 붓고 굳히기.



4.설계도대로 철근 만들어 붙여서 기본 틀 잡기.



5.기본 틀에 샌드위치판넬 붙이기.



6.샌드위치판넬 위에 스티로폼 잘라서 붙이기.



7.스티로폼 붙인 위에 드라이비트라는 천 붙이고 시멘트 바르기.



8.지붕위에 올라가서 방수포 붙이고 싱글 붙이기.



9.카페 내부공사.









10.카페 외부 공사 나무타일 깔고 간판과 어닝 설치하기.



- 인턴십을 하게 되면서 느낀 점들 및 후기

유니폼, 제과제빵기계 및 소도구, 책임, 권리, 힘, 불고쟁, 공동체, 일의 처리 방식, 여러 가지 시야, 긍정적, 마음대로느끼는?

- 향후 나의 진로

맥박이 뛰다

강주원

[순서]

I 동기 및 목적

1. 동기 및 목적

II 활동

1. 활동 1
2. 활동 2
3. 활동 3
4. 인터뷰

III 느낀 점

*들어가기 전.

나는 이렇게 보고서 한 장을 작성할 수 있었다. 물론 몇 장 이상을 채워야 하는 법은 없겠지만 많이 적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든다. 아, 그리고 이걸 목차에서 예시 되지 않은 글이다. 목차는 이 글을 쓰기위한 하나의 도구였으니까.

우선, 간디학교에 감사한다. 보고서라는 형식의 글에 이런 글을 적어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송하다. '보고서'라는 것은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글로 알리는 건데 4개월 동안 인턴십을 했지만 내용도 결과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궁금하다. '보고서'에 총당할 만큼의 결과도 내용도 없을 경우엔 '보고서'를 '반성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과도 내용도 '없다'고 보고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말하자면 '많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보고서의 양이 짧아져도 되는지 이다. 그리고 난 학교의 대답을 듣기위해 학교로 갈 때까지 기다린다.

드디어 선생님의 답변을 들었다. 그보단 조언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우선 내가 계획하고 꿈꿨던 인턴십에 대해 말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며 어려웠던 점, 인턴십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을 충분히 말하며 활동한 내용을 알리면 된다고 알려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고서의 형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I 동기 및 목적

3년 전에 올해의 인턴십을 계획했던 기억이 난다. 5학년에 직접 쌀농사를 지어 곡식을 장만하고, 천을 바느질해 옷을 만들고, 집짓기를 공부하거나 굴을 파서 산에 집을 만들어, 풍산개를 데리고 산사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4학년 무빙스쿨을 통해 영성한 산사생활 체험을 해보고는 도저히 할 일이 못 된다는 결론에 이르러 나의 환상은 그렇게 끝났다. 시간은 흐르고 5학년이 되었다. 이제는 정말 인턴십을 계획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처음에는 인턴십을 통하여 내가 좋아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음악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그런 삶을 체험해 보려고 했지만 언제나처럼 내가 하려는 일에 숙고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그것을 포기해 버리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이런저런 합리화를 시켜가며 그 꿈을 놓아버렸다. 물론 계획서 발표가 끝난 뒤에 말이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가며 방학도 함께 흘러가버리고, 이제는 인턴십을 실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아무런 계획도, 구상도, 생각도 없이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고집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더욱 방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용현이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져, 안부 인사를 묻는데 용현이가 자기 집에 한번 놀러 오라는 말에 우리 집에서 2개월 정도를 머무르며 '임동창과 함께하는 사천 하이치 캠프'를 마치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동녘이랑 같이 용현이네 집에 놀러갔다. 그리고 나와 동녘이는 인턴십을 결정하게 되는 뜻밖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진주에 이런저런 시민단체 들이 있는데, 그곳을 각각 한 달씩 총 4군데를 체험해보고 자신의 소견을 정리하여 발표해서 인턴십을 마치는 식이었다. 그때는 3월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이미 시작하고도 한 달이나 지난 시점이었기에,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겨를도 없이 그 제안에 솔깃하게 되었다. 그렇게 내 인턴십의 '동기는 및 목적'은 '인턴십 마치기'가 되었다.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인턴십을 할지는 정했으니, 이제는 어느 단체에 들어갈지를 정해야 했다. 환경운동연합, YMCA, 새마을 등 여러 단체가 있었다. 나는 최대한 문화와 예술관련 단체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경남문화예술센터'를 알게 되었고, 잠시

의 망설임도 없이 그 곳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인턴십 계획서를 만들고, 두 번째 ‘동기 및 목적’을 생각해낸 후 학교와 단체에 제출해야 했다.

1. 두 번째 동기 및 목적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하려는 음악을, 또는 예술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번 인턴십을 통해 몸소 체험해보고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단체의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동기를 만들어 학교와 단체에 제출할 때, 이전과 같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처음으로 중학교 3학년 논문에서.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는 노래를, 이번 논문을 통해 더욱 깊이 파고들어 더 나은 실력으로 한 단계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학년 무빙스쿨.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온 ‘노래’를 이번 무빙스쿨을 통하여 산에 올라가 한 단계 성장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정한 내 마음의 평화에 대해 생각해보고 찾으려 합니다.’

5학년 무빙스쿨.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온! 음악이 예술의 일부분이고, 예술이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무빙스쿨을 통하여 ‘팔공산 체험문화센터’에서 함께 일을 하여, 좀 더 많은 경험을 쌓아 더욱 성장된 음악을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6학년 인턴십. 이제는 ‘졸업’을 통하여 사회에 한발 내딛어 볼 생각까지 하고 있다.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 그저 ‘때문에’를 ‘통하여’로 바꿨다는 사실을, 또 스스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실행해볼 강한 마음까지 먹었다면 무언가를 통하지 않고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어쨌든 나는 그러한 동기 및 목적을 가지고 인턴십에 임하게 되었다.

II 활동

1. 활동 1 단체소개

1). 경남 문화예술센터

“경남 문화예술센터”는 경남지역에는 문화단체와 풍부한 문화자원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큰 규모의 지역축제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많은 것에 비해 지역민이 주인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는 부족하다고 느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화예술, 지역민이 만드는 문화예술, 재밌고 감동적인 문화예술, 생활 속에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이념으로 세워진 단체이다.

2). 경남 문화예술센터가 하는 일

- ① 공연 및 창작 사업
- ② 동아리 사업
- ③ 시민문화 예술 아카데미사업

④ 각종 기획사업

2. 활동 1

봉투 속에 제안서를 넣고, 그 봉투를 가방 속에 넣어 진주 공단광장에 위치해 있는 ‘경남문화예술센터’를 찾아갔다. 미리 전화는 드려 놓은 상태라 긴장감이 덜했다. 어느 건물의 4층에 위치해있는 그 센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사무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현관문을 지나자마자 왼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복도와 양쪽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사무실 같은 공간에 깜짝 놀라 도로 일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힘 풀린 다리를 끌고 다시 4층으로 올라가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첫 번째 사무실 문을 열었다. 2명의 여성분이 ‘어서 오세요’ 라는 말로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나는 아까 전화했던 사람이라고 밝히고 봉투 안에서 제안서를 꺼내 앞에 계신 분에게 넘겨드렸다. 그 여성분은 제안서를 펼쳐 한번 쪽 훑어보고는 그곳에 이미 적혀있는 질문을 던져, 순간 ‘그곳에 적혀있는 데오’라는 무례한 답변을 해버리는 상황을 만들 뻔 했다. 이런 저런 질문과 답변들이 오간 후 그곳 사람들과 회의를 해보고 전화 주겠다는 마지막 답변과 함께 나는 자리를 떴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대화 내용이 있었다.

“음. 이곳에서는 각자가 전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게다가 학생은 한 달을 기약으로 와서 무언가를 인수인계 해주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정 여기서 체험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정말 잡일 밖에 없는데 괜찮겠어요?”

정말 미안한 표정으로 여성분이 물으셨다.

“네. 정말 아무 일이나 할게요.”

정말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생각은 이랬다.

‘뭐. 어찌겠어요. 이제 인턴십 시작시간은 지났고, 여기가 안 되면 더 이상 갈 때도 없는데요.’

며칠이 지난 후에 나는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해도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1). 첫째 날

저번에 한번 찾아간 기억을 되감으며 9시 반까지 그 센터에 정확하게 찾아갔다. 역시 밝은 웃음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며, 의자에 앉으라 하시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일러 주셨다. 우선, 지금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으니 매일 그 아카데미의 수강생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오늘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풍물강습이 있으니 그곳에 따라가 보조강사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컴퓨터를 켜고 후 그곳 상근자의 아이디로 네이트온 이라는 메신저에 들어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실행시킨 후 아카데미에 참석해달라는 글을 전체보내기로 하면 딱 3분이 걸린다. 그 다음 내 메일함에 들어가 매일 아침마다 오는 고도원의 아침편지 중 좋은 부분을 복사해 센터 카페 ‘오늘의 좋은 글’게시판에 붙여넣기를 하는 데는 2분이면 충분하다.

풍물강습은 10시 30분이라고 했으니 앞으로 45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책을 읽었다.

버스를 타고 어딘가에 내려 어느 어린이집 지하로 내려갔다. 엄청나게 어린아이들부터 중학교 1학년 까지, 다양한 연령 때로 이루어진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내 옆에 계신 강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뛰어 놀고 소리 지르면서.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아이들을 모으는 건 정말 힘들었다. 겨우겨우 손에 채를 잡히고 북과 장구를 잡히게 해서 앉힐 수 있었다. 그

렇게 2시간정도의 수업진행을 도운 후에 장구와 북들을 정리하고 다시 센터로 돌아갔다. 준비되어 있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를 담당하시는 것 같은 여성분과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와 “경남문화 예술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퇴근을 했다.

*내가 해야 할 일.

- ① 매일아침 그날 해당하는 아카데미 수강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보내기.
- ② 풍물강습이 있을 때 따라가서 보조 강사하기 (월) (수) (금)
- ③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대청소 같이하기.
- ④ 일주일에 한번 씩 식사당번 하기 (점심준비하고 설거지까지)
- ⑤ 매일 카페에 ‘오늘의 좋은 글’ 혹은 ‘이달의 공연’ 게시판에 글 올리기.

(앞으로 생략되는 출근 날은 별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날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셋째 날

평소래 봤자 2들이지만, 평소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다시 책을 읽으면서 풍물강습시간을 기다렸다. 이날은 금요일이었다. 이틀 전에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풍물을 가르쳤는데, 이번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느 교회에서 풍물을 가르친다고 한다. 똑같이 10시 반에 떠났다. 할아버지는 한 분도 안계시고 할머니 분들만 15분 정도 계셨다. 할머니들의 시력에 맞도록 인쇄물을 위층에 교회 사무실로 들어가 복사를 해 옴과 동시에 풍물 강습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분명 이틀 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보조강사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곳의 할머니들 수업에서는 그 아이들 보다 실력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덕분에 나는 내가 어린이집에서 보조강사로서의 역할은 풍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떠드는 아이들을 달래는 임무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가만히 앉아서 할머니들 장구 치시는 소리를 1시간 반 정도 듣고 있으니, 수업이 끝났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고 센터로 돌아가 남은 시간을 보내고 무사히 퇴근했다.

3). 넷째 날

이번에는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한 장구 수업이다. 6분의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었다. 그래도 언제나 내가 할 일은 있었다. 어느 아주머니께서 데리고 온 4살짜리 아기를 돌보는 일이다. 나와 애 돌보기와의 인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인가 보다.

4). 다섯째 날

이날을 특별한 활동이 있었던 게 아니다. 내 일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 온 날이다. ‘다섯째 날’ 이후로는 보고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어느 때와 같이 아카데미 수강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책 읽는 공간으로 가려했다.(풍물 강습이 없는 날이면 항상 책만 읽었다) 그런데 그때, “너 엑셀 할 줄 아니?”

그곳에서 가장 어린 누나 같은 분이 엄청난 멍치의 용지를 나에게 건네주면서 물어 보셨다. “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내가 대답했다.

천명은 넘어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 집 주소, 집 전화, 휴대폰, 직업이 적혀있는 주소록. 한 명당 2분.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컴퓨터를 하지 못하는 나에겐 그 일을 완성하는데 꼬박 2주일 하고도 3일이 걸렸다. 남은 기간은 책과 함께 보내며...

2. 활동 2 - 하정우 선거사무소

첫 번째 인턴십이 끝난 날과 두 번째 인턴십이 시작되는 날 사이에는 약 30일 정도의 공간이 있다. 나의 계획이 바뀌었다. 각각 한 달씩 총 4군데를 돌아다니기에는 무언가를 느끼고 배우기에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선 용현, 동녘이와의 프로젝트에서 나와 새로이 인턴십을 시작하려고 했다. 현숙 선생님을 몇 번 뵈어서 이런 저런 조언을 구하고, 내 상황을 고려해 보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봤다. 그 때 나는 매일 퇴근을 하고 조울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터라 진주 아니면 사천 지역에 한해서만 활동 할 수 있었다. 조울을 그만두고 서울 쪽을 욕심내 보려 했지만 끝내 부모님의 ‘끝을 맺으라.’는 말씀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래서 다시 사천과 진주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알아보다가 한 달 전에 ‘문화예술센터’를 나오다가 ‘또 오라’는 말이 떠올라 그곳에 전화를 했다. 이번에는 사무실이 아니라 노래패 ‘맥박’에서 체험해 보고 싶다고. 그분들은 또 다시 날 받아들여 주셨고 나는 다시 출근을 시작하게 되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 내가 출근을 시작하던 때가 마침 선거운동을 하는 때였다(노래패 ‘맥박’은 노래나 공연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민중가수다). 그리고 나는 전에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 질문을 다시 듣게 되었다.

“너 엑셀 할 줄 아니?”

맥박 대표님이 물으셨다.

“네. 그럼요”

전에 한번 해봤다는 사실에 힘 업어 이번에는 ‘그럼요’까지 덧붙여 대답했다. 바로 다음날, 나는 진주 시장 후보로 출마한 민주노동당 ‘하정우’진주 시장후보의 선거 사무실에 출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엑셀작업. 전에는 하루 엑셀작업 시간이 3, 4시간을 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해야 했다. 그렇게 3주일이 흘렀다.

처음에는 너무 느려서 주위에 계신 분들께 웃음을 선사했는데, 2주가 지난 후에는 손가락이 기계처럼 움직인다고 감탄들을 하셨다. 인간승리다.

* 하정우 선거 사무실에서 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선거운동에는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현수막, 어깨띠, 신문광고, 방송광소, 방송연설, 토론회 등이 있다. ‘00를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시민들에게 전화를 돌리기도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여러 대의 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의 책으로 되어있는 주소록은 부족하기에 보통 그 주소록을 엑셀작업으로 옮겨 여러 장으로 인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내가 맡은 역할이 그것이었다. 책의 주소록을 엑셀로 옮겨 여러 장으로 인쇄하는 것.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9:00~1:00	엑셀잡업	엑셀작업	엑셀작업	엑셀작업	엑셀작업	

1:00~2:00	점심 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2:00~5:00	엑셀 작업	엑셀작업	엑셀작업	엑셀작업	엑셀작업	엑셀작업 1:00~
5:00	퇴근	퇴근	퇴근	퇴근	퇴근	퇴근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이라는 휴가를 보내니 딱 한 달이 흘렀고 2개월이 남았다.

3. 활동 3 - 맥박으로 복귀

1). 활동 3 단체소개

맥박은 '경남문화예술센터' 안에 있는 노래패라고 볼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센터와는 별개로 자기만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단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곳 저곳에서 공연 섭외가 들어오면 가서 공연을 하고 대학에서 연극이나 다양한 종류의 공연을 할 때 필요한 음향 효과들을 제작하고 편곡해서 수입은 얻는다. 후원 인들도 있다.

2). 내가 맥박에서 2개월 동안 한 일은 크게 보자면

- ① 책읽기
- ② 피아노 연습
- ③ 매주 월요일 대청소
- ④ 점심 먹고 운동시간에 운동
- ⑤ 맥박 소식지에 나갈 글 적기(한번)

이렇게 5가지정도로 나눌 수 있다.

맥박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작업과 공연이 저녁이나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출근해 있는 시간에 할 일은 없었다. 오후에 노래연습하실 때 같이하고, 내가 일하는 시간에 어디 공연 가시면 따라가고(공연은 딱 두 번 가보았다), 어린이날 행사를 위한 센터에서 연극 준비하는 것을 구경하고, 맥박 안에서 자체적으로 열리는 음악 강습, 피아노 강습을 구경했다. 거기에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일할 기회를 쥐어주는 '식사당번'은 요리를 못하고, 양이 적다는 이유로 면제되었으니...

2달 동안 그 곳에서 약 8권의 책을 읽고 4곡의 피아노 연주곡을 완성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은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심심해 할까봐 미안해 하셨지만 오히려 내가 더 죄송했다. 그저 출근해서 밥 먹고 퇴근하는 것만 반복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으니. 그래도 보람된 일이 있다면 '맥박 소식지'에 글을 남겼다는 것이다. 그 글에는 나의 심정이 조금 묻어있기 때문에 느낀 점에 넣도록 하겠다.

* 맥박에서 한 특별한 일들

- 공연을 두 번 따라간 적이 있다. 한번은 하동에서, 한 번은 창원에서.

창원에서 열린 행사는 야당 단일후보 정책으로 큰 승리를 거둔, 여러 당선자 및 후보자들이 모인 자리였고 하동에서 열린 행사는 6.25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위령제였다.

- 맥박은 매달 후원자들을 위한 소식지를 만든다. 가수들이 그곳에 각자가 정한 글도 적고, 그 달에 한 활동들을 적는 소식지이다. 한번은 내가 그 소식지의 일부분을 맡게 되어서 그동안 있었던 일과 내가 맥박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일들을 적어 소식지에 실었다.

- 센터에서 일하시는 상근자 중 한 분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분은 내가 피아노 연주하시는 걸 보시고 자신의 아들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냐고 물으셔서 나는 여기서 하는 일이 많지 않아 그렇게라도 할 일을 주신다면 영광이라고 말하고-그 아이가 타고난 재능에도 영광이었다.-매주 월, 수, 금요일에 가르쳤다.

3). 인터뷰

① 이름: 강찬우

1. 이 일을 하시게 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5년

2. 어떤 계기로 이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대학교 노래패 하다가 자연스럽게

3.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동일

4. 현재 이일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80%

5. 가장 보람을 느낄 때와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보람: 공연 할 때, 사람들이 함께 환호할 때

힘듦: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6. 이 일을 하기위해 무슨 공부를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대학교에서부터 6년 노래패 활동

7. 여가생활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집에서 텅굴기, TV보기, 만화책, 집안일 도우기, 가족 만나기, 술마시기, 술자리 만들기

8. 이 일에 어떤 소질이나 적성, 성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마음, 열정

-인내심

9. 이 일을 선택하려는 학생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노래를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기 힘든 일이다.

사회를 올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

10. 당신에게는 어떤 역할모델이 있습니까?
주위에 열심히 사는 선배들, 그러나 참 힘들어 보이기도 하다.

11. 앞으로의 계획
맥박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밑바탕 만들기

② 이름: 김태호

1. 이 일을 하시게 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3년

2. 어떤 계기로 이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대학에서 노래패로 활동하다가

3.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노래를 부르고 대학 전수에서 강사를 맡고 있다.

4. 현재 이일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90%

5. 가장 보람을 느낄 때와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보람: 무대에서 사람을 만나고 공연할 때

힘듦: 딱히 힘든 일은 없으나 공연에 대한 압박감이나...

6. 이 일을 하기위해 무슨 공부를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대학을 다니며 학과공부보다는 이일에 전념하며...

지금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7. 여가생활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연애, 부모님을 찾아 뵙고,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

‘무한도전’

8. 이 일에 어떤 소질이나 적성, 성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래를 잘해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끼

-사회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 그릇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

9. 이 일을 선택하려는 학생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10. 당신에게는 어떤 역할모델이 있습니까?

노래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 열심히 살고 싶다.

③ 이름: 김대청

1. 이 일을 하시게 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3년

2. 어떤 계기로 이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대학에서 노래패로 활동하다가

3.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다. 맥박이 곡을 만들고 녹음을 할 때, 음향 편집 등의 섭외가 들어오면 이곳(맥박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한다.

4. 현재 이일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85%

5. 가장 보람을 느낄 때와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보람: 공연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동받을 때

힘듦: 맥박에서 나를 제외한 사람들이 전부 가수인데, 가끔씩 내 일을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6. 이 일을 하기위해 무슨 공부를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일에 들어오면서, 이 일을 맡게 되면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 갈 길이 멀다.

7. 여가생활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드라마 몰아서 보기, 만화보기, 자전거 타기, 등산, 술 마시기

8. 이 일에 어떤 소질이나 적성, 성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래를 정말 좋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발전 또한 힘들다 (자신이 가수가 아닌 엔지니어임을 잠시 잊으신 듯하다)

9. 이 일을 선택하려는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 좋아하면 하라. 대신 돈 벌 생각은 마라.

10. 당신에게는 어떤 역할모델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찾기 힘들다. 노래도 만들고, 노래하고, 믹싱하는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백자 씨)

III 느낀 점

우선 아까 말했듯이 소식지에 올린 글을 소개하겠다.

‘충북 제천간디학교에 재학 중인, 지금은 인턴십으로 잠시 이곳에 와 있는 강주원.

맥박사무실 맞은편에 위치한 경남문화예술센터 사무실에서 한 달 동안 일한 적이 있다. 겨우 창문 두개를 통해야만 볼 수 있었던 곳, 창문 세 개를 통해야만 겨우 들을 수 있었던 노랫소리를, 지금은 아무런 벽 없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첫 출근 날, 이곳 사람들과 함께 노래연습을 하고, 운동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내내, 나의 뱃속에서 나비 한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느꼈다. 기쁨에 벅찼으며,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했던가. 내가 그러한 기쁨에 적응했는지, 아니면 그러한 생활에 적응했는지는 모르겠다. 그저 내 뱃속에 있던 그 나비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다른 짝을 찾아 떠났나 보다. 그러고는 분명 또 그 짝을 떠나 다른 짝을 찾아감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나와 같은 허전함을 안겨주겠지. 그렇다. 나는 점점 이곳에서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며 연습을 하지만, 나는 잠을 청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한 시간, 두 시간, 그리고는 흐릿하게 들려오는 점심 준비소리. 유일하게 내가 잠을 청하지 않았던 날은 내가 식사당번인 날일 때 이지만 그날도 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지는 못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요리솜씨가 뛰어난데, 나는 국을 끓이기 전에 멸치와 다시마로 국을 우려내는 것조차 잊을 정도다. 내가 음식을 만들면 맛이 괜찮다 하시고, 어떤 분은 한 그릇씩 더 드시지만, 나는 안다. 맛이 별로라는 것을. 다행히도 나는 그 이후 식사당번에서 면제되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는 연습실 가장자리에 놓인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책을 읽거나, 피아노 맞은편에 보기만 해도 잠이 오는 소파에 앉아 또 다시 잠을 청하는 일이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집에 있는데 어머니께서 나에게 요즘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냐고 물으셨다. 그 질문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리고 내가 비참해지는 순간이었다. 내가 맥박에서 지내는 동안, 잠을 청하는 동안에도 노랫소리와 센터에서 연극 연습하는 소리, 웃음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왔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처음에 매혹되었던, 맥박에 온 이유인 그 노랫소리가 오래 전에 날 떠난 나비가 머물러 있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열정과 웃음, 기쁨이 가득한 공간 안에서 난 그동안 무엇을 해왔나. 깊은 후회와 동시에 다짐한다. 앞으로 다시는 잠을 청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토록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열정, 기쁨이 함께하는 이곳을 뺏속 깊이 느끼고 가겠노라고. 그리고 나는 그 노랫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분명 앞으로 한국의 모든 민중의 목소리를 대표할, 그렇게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강한 힘이었다. 나는 비록 앞으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만 이곳에 함께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래패 맥박을 상상하며 잠시나마 함께 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

사실 저기에 맥박에서 느꼈던 거의 모든 심정이 다 들어있기에 더 이상 말할 느낌이 없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인터뷰를 할 때 ‘여가생활’란을 직접 만들어서 여쭙어 보았는데, 모두가 자신의 일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드라마 보기, 술 마시기, 만화보기, 등산 등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면 여가생활조차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망원경으로 밥 먹기

김 유 진

언제

2010년 3월~7월

어디서

중국 하남성에 위치한 청운도 공동체
나병환자가 있는 중국 상락 인애원

무엇을

청운도: 선교지에서 공동체생활
상락 인애원: 봉사활동

나의인턴십

모든 것을 열고 받아들이기

[순서]

I 개요

1. 내가 생각하는 인턴십의 모습
2. 단체 소개
3. 동기
4. 인턴십을 시작하기까지 준비한 것들

II 공유

1. 느낌
 - 1). 청운도에 도착하기
 - 2). 적응하기
 - 3). 슬럼프
 - 4). 다시 새로운 곳으로
 - 5). 마지막 2주일

III 후기

1. 보고서를 쓰고 난 후 전체적인 느낌

IV 첨부

1. 결산서

I 개요

1. 내가 생각하는 인턴십의 모습

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턴십이 있지만, 인턴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인턴십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5년간 간디학교 안에서의 배움을 사회에 한 발짝 다가서서 현실과 경험을 배운다는 생각을 했고, 인턴십이라는 말에 결과가 어떻든 하고 싶었던 일을 잠시나마 하면서 또 다른 배움을 겪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본다. 그래서 나는 이번 인턴십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든 사회생활 속에서 내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누면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혼자서 일어서는 연습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잘 와 닿지는 않지만 이번 인턴십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단체소개

1). 청운도(靑雲島)

종교의 자유가 없는 중국에서 기독교를 전도하기 위한 만든 신앙 공동체. 선교사들과 중국 사람들이 함께 작업하고 공부하는 곳으로, 8년 전 유 선생님을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모인 중국인 기독교인들과 같이 만들었다. 버스정류장에서 30분을 걷다보면 돌로 쌓은 성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변엔 바다 같은 호수로 둘러싸여 있다. 경치가 아름다워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최근 중국에서 관광산업회사로 인가를 받아 지금 추진을 기획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30명 가까이 되는 인원엔 모두 선교를 위한 훈련을 바탕으로 한글과 영어공부, 신앙생활, 노동 등을 하며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2). 상락인애원

중국 서안에서 동쪽 150여km 떨어진 산골 지역에는 '상락인애원' 이라 불리는 요양원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인 수도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90여명의 중국 한센병 환우가 모여 있다. 중국 선교에 뜻을 품은 한 한국인 수도회 신부에 의해 요양원이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적은이원에 불과했던 환우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환우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나 유년시절 생김 병으로 인해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벗어나 수십 년 동안 산 속이나 동굴에서 숨어 지냈다. 그저 숨기에 급급했던 이들에게 치료나 어떠한 혜택은 주어지지 않았고 세월의 상처는 문드러지고 일그러진 손과 발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지금은 다양한 치료약이 개발되어 꾸준한 약물치료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현재는 한센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한다.

3. 동기

1). 청운도

딱히 이유는 없었다. 단체를 찾기 전 인턴십을 하는 기간 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었다. 광범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주제로 단체를 찾기 시작했다. 작은 마음이었지만 해외봉사를 하고 싶었던 나는 내 나름대로 인터넷 지

식인을 통해 조사를 해보았고, ‘오, 바로 이거야’하고 느낌이 온 것 없었다. 간혹 한두 개 마음에 들었어도 나이와 학력제한, 기간이 지나가버린 것이 일쑤였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보다는 다가오는 인턴십 계획발표에 나는 조바심을 냈던 것 같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상현쌤과 얘기를 하면서 양쌤께 단체소개를 부탁드렸고, 양쌤께서는 중국, 인도, 태국, 캄보디아 등 상세히 말씀해 주셨다. 그래도 결정하지 못하는 나에게 상현쌤과 양쌤께서는 중국에 있는 장애우 학교와 청운도를 추천해주셨다. 장애우 학교는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마음을 정할 수 있었지만, 청운도는 달랐다. 선교지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일이 있긴 있을까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해 지기위해 2년 전 청운도 에서 인턴십을 마치고 온 태진오빠를 만나 얘기를 나눴고, 태진오빠는 ‘네가 왜 하필 중국이고, 청운도 가려고해?’ 라고 물음에 난 대답을 못했다. 갈팡질팡 했던 마음이 확실해졌고, 청운도 대신에 다른 곳을 또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선 전화로 부모님께 상황을 전하는데, 부모님께선 청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지레 겁먹고 마음을 열지 못하냐고 말씀하셨다. 틀린 말은 아니다. 난 내 인턴십 주제를 마음 열기로 해놓고선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문을 닫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는 주어진 상황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어떤 봉사들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이지만 모험이라 생각하고 싫은 마음을 밀어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방학 후,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는데 장애우 학교가 마음에 걸렸다. 진작 자기소개서를 쓰고 메일을 보내드렸지만 확인만 되어있고 답장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양쌤께 전화가 와서는 그곳사정이 힘들어서 내가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2달씩 나누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은 무산되고 4개월을 청운도 에서 보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러면서 청운도분들께서 학교에 오셨을 때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나는 청운도 에서의 4,5개월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다.

2). 상락인애원

밑에 더 상세히 적어봤지만, 처음 계획되어 있던 일정이 아니어서 가게 된다면 아무 준비도 없이 가야하는 상황이 왔었다.

4. 인턴십을 시작하기까지 준비한 것들

1). 중국 드라마

대부분 사람들이 타국에 오랫동안 있으려면 소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기 전 미리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된다. 나 또한 언어가 되지 않으면 답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국어는 최소한의 언어소통을 목표로 하고, 영어는 중국어가 통하지 않을 때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책을 구입해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도 못 지나 그만뒀다. 영어와 중국어를 같이 하려니 헛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혼자하려니 집중도 안 되고 의욕만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냥 놀기에는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옛날부터 즐겨봤던 중국 무협드라마라도 보기 시작했다. 이미 봤던 거지만 또 보니 재밌고, 그러다보니 계속 보게 되고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내 나름대로의 준비를 시작했다.

2). 슈퍼주니어 노래 다운받기

슈퍼주니어는 한국에서 열세 명의 남자가수그룹이다. 열세 명 중 한 명은 중국인인데, 인기

가 대단하다고 들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친해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 마음에 노래를 다운받고 따라 부르면서 준비를 했다. 그리고 한국 유명한 가수노래들과 중국 '침밀 밀'도 함께 다운받았다.

3). 이것저것 물품 챙기기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비아의 '중국견문록'도 거의 다 읽어가면서도 책을 덮은 것 같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나에겐 노는 것도 중요했던지라 문구점에 파는 손톱에 봉숭아 물들이는 것과 색칠공부 책과 선물로 줄 예쁜 패션 발목양말과 수면양말과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장구 드는 소녀인형 등을 넉넉하게 준비했다.

II 공유

1. 느낌

1). 청운도에 도착하기

출국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외쳐댔지만, 일주일 내내 잠을 뒤척이는 거 보면 내심 마음이 불안했나보다. 설레고 기대가 되는 만큼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출국하는 날(3.1)이 왔고, 아빠는 며칠 전에 해외출장 가시는 바람에 전화로 인사해야 했지만, 엄마는 배웅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 말을 한 귀로 흘린 채 경주에서 인천까지 그리고 출국장에 들어가기까지 나와 오빠를 배웅해주셨다. (오빠는 중국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언어도 배울 겸 신앙훈련도 할 겸해서 같이 청운도로 가게 되었다) 엄마와의 마지막 포옹을 하면서 나는 울컥했지만 약한 모습 보이기가 싫어서 '갔다 올게'하고 선 뒤돌았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데 오빠가 뒤를 다시 한 번 돌아보더니 가만히 있기에 나도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그리고 내 눈에는 건 눈 두덩이와 코가 빨개져서는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다시 짙해지는 마음에 엄마한테로 가서 싶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에 들어가야만 했다. 첫날부터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첫날이니까 하루정도는 약해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렇게 청다오행 1시 50분 비행기를 탑승하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상상하지도 못한 채 앉자마자 졸음으로 인턴십을 시작하였다.

중국 청다오에 도착하였다. 주변 구경할 시간도 없이 기차시간 때문에 허겁지겁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 바깥구경을 하는데 날씨도 우중충하고 한국과는 다르게 도로가 되게 넓었지만 건물은 덩성덩성 있고, 약간 황폐해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잠시, 선교사님들께서 운전기사에게 빨리 가달라는 부탁에 모두다 손잡이를 붙잡고 한 시간 동안 가야했다. 과속은 기본이고 끼어들기에 무단횡단도 부족해서 역주행까지. 재미있기도 했지만 자칫 죽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운전기사 덕분에 기차를 무사히 탈 수 있었다. 이상했다. 오후 5시쯤 난양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9시가 되도 안 내린다.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고 공기만 탓해진다. 딱 구십도 직각의자에 폭도 좁다. 처음에는 '와, 기차 탄다. 하면서 마음이 설레었지만, 네 시간쯤 계속 앉아있으니 마음은 설레어도 엉덩이에는 쥐가 나는 것 같고 터질 것 같은 허리와 점점 빠근해지는 다리도 아파지고, 처음에는 옆 사람에게 실례가

될까봐 어깨를 움츠리고 갔지만 점점 포개져서 가고 있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궁금했지만 선교사님들께서는 기차에 타자마자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 아마 이 기차를 많이 이용하신건지 괜찮으신 듯 했다. 그리고 새벽1시쯤 일어나시기에 언제 내리냐고 여쭙었더니 낮12시라고 말씀하셨다. 앞으로 11시간은 더 가야하고 그 때 시즌이 명절이라서 기차 안에는 복도에도 사람들이 꽉 찼다. 의자 없이도 바닥에 누워 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발 디딜 곳이 전혀 없어 화장실도 꼭 참아야 했다. 오빠와 나는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 옆 칸에 학생들이 있었다. 아까부터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못했는데, 마침 학생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었다. 오빠는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나는 전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전자사전으로 서로간의 소통을 나누었다. 사진도 찍고 과자도 먹고 이메일도 주고받으면서 친해질 수 있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생긴 친구들이라는 마음에 나와 오빠는 엄청 기분이 들떠있었다. 그리고 언어장벽을 느낀 나는 인턴쉽 동안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놀다보니 시간이 빨리 흘렀고, 드디어 난양에 도착했다. 마중 나오신 분과 인사를 나누고 청운도까지 또 1시간동안 빵차(옛날 한국 삼류차와 비슷한 차)를 타고 청운도로 향했다. 차안이 좁다보니 내가 짐칸에 타게 되었고 도로가 깨끗하게 깔아져있지 않아서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짐들과 같이 뒹굴면서 갔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과 또 인사를 하고 방 안내를 받고 다 같이 모임을 가졌다.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었고, 한국 분들은 소수였다. 부끄럽지만 내 소개를 하고 나의 이름 한자를 보시고 중국이름을 만들어주셨다. 앞으로 중국에 있는 동안 나는 '쨌 웨이 쨌'로 다니게 될 것이다. 앞으로 힘든 날도 많겠지만, 인턴을 시작했다는 기분에 뿌듯함이 짝 차있었다.

2). 적응하기

가끔가다가 일정표가 바뀌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생활되었던 시간표는 오전 5시에서 6시는 새벽기도이고, 7시부터 8시까지는 아침식사, 8시부터 12시까지는 노동시간이고 2시까지는 휴식시간이다. 그리고 6시까지는 공부(중국어나 성경공부나 과제)를 하고 7시까지 저녁식사, 8시30분까지는 기도회모임이 있었다.

'3월은 봄이니까' 이라는 생각으로 잠바는 바람막이 하나만 챙겼다. 하지만 중국의 날씨는 한겨울이었고, 추위도 '곧 적응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이 추위에 적응할 수가 없었다. 얼굴은 하얘지고 눈 밑과 입술은 파래지고 코와 볼은 빨갛고 콧물까지 흘쩍이는 내 모습이 안쓰러우셨는지 차 선생님께서 따뜻한 패딩잠바와 목도리를 주셨다. 그래도 너무 추워서 나시 입고 반팔입고 긴팔입고 후드티 입고 바람막이 입고 패딩잠바를 입고 목도리로 머리와 목을 감싸니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청운도는 풍경이 아름답다고 구경해보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밖에 나가기엔 지금의 완전무장은 어렵도 없었다. 밖에는 중국 특유의 흐린 날씨 때문에 황폐해 보이기도 해서 날씨가 풀리면 나가기로 했다. 중국에는 아직 보일러가 없어서 잘 때 전기장판을 주시긴 했지만 이불 하나로는 장판에서 올라오는 열을 보온시키지 못해 세 개를 덮고 잤다. 이불 속이 너무 따뜻해서 나태해지기도 하고, 알면서도 혼자 합리화시키기에 바빴다.

가장 나태해진 일은 청운도에 도착한 날부터 새벽기도를 오일동안 못나갔다. 우리 집도 기독교이지만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 그래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막상 가려니 일어나지지도 않고, 이불 바깥으로 나갈 엄두도 나지 않았다. 청운도에 있으면서 멘토역할 해주셨던 분은 차 선생님이신데, 밥을 먹으면서 꾸중을 들었다. 청운도에 있어서

새벽기도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니까 꼭 참석하자며 같이 노력하자고, 2년 전 태진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니 너도 간디학교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새벽기도를 빠질 수가 없었다. 엄청난 부끄러움이 밀려왔기 때문이랄까. 그래서 그 날부터 12시에 자던 습관을 버리고 늦어도 10시에는 잠을 청하기 시작해서 4시30분에 어떻게든 일어나도록 노력을 했다. 예배시간에 조금씩 졸다가 예배마치고 아침밥 먹기까지는 40분 시간이 비었는데, 그 시간에 다시 침대에 올라가 자기 바빴다. 한동안 그런 생활을 반복했던 것 같다. 예전에는 새벽기도 안 나가고 아침밥 먹기가 정말 죄송스러웠는데, 꾸벅 졸긴 해도 죄송한 마음이 예전보단 많이 없어진 듯 했다. 게다가 예배드린 후 다시 잠들지 않고 내 할일 하고 아침밥을 먹으면 더 맛있기까지 했다.

중국에 가면 특유의 향신료 때문에 밥을 잘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첫 날 청운도 들어가기 전에 점심밥을 먹었는데 칼국수로 보였지만 중국라면이라고 했다. 칼국수든 중국라면이든 보기에는 너무 맛있어 보여서 배고픈 마음에 먹었는데 몇 입 먹고 배부르다며 젓가락을 놓았다. 모두들 잘 먹고 있는데 나 혼자 중국음식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다시 그릇을 보니 기름기가 뚝뚝 떠 있는 걸 보니 입맛이 없어졌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지내야 할지 혼자 고민을 했었다. 근데 그 고민은 얼마가지 못했다. 청운도에 도착하고 바로 저녁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는데, 특유의 향도 나지 않고 미역국 냄새까지 났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엄청나게 고했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국을 한 입 먹었는데 한국에서 먹는 미역국 맛은 아니었지만 정말 맛있었다. 반찬 중에서도 시금치무침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먹는 시금치무침보다 훨씬 맛있었다. 후식으로 먹는 사과도 내 주먹만큼 작은 크기였지만 달고 맛있었다. 중국에서의 아침은 죽과 만두를 먹는다. 청운도 에서도 아침은 죽과 만두를 먹었는데 고구마 죽은 특이했다. 정말 쉽게 냄비에 물을 붓고 좁쌀을 많이 넣어서 저은 다음 고구마를 썰어서 넣은 후 익으면 끝이다. 처음 먹을 때는 죽이 싱거워서 고구마만 건져먹었는데 점점 고구마랑 같이 먹으니 맛있게 되었다. 이렇게 중국에서 음식을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다. 가끔 밥이 지루할 때는 과자를 먹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기도 해서 정말 많이 먹었다.

중국어공부를 하는 시간에도 과자를 멈출 수 없었다. 청운도로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난 친구들과 메일을 주고받기 위해서라도 중국어를 배워야했다. 배우려는 이유가 이것 뿐만은 아니지만 중국 와서 처음 친구를 사귀는 만큼 친구의 사이를 이어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청운 도에 2년 동안 선교훈련을 받고 있는 환환 이라는 중국 언니가 있었다. 빠른 스물 두 살인데 중국어, 한국어, 영어가 가능했다.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환환 언니에게 공부를 배우게 되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던지라 날이 가면 갈수록 써지는 말과 들리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발음이 어렵고 ‘드디어 외웠다’ 하다가도 다음날 되면 가물가물해지는 한자여서 지치기도 했지만 조금씩 중국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에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었다. 하루에 세 시간씩 배우는 것도 내 욕심에 차지 않아 다음날 새벽기도가 걱정되긴 했지만 공부를 위해 잠을 한 시간 늦게 자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구입해서 궁금했던 단어를 몽땅 적어놓고선 전자사전으로 찾았다가 환환 언니에게 물어서 재확인하고 난 후 최대한 사 용을 했다. 그러다 보니 수첩을 보면서 말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말 문장도 길어지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 달을 공부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져서 차 선생님께 말씀 드렸다. 차 선생님께서도 괜찮아하셨고 더 나은 방법과 고민을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세 사람을 생각해 보았다. 한 분은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언니가 있는데 끈기가 있고 성격이 좋아서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언니는 한국말을 잘 못하고 나는 중국어를 잘 못하니 소통이 힘들어 중국어공부가 가능한지

그게 문제였다. 배우라면 배울 순 있겠지만 서로 답답할 것이고 어쩌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앞서기 시작했다. 어쩔까 하며 갈팡질팡 하던 시기에 언니가 와서는 하는 말이 중국어를 배울 때 성조가 중요하니까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조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겠냐고 물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다음 날부터 시작했다. 재미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계속 소리 내어 정확하게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전보다 큰 발전을 할 수가 있었다. 나머지 두 분은 따로 수업을 하지 않고 순서가 틀린 내 말을 다시 고쳐서 기억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 그렇게 이 주일을 보내고 나니 공부에 대한 열정이 조금은 식어져갔다. 복습을 하지 않고 자버려 배운 건지 안배운건지 긴가민가하기도 하고, 한자도 매일매일 연습하지 않은 탓에 외웠던 것도 잊어버리는 지경까지 오기도 했다. 시기가 힘들기도 했고,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질리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이 시기가 힘들고 중국어를 질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책을 보지 않았을 뿐 수첩은 필수품으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노동을 중요시한다. 노동을 하면서 서로 힘든 것을 고려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어울리면서 꾸미지 않는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껴보라고 하신다. 오전 8시에서 12시까지 노동을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진다. 내가 갔을 시기에는 ‘아시아 평화학교’를 추진하는 상태라서 건물을 짓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시멘트를 만져보았는데, 앞에 말한 건강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그럴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도 노작시간은 있지만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노동의 맛을 보고 왔다 해도 절대 과언이 될 수 없는 지난날들의 노동시간이었다. 삽도 무겁고 시멘트를 퍼다 나르는 것도 무겁고 벽돌도 무겁고 쉽거나 잔머리 굴릴 시간은 없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면서 노동에 임했다. 가끔 비가 내릴 때는 밭에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손님이 오시거나 가시면 방청소를 하기도 했고, 한 동안은 식당에 들어가서 어설프지만 요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주어졌다. 청운도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노동시간이 가장 크다. 서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든 것은 똑같지만 상대방의 땀을 더 걱정하는 마음을 배우고 실수를 해서 화가난다해도 이게 얼굴 찌푸릴 일인가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 노동을 다 같이 하다 보니 언어의 한계는 있지만 무언의 대화, 마음으로 많은 것을 얻은 기분이다. 그래도 노동이 힘들어서 가끔 늦게나가고 피를 부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기분 좋기는 커녕 미안한 마음이 더 커서 피도 부릴 수 없게 만들었다. 비오는 날에도 38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도 예외 없이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게 나름대로의 불만이었지만 그런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싶다.

금방 윗글에 청운도에서 노동을 중요시 한다고 적었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 생활이다. 이곳이 선교지인만큼 하루시작을 새벽기도로 시작해서 기도회로 마무리한다. 그 중에서도 새벽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예배당처럼 넓고 쾌적하고 시설이 잘되어 있기 보다는 스무 명이 들어가면 딱 차는 공간과 청소해도 벌레가 있고 냄새가 나며 시설이라고는 책상 하나밖에 없는 곳이지만 분위기는 거짓말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교회 수련회마다 참여하고 그때마다 은혜를 받았으며 새롭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이 주일도 못가고 다시 되돌아오기 마련이었다. 근데 청운도는 대부분 중국어로 설교하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게 끝이지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이 나를 기도드리는 분위기에 이끌었고 나도 따라 맞춰

나갔다. 청운도가 바깥생활과 차단되어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차단됨으로써 더 예배생활에 집중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차 선생님께서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가기를 원하셔서 매일 성경공부도 함께 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정작 내가 마음에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다. 만난 것 같지만 아직은 나에게 믿음이 부족한 듯하다.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자체만으로도 힘이 나고 고마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적응이 필요했던 것은 씻는 일이었다. 청운도에는 따뜻한 물을 나오게 하려면 가스통을 연결해서 밸브를 풀어야한다. 3월 달은 한겨울이었고, 매일매일 씻기에는 가스를 아껴야 했기 때문에 모두들 물을 아껴 썼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머리를 감아야지 했는데 이틀에 한 번 쓰는 것도 많이 쓰는 거라고 들어서 사람들이 며칠에 머리를 감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5일, 6일, 심지어 7일 만에 감는 사람들도 있었고, 몇 소수사람들은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감았다. 내가 이곳에 너무 편하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다음 사람 따뜻한 물을 생각하기로 하고 나도 같이 5일에 한 번씩 감기로 선택했다. 머리감기까지 먼지가 많이 붙을 것을 예상하고 빗질을 자주해주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머리에는 윤기가나고 간지러운 정도가 심해져만 갔다. 5일째 되는 밤이 제일 최고였다. 내일 새벽기도 가려면 빨리 자야 되는데 머리는 너무 간지러워서 죽겠고, 그렇다고 긁을 수는 없고 그럴 때마다 심호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기 바빴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어느새 손이 머리에 가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음날 새벽기도가 지나고 노동시간도 지나고 점심시간도 지난 후에 휴식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시간이 난다. 물을 틀어놓고 신나게 머리를 감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 깨끗이 씻고 나면 다시 뽕뽕뽕한 머릿결이 보이고 기분도 좋다. 가끔 5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감으려다가 나보다 다른 분이 먼저 씻고 가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감지도 못한 채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날이 있었고, 저녁에 감아야지 했는데 전기가 나가서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도 여러 번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불거나 비가 오면 전기가 쉽게 나갔는데 그럴 때마다 하루나 이틀정도는 물과 전기 없이 살아야 한다. 물은 항상 미리 받아놓는 통이 있고, 전기는 양초나 랜턴을 이용했다. 머리가 너무 감고 싶어서 통에 있는 물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그 물은 간단하게 세수나 양치질, 설거지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눈치 보이는 일이었다. 가끔 3일이나 4일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밥도 안 넘어가지만 그래도 모자를 쓰면서 겨우겨우 버텼던 것 같다. 그때부터 물이 생명이고 소중한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슬럼프

청운도에서 지낸지 두 달이 지나고 있었다. 처음 청운도에 와서 생활할 때에는 ‘이렇게 예쁜 곳에서 앞으로의 인턴을 하겠구나’ 하면서 기대를 품었고 품은만큼 잘 지내왔다. 다만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었지만 지내면서 점차 깨달을 꺼라 생각하고 넘긴 게 끝이다. 근데 나를 슬럼프에 빠지게 한 것은 늦잠을 못 자게 하는 새벽기도도 아니고 몸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노동 또한 아니었다. 점차 깨달을 꺼라 생각하고 넘겼던 ‘내가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는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는 것이었다. 한 달은 적응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달 반이 들어서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정체성에 흔들렸다. 막연하기도 했지만 이곳에 오기 전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것을 받아들일겠다는 마음으로 청운도에 왔지만 이곳에서는 딱히 내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나도 청운도에 대한 사전조사가 부족했던 것 같다.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 기간이 다되어서 나가게 된다면 나에게 남는 게 있긴 할까 라는 의문도 들고 내가 내 자신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믿고 싶지도 않았다. 준비되지 않았던 내 자신에 반성을 하고 부끄러워만 했지 스스로 위로와 용기를 주지도 못했다. 그래서 차 선생님께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차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이상 이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깨달아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이라면 그렇게라도 믿고 싶었다. 그러다가 카페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소식을 읽는데, 공감가기도 하면서 내가 더 막막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시기가 힘들 시기란 걸 알면서도 그리고 자연스럽게 조용히 지나간다는걸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못 받아들였던 것 같다. 혼자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힘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이 또 힘들게 했지만. 슬럼프기간이 지나고 일기장보면서 알았는데 그때 힘들었던 순간에서 깨달은 것이 많았다. 그리고 생각난 글이 있었는데 요시모토 바나나 <하치의 마지막 연인>을 보면 실연했는데 억지로 기운 내려고 애쓰는 것은 ' 미처 익지도 않아 시퍼런 바나나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노랗게 만들려는 것. ' 이라고 말한다. 실연당한 것은 아니지만 애써 아닌 척 하려고 했던 그때의 내 모습이 어리고 또 어리석기까지 했다.

슬럼프에 빠져나오기까지 나는 결단이 필요했다. 긴 시간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고민으로는 꽤나 오래 끌고 갔다. 생각날 땐 고민하고 가끔씩 잊어버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보름을 지냈다. 그리고 비자연장을 해야 할 시점이 와서 비자 연장하러 갔는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하면서 까다로워졌다. 게다가 예전에 청운도에서 선교했었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어서 해줄 수가 없다며 퇴짜를 당해버렸다.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가야하는데 한 달을 채우기 위해 한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오기에는 경비가 들고 다시 온다 해도 한 달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안 오기에는 한 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단체를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대로 가기에는 청운도에게 해준 것이 없었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다. 힘들어서 한국에 가고 싶기도 했으나 이런 상황으로 가기는 정말 싫었다. 차 선생님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시간은 이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부모님과 현숙쌤과 양쌤께 미리 알려야하고 어떻게 될지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이 주일 후에는 한국일 것이다. 근데 다음날 일주일동안 환환언니집 카이핑에 놀러가기로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 주일에서 일주일은 너무 큰 도박이었다. 정말 하루 종일 일기장에 내 생각을 정리하다가 내일 하루 동안 금식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선생님께 내일 카이핑에 놀러가지 않고 하루 금식기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힘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음날 방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에만 매달렸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건지, 하나님의 인도로는 올 수 없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나를 왜 이곳에 인도하셔서 지금 상황을 만드신 건지, 내 앞길까지 말긴다고 다 내려놓겠다며 기도를 했다. 사실 말이 기도지, 지금껏 꺾꺾 쌓아왔던 것들을 터트렸다. 그러고선 지난날들을 정리하는데 정리가 잘되고 내가 이곳에 왜 왔는가에 대한 물음에도 마음이 심난하지 않았다. 공동체를 느낄 수 있었고 여러 사람들과 인맥도 맺을 수 있었고 덕분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까지 배울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러 왔다가 보다는 무엇을 배우러 왔다는 게 더 어울리는 말이 되는 것 같았다.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진실 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노동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

는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으니 내가 평소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차 선생님과 나누면서 앞으로 이들을 더 금식기도해보지 않겠냐고 같이 하자선 권유에 앞일을 계산하지 않고 알겠다고 해버렸다. 그렇게 이들을 더 금식해보니 정말 속이 쓰려서 배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자기도 했고 배가 너무 고파서 먹고 싶은 음식들을 적어보기도 했고 기름을 먹지 않으니 생각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께 연락이 왔는데 한 달이라도 시작했던 곳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다행이 청운도로 다시 오게 되겠지만 집에 있는 동안 청운도에서 무엇을 할지 나에게 배려해주신 분들께 어떤 정성으로 보답해드릴지 고민하기로 하고 한국에 비자 연장하러 다녀왔다.

4). 다시 새로운 곳으로

한국에 도착한 뒤 양쌤과 현숙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사님께 메일이 왔다는데 북경 장애우학교에 계시다가 나병환자를 치료하러 병원으로 옮기셨다고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병환자가 있는 곳 상락인애원에서 몇 주 봉사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가고는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며칠 전에 했던 청운도에서의 다짐이 나를 망설이게 했다. 중국 다시 가기 전에 현숙쌤께 대답을 해드려야 하는데 비행기타기 몇 시간 전에 말씀드렸다. 5일 동안 고민을 하면서 청운도에서 마무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안타깝지만 가지 않기로 어렵게 마음을 굳히고 다시 청운도로 향했다. 청운도 사람들에게 딱히 해줄 게 없었다. 그저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이 진심으로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었다. 노력하면서 지내는데 차 선생님께서 내가 한국에 간 사이에 상락인애원 박사님께 전화가 왔었다고 말하셨다. 그러시면서 네가 가서 봉사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너만 괜찮으면 보내겠다고 말씀했다하셨다. 나는 벌써 안 간다고 부모님과 현숙쌤께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청운도에서 이 주일동안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이 주일동안은 봉사하러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주일동안 청운도에서 정리를 하는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려고 정말 노력했다. 주말에도 동네 아이들과 놀아주고 평일에도 놀아주면서 빠른 시간들이 지나갔다. 마지막 날 밤에 기도회에서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이나 느낀 것들을 한 시간 동안 발표를 하고선 나를 위한 기도를 해주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울고 있었고, 나도 아쉬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에 울고 있었다. 다시 오기를 환영한다는 의미로 밤늦게까지 파티를 하다 취침을 했다. 마지막 밤이라서 그런지 잠을 뒤척였다. 모기 때문에 창문과 방문을 닫고 모기향을 피운 후, 선풍기를 밤새 돌리는 스릴도 이전 없겠지, 혹시나 질식사로 죽진 않을까 자기 전 항상 생각했지만 난 멀쩡히 살아서 다음날 아침에 떠나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날 상락인애원이 있는 서안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모두와 헤어졌다.

5). 마지막 2주일

서안으로 가는 버스 다섯 시간을 타고서 방금 헤어진 청운도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봉사를 하고 싶지만 새로운 곳에 또 다시 적응하고 하루 일정이 피곤해질지도 모르는 곳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박사님을 만나서 상락인애원이라는 곳에 들어갔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셨고 직원봉사자도 여럿이 있었다. 모

두들 착해보였지만 혼자라는 것에 가자마자 의기소침해진 상태였다. 근데 그것도 잠시 중국 봉사자들이 민망하지 않게 첫 날부터 장난도 치고 말도 걸어줘서 금방 괜찮아졌다. 상락인애원에서는 내가 봉사활동으로 갔기 때문에 크게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병원복도와 사무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방을 쓸고 닦고 정리해드리고 말벗이 해드리면 된다. 가끔 목욕과 이발해드리고 산책도 시켜드리면 되게 좋아하신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끼니마다 먹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 배식해드리고 설거지를 하면 하루봉사는 끝이 난다. 청운도보다 더 시간적여유도 많았고, 날씨도 덜 덥고, 내 나이 비슷한 사람들도 더 많고, 컴퓨터와 텔레비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께서 점점 내 이름을 외우시고 찾으시는 것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봉사자들과도 점점 친해지면서 느낀 거지만 소통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는 그 상황자체가 감사했다. 상락인애원에서도 새벽기도가 있었는데, 청운도 덕분에 아무런 문제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 2주일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라서 그런지 힘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곳에 내가 쉬려간 듯 한 기분이었다. 매일 씻을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했다. 상락인애원이 더 좋아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전보다 마음이 열린 듯 했다. 가는 날까지 모두들 잘해주시고 나도 게으름피우지 않고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서 떠날 때의 마음은 가벼웠지만 북경까지 가는 스물 네 시간짜리 버스를 타서는 그리운 마음이 너무나도 컸다. 상락인애원에서 겪는 갈등이 없었던 것이 조금은 아쉽기도 하지만 역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배부른 소리하고 있는 것 같다.

IV. 후기

1. 보고서를 쓰고 난 후 전체적인 느낌

4개월 반 동안 지낸 중국에서 힘들 때마다 얼마나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하면서도 꿈해 있었던 내 모습과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직도 어린모습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어진 상황이 있으면 불평을 늘어놓거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이번 인턴십을 통해서 자연에서든 사람에서든 무엇이 되었든 배우고 싶었던 주제인 만큼 중국에서 고민을 여러 번 하게 되었다.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그냥 그 상황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말처럼 몸이 쉽게 따르지가 않았다. 그러면서 청운도에 결코 짧지 않은 생활을 지내보니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겪으면서 자연스레 마음이 열어지고 불평이 줄기 시작했다. 지금도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중이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한참 기뻐하면서 모든 건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을 느꼈다.

홀로서기 홀로서기하면서도 막상 중국이란 곳에 가서 생활하려니 힘들었다. 새로 사귀 친구들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외로움에 어색해서 울기도 했고, 벗어나려고도 했다. 물론 시간이 해결해 주긴 했지만 이 외로움은 내가 살아가면서 꼭 느껴볼 필요가 있는 감정이었다. 나는 좋지 않은 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남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다가가지 않아도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길들여졌고, 고치고싶어서 먼저 다가가는 연습을 했지만 익숙지 않은 습관에 고치기가 힘들

었다. 근데 이번에 외로움을 느끼면서 먼저 연락을 하는 횟수가 늘어지고 옆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사실 인턴쉽을 하고 있을 때 미리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을 채워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보여 지는 결과물이 없어서 발표할 때 위축될 수도 있겠다란 생각을 했지만 다시 생각을 바꿔봤다. 내가 생각했고 계획했던 인턴쉽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하게 됐고,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물은 없어도 거기서 느낀 그대로를 거짓 없이 이 보고서에 적는 것이었다.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청운도에 가서 프로젝트를 하고 온 것은 아니지만 그 공동체들의 삶속에서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배워온 걸로 인턴쉽에 대해 만족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 한글파일로 적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간추리고 간추려도 여기에 적지 못한 말들이 너무나도 많다. 한국에서 힘들었던 것과는 급이 다르게 표현도 되지 못할 정도로 청운도에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힘들었던 시간은 배로 나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었고, 따뜻함과 사랑으로 나에게 되돌아왔다. 진심으로 나에게 대해주고 따뜻한 사랑을 받았던 만큼 이제 나도 남들에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갖춰야겠다.

중3때 학년 무빙스쿨로 소록도와 성심원에 다녀왔었다. 그때는 어린 나이였고, 감동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중국 상락인애원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선입견은 모두 사라졌다. 이들에게 있어 한국인은 그리고 요양원은, 힘겨웠던 고통의 삶 끝에 찾아온 '더불어 사는 가족'이고 '안식처'인 셈이다. 비록 남들보다 불편하고 힘겨운 생활은 계속되겠지만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소박한 삶의 모습에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으로서 새로운 미래의 꿈을 가꾸며 살아가는 인간미를 발견했다.

보이는 대로가 아닌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고 판단했던 내 생각을 깨고 이 보고서의 제목 '망원경으로 밥 먹기'처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지혜와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인턴쉽을 다녀왔다. 얼마나 성숙되었고 있는 그대로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인턴쉽을 발판으로 삼고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말 십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중 세 번째 안에 들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만큼 졸업을 앞두고 있는 나에게서 사회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줬고, 여러 방면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처음엔 인턴쉽을 잘못 갔다는 것에 후회했지만 지금은 잘 다녀왔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 인턴쉽 발표회가 끝나고 보고서를 마무리 하는 거라 긴장이 풀려서 처음 쓸 때와는 마음과 글이 조금씩 달라져서 내용이 뼈똥 하겠지만 긴 시간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

IV 첨부

1. 결산서

월	사용내역	지출	기타
---	------	----	----

3월	청운도 까지 가는 교통비 (인천공항행 버스+비행기+기차)	36,400₩+120,000₩ +140元	
	시내 및 생활용품	250元	
	청운도 생활비	200,000₩	숙식비
4월	시내	350元	
	청운도 생활비	200,000₩	숙식비
5월	시내	280元	
	청운도 생활비	200,000₩	숙식비
6월	난양-북경행 기차+인천행 비행기	137元+850元	
	인천-경주행 버스비	37,500₩	
	청운도 까지 가는 교통비 (버스+비행기[북경왕복]+기차)	36,400₩+520,000₩ +210元	상하이 엑스포 때문에 비행기 값 급상승
	청운도 생활비	200,000₩	숙식비
	정주여행(3박4일 숙/식/기타)	1000元	
	상락인애원 가는 교통비	150元	
7월	북경행 버스비	180元	
	인천-경주행 버스비	37,500₩	
합계		2,261,700₩	

당시 환율: 1元=190원

지하세계탐방기

김찬호

[순서]

I 인턴십의 계획

1. 운영의 실무적인 참여
2. 기획과 추진 혹은 운영적인 아이디어에 있어서의 참여
3. 기타

II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1. 가고자 하는 단체의 확정
2. 단체와의 컨택
3. 단체와 함께한 계획

III 활동

1. 바다비 자원활동
2. '지락' 공연기획

IV 마무리 단계

V 끝내고 나서

I 인턴십의 계획

2월 달에 인턴십을 계획하면서 썼던 글을 다시 한 번 읽어보았다. 바다비에서 지내면서 기록했던 일지보다 처음에 “이런 인턴십 기간을 보내겠다.”고 썼던 글을 다시 한 번 읽는 게 그 때 어떤 생각을 했었던 건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글을 통해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건 간단히 말하면 ‘복합문화공간의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와 소통을 경험하고 싶고, 내가 스스로 공연을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그럴 수 있을 만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인턴십을 마친 지금 다시금 그 계획을 읽으니 대체 왜 뭘 그렇게나 거창하고 장황하게 그 말을 하려했는지 모르겠다.

당시 나는 현장음향기술이나 한국 인디문화에 관심이 많아 학교에서나 밖에서나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보고, 혼자서 이런저런 장비들을 연구해보기도 했으며 공연을 보러 홍대, 신촌 인근의 클럽이나 라이브 홀, 바 나 카페들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내 인턴십에 대한 구상과 장소에 대한 물색을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마포구에 자리한 다양한 문화공간들 중의 하나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음향기술을 이용해 인턴십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초기에 내가 단체에서 하고자 했던 것 들을 정리 해 보았다.

1. 운영의 실무적인 참여

- 1). 라이브클럽으로서 운영되는 공연사업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
- 2). 외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미술전시, 퍼포먼스, 연극, 상영 등의 기술적인 부분
- 3). 공연, 프로그램 진행의 참여

2. 기획과 추진 혹은 운영적인 아이디어에 있어서의 참여

- 1). 특유의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주제를 통한 기획 / 추진에 있어서의 참여, 감 익히기
- 2). 원래는 더 다양하고 빈번하게 있었던 공연이외의 전시나 상영 등의 문화 프로그램 제안

3. 기타

- 1). 음악공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통에 대해서, 그 주제, 꺼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 2). 어떤 문화적인 주제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기.
- 3). 문화, 그 중에서도 음악을 세상과의 소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맺기
- 4). 앞으로 내가 만들어갈 문화기획(공연)에 대한 아웃라인 그리기

II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1. 가고자 하는 단체의 확정

그렇게 1월부터 2월 말 까지 앞으로 지낼 곳을 찾던 시간이 있었다. 대부분 인터넷에 커뮤니티가 있었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다. 주위에서 “어느 클럽이 공연하기 좋다더라, 활동가 모집을 한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공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내가 인턴십을 할 곳에 대한 느낌과 분위기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는 수 밖에는 없었다. 일주일에 5일 정도는 공연을 보기위해 홍대와 신촌 일대의 라이브 클럽, 카페, 대안공간을 찾아 마포구를 돌아다녔고, 그건 참으로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동반되는 일이었다.

2). 라이브 클럽 빵

2009년 12월 31일 날 처음으로 찾아갔던 곳이 신촌근처에 하나 있었다. 이후로 몇 번 공연을 보러 갔던 곳이었고, 인터넷으로 이곳에서 라이브 클럽 운영 외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빵은 94년 이대 후문근처에 처음으로 문을 열어 창작자들이 공연 외에도 다양한 파티나 전시, 극 등의 문화 활동과 작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99년도에 홍대로 이사를 오고 난 후 부터는 ‘라이브클럽’의 성격을 더 많이 띄게 되었고, 음악 중에서도 ‘모던록라이브카페 빵’이라는 간판을 내걸어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특유의 색깔을 더 많이 띄게 된 곳이었다. 또한 빵의 대표이자 사장인 김영등씨는 매주 토요일 오후 놀이터에서 열리는 프리마켓의 운영진이기도 했다. 놀이터라는 고정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다양한 집단이나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열어 소규모 자신들의 창작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 판매자들에게는 수익의 발생을 통해서 지속적인 활동의 계기를 제공하고, 지역의 기업들, 단체들, 주민들과도 작게나마 꾸준히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클럽 빵의 운영에는 충분히 참여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2월 초에는 빵에 대해서 궁금한 전반적인 것들과 함께 인턴십의 참여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빵 사장님인 김영등씨와 인터뷰를 가졌었다.

3). 쌀롱 바다비

바다비를 알게 된 건 2월 중순 즈음 이었다. 신촌 역 근처에 아주 작고 아담한 사이즈의 클럽이 있다는 소문만 많이 듣고 역시 인터넷에 마련된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즈음 빵에서의 인턴활동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다른 공간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라이브 실황을 기록한 동영상이나 어떤 뮤지션들이 이 곳에서 공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지만 역시 직접 찾아가서 그 공간을 경험하는 것이 내가 활동할 곳이라는 것을 확정 짓는데 제일 확실한 길이었다.

사실 몇 번 이곳에서 공연을 보고, 공간에 대한 느낌이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기간이 지나고 내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얼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어떤 불확실함이나 불안을 더 크게 만들었던 것은 이 공간이 인디씬 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저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년간 꾸준히 공연을 하고 있으며, 이는 어떤 대안성을 띄고 있으며 어떻게 이를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몇 번 찾아가 보았던 바다비의 모습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지할 수 없었다. 정확하게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빵 에서처럼 네트워크를 이용해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 도 아니었고, 특별히 그런 쪽의 취지, 목

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처럼 보였다. 사실 그런 것들이 인턴십을 진행하는 단체들에 대한 파악이나 확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들이 되었고 그런 건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사실 그런 의문과 불확실, 불확신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과 같이 있었던 건 어떤 ‘느낌’ 이었다. 그 느낌이라는 것이 거의 이곳에 대한 확신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던 게 사실이다. 어쩌면 절박함이었을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인턴십을 하기위해 찾아다녔던 많았던 공간들 중에서 가장 외지고, 가장 작고, 가장 더러운 곳이 바로 바다비라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건 분명 작고 험어진 이 공간의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에서 뿜어져 나오던 어떤 에너지, 순수함, 창작자들의 순도 높은 표현과 소통의 욕구 때문 이었던 것 같다. 나는 빵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비의 대표이자 사장님이신 시인 우중독보행과의 인터뷰를 시도했고 인터뷰의 내용은 사실상 빵에서 가졌었던 그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 즈음 빵에서의 실패를 그대로 같이 지켜보던 아버지나 쌤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인터뷰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었다. 내가 그걸 통해서 원했던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참여에 대한 협조였고 부탁이었을 텐데, 무언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로는 너무 겉돌고 예들러 말하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국 약속했던 인터뷰는 내 쪽에서 먼저 취소했고, 그 즈음 내가 정리하고 있었던 바다비와 내 인턴십에 대한 생각, 계획들을 사장님이신 우중독보행 씨에게 이메일과 우편으로 보내게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내가 보낸 우편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자는 연락이 왔고, 3월 중순께 쌀롱 바다비의 대표이자 시인인 우중독보행과의 첫 번째 접촉이 있었다.

2. 단체와의 컨택

컨택의 방법적인 면에서 내가 두 곳에 시도한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어찌 보면 두 단체는 여러 면에서 분명히 다른 성격을 띤 ‘다른’ 단체였음에도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모습의 활동방식만을 보고 나는 거의 같은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했던 것이었다.

웹 커뮤니티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런 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메일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공간의 운영 방침등을 파악하고 인턴십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서 조심스럽게 활동가능 여부에 단체의 의견이나 입장을 가늠해보는 식이었다.

빵에서 김영등씨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나는,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질문으로 준비된, 그가 99년에 빵을 인수인계한 이후로 수없이 가져왔을 똑같은 뻘한 인터뷰자리를 또 만드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간디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인턴십이라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빵에서의 활동을 희망하고 궁금해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인터뷰어들과 다른 점이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법도 했지만 당시 내가 빵에 대해서 가졌던 궁금증들은 그저 너무 뻘한 것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인터뷰 막바지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여쭙었던 때에 “그런 것들이 확실히 필요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서 인턴십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빵에서 그런 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그런 활동의 취지나 목적에 동의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응원하는 바이지만 정작 지금 빵의 입장에서는 내가 긴 시간동안 빵에서 인턴이라는 애매한 관계로 지내게 될 것이 부담이 된다는 뜻이었다.

솔직히 나는 당황하면서도 앞에서 말한 그런 ‘뻘한 만남’ 에 대한 느낌을 받았다. 직접 만

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한 번의 만남을 통해 공간의 운영에 있어서 실무적인 것들, 활동의 핵심적인 부분들 까지 캐치하겠다는 건 너무 걸잡기 같은 태도가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바다비의 우중독보행님과 가졌었던 컨택의 방법이 좀 더 직접적이고 솔직한 방법이었다. 처음으로 보낸 자기소개와 인턴십 활동에 대한 희망을 담은 내용의 이메일에서부터 나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계획 중이며 이런 면에서 바다비가 궁금하고, 내가 부탁하는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말을 전하려 했었다. 그렇게 첫 번째 접촉의 시도 이후로는 구체적인 활동계획, 인턴십과 바다비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우편으로 바다비에 보낼 수 있었다. 그 이후 그 계획서와 생각들에 대해서 사장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때의 만남에서 바다비에서의 활동이 결정되었다.

3. 단체와 함께한 계획

활동여부와 관련한 만남에서 바다비 사장님인 우중독보행님의 내 활동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태도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것 같다. 내가 보낸 우편물을 함께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과, 어떤 점에서 이쪽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보냈던 우편물들을 보면서 할 수 있었다. 바다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의 모습에서 지금 홍대 앞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유의 순수함과 정체성을 느끼고 궁금함과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부담이 있겠지만 4개월가량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을 내비쳐 보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결국 사장님이 처음으로 내린 인턴활동에 대한 생각은 반대였다.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가져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하기에 바다비의 환경이 그다지 좋은 영향은 아닐 것 이라는 이야기였다. 전에도 몇 번 있었던 자원 활동의 경우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기에 내가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럴 경우 그런 차이점들을 파악해 내게 적용시켜서 함께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바다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담배나 술, 늦은 밤늦은 시간까지의 공연진행 같은 요소들이 청소년인데다가 미성년인 나에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하기에 좋은 영향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었고 그 크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결론은 반대였지만 활동에 참여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단 활동하게 될 경우 그런 요소들이 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다.

분명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씀이 내가 어떤 활동을 펼 수 있을지,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 하는 것 이라고 느껴졌고, 어느 정도 나도 예상하고 있는 바가 있으며 여기서 하려고하는 인턴십 이라는 것의 의미와 초점이 경험과 내가 문화와 소통에 대해서 바라보고 고민하는 시야의 확장에 더 맞아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려 했다. 그 과정에서 사장님도 내가 정말 어떤 생각과 마음, 태도를 가지고 바다비에 찾아왔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듯 했고 “내가 막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는 이야기를 하셨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 까지 공연이 이루어지고, 공연이 있을 때 마다 나와서 공연을 보고 공연을 하기위해 필요한 장비나 무대의 점검, 공연자들과의 리허설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활동이나 내가 제안했었던 공연기획부분의 참여에 대한 방향을 생각해볼 시간을 일주일정도 가지기

로 하였다.

3. 활동

1. 바다비 자원활동

인턴십을 마치고 나서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불리는 곳, 그 중에서도 바다비에서의 자원활동을 계획했던 근원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내가 가졌던 한국 인디씬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홍대 앞이라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대한 관심과 호기심도 있었지만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도 같다. 정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표현함으로써 소통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찾고, 알려고 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짐작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깊은 곳에 있었던 때문 일거라는 생각도 든다. '나' 로서 세상을 보는 눈과 어떤 현상의 뿌리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내 행로에 대한 주체적인 계획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무엇을 노래하는지를 공연을 서포트 하는 활동을 통해서 보고, 앞으로 나의 행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인턴십을 계획하면서 가졌던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공간의 운영에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에 참여하는 것은 바다비에서 일주일에 네 번에서 다섯 번씩 이루어졌던 공연들의 공연자들과 함께 리허설을 진행하고, 공연을 진행하면서 주로 이루어 졌고 그러한 활동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항상 새로움이었고, 또 반복적이기도 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공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획적인 면에서 매 주 크게 다르지 않은 틀이 필요했고, 어느 정도는 패턴화되어 반복되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이를테면 목요일에는 '정신 up~데이' 공연, 금요일에는 '파랑주의보' 공연 이라는 식으로. 이는 바다비 정기공연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루에 네 팀에서 다섯팀 이 30 ~ 40분간 자유롭게 공연하는 것이 기본 적인 구조였다. 토요일에는 주로 한 팀의 단독공연이나 자체적인 기획공연이 주를 이루었고 일요일에도 정기공연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기획은 대표인 우중독보행에 의해 이루어졌고 나는 공연의 웹플라이어를 이용해 홍보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바다비에서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정리해보았다.

3시 ~ 5시

바다비에 도착하면 전날에 있었던 뒷풀이 때 정리하지 못한 것들을 간단히 청소 하고 공연자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바닥을 쓸고 닦는 일, 환풍기에 몇 년간 묵은 때를 청소하는 일, 에어컨의 수통을 비우는 일.. 사람이 항상 모이는 곳에 필요한 청소는 정말 끝이 없는 것이었다.

5시 ~ 6시

그렇게 한시간정도가 지나면 한 두 명씩 그 날의 공연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한다. 보통은 공연 시작 두 시간 전부터 리허설이 시작된다. 하지만 정말 항상 유동성 있게 시간조정이 이루어지고, 이는 리허설 뿐만이 아니라 공연을 시작하는 시간, 공연의 순서, 공연을 마치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었다. 어떨 때는 30분씩 공연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공연자들의 지각이 주된 이유인데, 지각의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마찰이 바다비와 공연자들 사이에서 마찰이나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뒷풀이에서 꼭 해결이 되고는 했는데 바다비에서 이 뒷풀이 라는 것은 사장인 우중독보행만의 운영 방침에도 포함 된다고 생각한다.

6시 ~ 7시 (7시30~50분)

리허설을 위해서 공연자들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나도 준비를 하게 되었다. 기본 적인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마이크 케이블, 기타 케이블, 건반이나 노트북에서의 음원 재생을 위한 스테레오 케이블등을 준비하고 상황에 맞게 메인 스피커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공연자들의 음악과 연주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날그날 융통성 있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날 공연의 성격도 리허설 때 많은 부분 짐작 할 수가 있다. 전체적인 공연의 모습을 그릴 때 리허설이라는 작업은 정말 중요한 작업이었다. 공연자나 엔지니어나 실수를 하더라도 리허설 때 해보아야 본 공연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종 많은 이유들로 약속된 시간에 늦어 리허설 없이 공연에 올라가게 되는 팀들의 경우 항상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도 같다.

7시 30분~ 8시

리허설이 끝나면 녹음과 방송준비를 했다. 내가 바다비에 오고나서 2개월 정도 뒤 5월 중순부터 바다비 식구인 백자씨와 모호누나와 함께 일하는 종천이형이 웹캠과 컴퓨터 녹음기를 이용해서 바다비 공연 실황을 '아프리카 TV' 라는 개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이용해 방송하는 이야기를 했고 6월 부터는 준비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매일 공연 실황을 웹으로 방송하였다. 마이크 몇 개와 기타 앰프를 믹싱콘솔로 연결하고 이걸 다시 컴퓨터와 연결하여 컴퓨터 안에 자체적으로 내장되어있는 녹음 프로그램을 이용해 녹음을 하고 웹캠으로 영상을 잡아 둘을 합쳐 방송하는 방식이었다. 처음에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종천이형과 날을 잡아 밤새 이것저것 입력이나 볼륨, 녹음 테스트를 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해서 녹화된 영상은 필요한 공연자들에게 편집하여 나눠주기도 했다. 방송은 초반에는 몇 명 시청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나중에는 상수동에 있는 이리카페에서 매일 시청하기로 하기도 하고, 막바지에는 애청자 리스트가 생기기도 했다.

7시 30분 (8시) ~ 9시 30분(10시, 11시)

공연이 시작되면 믹싱콘솔앞에 서고, 그때부터 공연이 끝날 때 까지 무대를 주시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콘솔에 연결된 여러기기들을 이용해 소리의 크기나 밸런등을 세세하게, 또는 전반적으로 정리한다. 공연 중에 무대 위에서 공연자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기타를 잡고 있는 사람의 마이크 스탠드가 쓰러진다가, 보면대가 넘어진다가, 케이블이 뽑힌다가, 드럼 세트의 심벌이 떨어진다가. 무대 밖에서는 술에 취한 관객들이 무대위에 맥주나 막걸리 따위를 었지르다가, 격한 몸부림으로 천장에 걸려있는 조명이 떨어진다가 하는 일들은 사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이라 항상 긴장하고 있을 법 하지만 오히려 그러려니 하기도 했다. 너무 자주 있는 일들이었다. 그런 갑작스런 상황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고, 또 익숙해지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믹싱콘솔을 잡지 않았던 공연이 있을때는 입구에 자리를 펴고 입장료를 받고 관객 입장을

안내하는 일을 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녹음과 녹화를 맡아서 하기도 했다. 또 어떤 때는 다른 것 없이 완전히 무대에만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을 공연자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조정해주는 일을 맡기도 했다. 매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음악들로 채워진다는 점에서 매일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공연이 짜여 지는 형식이나 틀에 의해서 한 주 한 주 가 패턴화 되어 지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어떤 날은 별 문제 없이 매끄럽게 공연이 진행되어 마무리까지 잘 되는 날이 있었는데 어떤 날은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시간약속을 지키지 못해 여러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이기도 하고, 진행하면서도 크고 작은 실수들로 쉽지 않았던 날들도 많았다.

9시 30분(10시 30분)

보통 10시에서 10시 30분, 늦게는 11시에는 공연이 마무리되고 이 역시 우중독보행의 클로징 멘트로 이루어진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나면 무대 위에 남겨진 장비들을 정리하고, 관객들이 남기고간 쓰레기나 짐들을 정리하기도 했다. 녹화된 영상을 편집해 그 자리에서 공연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사람들과 인사를 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정리도 없이 공연이 끝나자마자 모두다 뒷풀이를 하러 왓자지껄 바다비를 나가기도 했다.

2. '지락' 공연기획

1). 시작

활동에서 공연기획부분의 참여는 내가 우편을 통해서 제안했던 것이었다. 활동을 시작 할 때는 확실히 않았지만 도중에 우중독보행님께서 나에게 한 번 더 바다비 공연 기획을 제안하셨다. 사장님께서도 내 활동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 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학교에서 동아리로서 꾸려나가던 '지락'이라는 모임의 첫 번째 외부기획공연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기획하기로 했다. 어떻게 꾸려 가느냐에 따라 바다비의 활동에도, 인턴십에도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활동이 될 것 이었다.

처음에 사장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의 요지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활동이 나에게 있어서 경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바다비에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의 매일 공연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니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지는 바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무슨 이유에서 이런 기획을 하고, 어떤 게 정말로 바다비와 지락 둘 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매학기 말마다 음악회 형식의 공연을 꾸려서 학교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밴드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락'이라는 동아리가 학교에서 주되게 하던 일이었다. 학교 안에서야 그런 종류의 공연은 지락에서 주최하는 '록페스티벌' 하나가 전부였기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었다. 참여에 있어서도 우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공연 문화를 좋아했고, 이미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흥내에 불과하더라도 '나도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악기를 들고 노래하는 모임을 하나 둘 씩 꾸려서 공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공연을 그대로 바다비의 무대로 옮겨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었다. 우선 학교에서 우리가 하던 공연에 참여하던 팀들 중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하는 사람이나 팀은 거의 드물었다. 그런데 바다비의 공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자작곡'이었던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어떤

짓, 거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바다비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이었고, 실력이나 인지도는 부차적인 요소들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공연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자작곡'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사실 자작곡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공연을 우리가 직접 만들고자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바다비의 협력으로 공연을 올리는 방법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학교에서처럼 카피곡으로 채워진 공연을 입장료를 받고 무대 위에 올리는 건 어쩔 수 없이 '뒤가 썩기는' 일이었다.

2). 기획과정

지락과 바다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연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참 어려운 질문. 우중독보행님과 논의 끝에 바다비에서 활동하는 공연자들과 지락에서 활동하는 공연자들을 섞자는 결론이 났다. 사실 그때당시에는 이걸 '공연의 성패가 달린 문제'라는 밀도 끝도 없이 진지한 태도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상 공연은 지락이라는 모임의 첫 번째 외부 기획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겠지만, 바다비나 평소에 바다비를 찾아오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처음 보는 모임에서 처음 보는 밴드들을 잔뜩 데리고 나와 뭔가 하는' 정도의 인상 밖에는 주지 못 하는 것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공연에 평소에 바다비에서 주로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것은 우선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었다. 하지만 바다비의 입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공연을 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우중독보행님은 바다비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고 새로운 뮤지션들이 이 곳에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시도이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공연자체는 공간의 운영에 있어서 일차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활동이었고 이 공간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지만 공연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일차적인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 결국 공간을 운영하는 것, 지속적으로 뮤지션들이 공연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공연자들은 지락에서 3팀, 바다비에서 3팀 씩 찾기로 했다. 물론 모든 공연자의 섭외는 지락에서 맡았고 섭외 외의 기획의 거의 모든 부분을 주체적으로 맡아서 공연을 꾸리기로 했다. 바다비 공연자의 섭외과정에서 우중독보행님을 통해서 공연자들의 연락처나 이메일등을 전달 받았던 것 빼고는 기획안 작성, 공연자 섭외, 홍보, 공연 진행 등 구성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 6월말에서 7월초로 넘어가던 이 즈음 '지락'의 이번 공연의 기획단은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명이 되어있었다. 비교적 초반에 협력하기 시작한 어진을 비롯해서 섭외 과정에서 캐비닛싱얼롱즈의 '차차'가 기획에 협력하게 되었다. 캐비닛 싱얼롱즈의 공연을 섭외하기 위해서 차차를 처음 만났을 때 차차는 내가 보내준 공연 기획안을 보고는 지락이라는 모임에 굉장히 흥미를 보였다. 사실 본인이 속해있는 캐비닛싱얼롱즈라는 팀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멤버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구상하고 있던 프로젝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 흥미로웠다는 것이다. 차차는 점점 흥대앞 인디씬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공연들은 갈수록 뻘해지고, 노래들도 거기서 거기고, 이 곳에 오래 있을수록 문화가 생산적인 구조로 발전해가지 않는 모습만을 보게 되는 것 같다고 얘기 했다.

'밴드'라는 틀은 자신의 다방면의 활동을 구현하기에는 스스로를 너무 묶고 있었고, 그러던 중 '송드링커스'라는 음악극 모임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밴드'와

는 조금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자신의 구상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차차는 여러모로 우리의 기획에 도움을 주었다. 어느 날은 그녀와 만나서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는' 공연에 대해서 논의 하던 중에 '악보 프로젝트' 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서로가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공유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이번 기획에서 실현시키기로 결정했다. 내용인 즉슨, '커다란 악보'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아주 크고 길다란 오선 종이 안에 각자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작', '출발', '도전' 등의 단어를 듣고 혹은 지락과의 만남에서 가졌던 느낌을 악보를 받아든 순간부터 31일까지 떠오른 어떤 방법으로든 종이위에 담을 수 있도록 한 작업이었다.

실제로 악보위에 기보할 수 있는 악상이나 멜로디가 될 수도 있고, 그림이나 글이 될 수도 있었다. 나눠줬던 악보들을 한 장씩 모아 31일 당일 날 바다비에서 이어 합쳐 결국 하나의 길다란 악보를 남기게 되는 모습을 구상했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서의 '기록' 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느낌은 강렬했고, 그만큼 공연과 함께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획단끼리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 어찌 되었든 음악과 함께 공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7월 초부터는 바다비 공연자 3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섭외가 시작되었다. 캐비닛 싱얼롱즈와의 만남 이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연락을 취한 팀들은 아이러닉휴, 구텐버즈, 하이투힘 이렇게 세 팀 이었다. 내가 이들에 대해서 소개한 바는 인턴십 일지에서 참고 하시기 바란다.

하이투힘이라는 남녀혼성 어쿠스틱 듀오를 뺀 두 팀은 바다비에서 활동한지 3년에서 4년 가량 되는 팀들이었다. 밴드 멤버들 모두 바다비 자원활동을 하면서 얼굴을 익히고, 뒷풀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공연 자체에는 흔쾌히 참여를 해주었지만, 더불어서 참여를 제안했던 악보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들 의아해 했다. 딱히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취지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인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납득이 될 것이었다. 때문에 공연섭외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수시로 연락을 취해서 악보프로젝트의 의도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딱히 방법이라 할 것 까지도 없었지만), 진행과정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지락에서 참여할 공연자들은 대부분 학교 안에 있었다. 7월 중순까지 바다비 공연자들의 섭외를 마친 후에 중순부터는 학교에 내려가 이번 기획에 대해 공지하고 공연자들을 섭외할 요량으로 공연 소개글과 더불어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안을 만들었다. 바다비 공연자들의 섭외가 일추 마무리 되자마자 학교에 내려갔지만, 이 때 즈음부터 시간이 촉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예상외로 학교에서 공연자들의 참여 신청이 저조했던 것이다. 애초에 섭외가 늦어진 것도 있었지만, 지락의 공연자들 입장에서는 막상 공연 경험도 많이 없는데다가, 학교에서도 자작곡으로 공연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더군다나 학교 밖, 바다비라는 처음 들어보는 곳에서 자작곡으로 공연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었던듯하다. 그래도 7월 중순이 넘어가자 하나 둘 씩 학교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공연 전부를 자작곡으로 채우는 것' 이라는 조건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카피곡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주어진 공연시간은 채우는 쪽으로 지락 공연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락 공연자들은 7월 중순부터 시작해 공연이 시작되기 전 날인 7월 30일 까지 최종으로 조정되고 변경되는 꽤 아슬아슬한 섭외과정을 거쳤다. 아무래도 학교 사람들이 대부분 이다

보니 뭔가 확실하게 자작곡 위주의 공연에 대한 결정을 하기 힘들었던 것이 큰 요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공연에 참여하기로 한 지락의 공연자들은 어진, 김승미, 철이와 훈이, 흐린, 윤나라밴드. 총 다섯 팀이었다. 처음 예상보다 두 팀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바다비공연자들의 섭외가 끝나고 지락 공연자들의 섭외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자, 차차의 소개로 알게 된 우리 나이 또래의 공연자들 두 팀을 더 섭외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까지는 지락에서 나온 공연자는 ‘어진’ 한 팀이었다. 아무래도 상황상 이렇게 공연자들을 채우고 공연을 올려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던 도중에 그제서야 학교에서 공연자들의 신청이 하나 둘 씩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계획했던 공연자들의 숫자는 찾지만 정작 기획자 입장에서 기다리던 공연자들은 섭외가 마감된 후에야 신청을 한 꼴이 된 것이다. 지락과 바다비 공연자들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뒤늦은 지락 공연자들의 신청을 뿌리칠 수는 없었고, 결국 그렇게 총 공연자들의 수가 8팀이 된 것이었다.

이런 섭외 과정이 전체 공연의 기획에서 크나큰 오류 중 하나였다는 건, 공연이 시작 된 당일 날에나 알 수 있었다.

악보 프로젝트는 의외로 참여율이 높았다. 공연자들이 아닌 서너명의 사람들도 우리의 홍보나 주위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악보를 받아가 31일 날 바다비에 들고 오기로 하였다. 4절지 크기의 악보는 공연자들의 것들까지 포함해 모두 열 장이 되었다.

3). 공연

“문화모임 지락, 첫 번째 외부 기획공연 <집을 나서, 문을 열자...>”, 7월 3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신촌의 고틀머리에 위치한 작고 허름한 바다비라는 곳에서 열린 공연의 제목이었다. 이 날은 다른날과는 다르게 오후 두시부터 리허설이 진행되었다. 공연 당일 일주일 째 전에는 모든 공연자들이 가능하면 리허설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취하기도 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공연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고, 바다비에서 지내면서 공연에 있어서 리허설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과정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평소에도 같이 일하던 종천이형이 진행을 도와주었고 어진도 여기저기 기술적인 부분들을 도와주었다.

리허설은 역시나 충분히 정신이 없었지만,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시작해서인지 다행히도 모두 마친 후에도 공연시작 전까지 한 시간 가량이 남아있었다. 그 사이에 공연자들이 가져온 악보를 미리 무대위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원래의 계획으로는 공연이 시작되고, 자신의 순서가 된 공연자들이 직접 가져온 악보를 무대 위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일 무대위에 여기저기 장비들이 설치된 상황과 사람들이 들어 찰 바다비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혼잡이 예상되는 작업인 것이었다. 리허설시간에 늦어 본 공연에 올라가 사운드체크를 한 후 시작한 아이러닉휴 빼고는 모두 리허설을 하면서 가져온 악보를 무대 위에 걸 수 있었다.

지락에서 온 ‘흐린’ 은 공연 때에 키보드가 필요했지만, 키보드를 빌리기로 한 ‘윤나라밴드’가 예상보다 늦게 도착해 흐린의 리허설도 조금 늦어졌던 것 빼고는 큰 문제없이 리허설을 마칠 수 있었다.

공연은 지연없이 7시에 시작되었다. 공연당일 일주일 전에 우중독보행님께 부탁했던 오프닝 멘트로 시작된 공연은 다시 우중독보행의 클로징멘트로 마무리 되기 까지 장장 세 시간이 걸렸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공연은 역시나 너무 늘어지는 감이 있었다. 솔로나 어쿠스틱 듀오의 공연으로 시작해 점점 밴드 구성의 팀이 공연을 하는 흐름이었다. 긴 공연시간에 지루해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고, 환호하는 모습, 작은 소리로 공연하는 팀에게는 조용

하게 집중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공연 도중에 늘상 일어나는 기술적인 문제들은 이 날 도 어김없이 일어났다. 리허설을 할 때는 문제없던 기타가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거나, 앰프가 말을 듣지 않아 일렉기타를 쓸 수 없다거나, 리허설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막 바로 본공연 무대 위에 올라갔는데, 예상보다 바다비 무대가 너무 좁아서 동선이 넉넉히 나오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들. 그 동안 바다비에서 지내면서 공연중에 볼 수 있었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섭외와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연자들에게 공지를 하고 나름대로 미리 양해를 구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바다비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무대위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준 공연자들도 꽤 있었다. 사실 홍대나 신촌에 있는 클럽들, 카페들에서는 공연을 하면서 이런 트러블들이 늘상 일어나곤 한다. 때문에 그런 곳들을 위주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상적인 문제들과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예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바다비에서라면 얘기는 달라졌다. 바다비의 공연장비를 비롯한 환경이 다른 곳들에 비해 썩 좋지 않다는 건 홍대에서 어느정도 공연을 해본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대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바다비를 찾아오는 건 공연자들이 홍대에서 바다비만큼 편하게 느끼고, 또 지속적으로 공연활동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맥락에서 바다비에서의 공연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면, 이 날 바다비에 새로운 사람들이 공연을 하기위해 잔뜩 모이게 된 건, 바다비와 홍대앞의 공연문화의 지속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새로운 가능성에 보탬이 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날 찾아온 관객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면, 우선 정말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거의 일주일이 채 안 되는 홍보기간동안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 날 총 공연하기로 한 사람들이 관객들의 숫자보다 많을 것 만 같은 기분이 들곤 했던 것이다. 공연 시작 일주일 쯤 전에야 겨우 포스터가 한 장 나왔다. 그것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활용을 할 수 있었다. 당일 날 바다비에 학교 학부모님들이 꽤 많이 오신 걸 보면 간디 교육공동체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웠던 것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학부모님들 외에도 졸업생들을 포함한 다양한 학년의 간디인들, 그들의 친구들도 관객으로서 바다비를 찾아와 주었다. 외에도 평소에 바다비를 찾아오던 식구들도 몇 명, 캐비닛 싱얼롱즈의 멤버분들도 몇 명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었다. 총 40명의 유료관객이 이 날 공연을 보기 위해 바다비를 찾아왔다.

IV 마무리 단계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 이 마무리 단계가 아니었을까 한다. 3월 중순 처음 바다비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인턴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우중독 보행님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놓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턴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8월 중순에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나의 일정만 공유하고 애매모호하게 7월 31일 지락의

기획공연을 끝으로 나의 바다비 활동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었다. 그러나 자연스레 31일 토요일 공연이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인턴십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결과물에 대한 준비를 한 만큼 마무리 할 것에 대한 사전적인 논의와 공유가 없었던 것이 전체적인 활동에서 아쉬운 점이다.

지락의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 주 부터는 몇 주 전부터 웹과 바다비 방송상으로 공지해온 자원활동가모집이 마무리 되고, 새로운 자원활동가가 들어오기로 하였다. 내가 가고 나면 얼마 후 종천이형도 바다비를 떠날 계획이라고 했다. 우중독보행 혼자서 바다비를 운영하는 건 물리적으로 무리가 되었기에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었는데, 때 마침 인턴십이 마무리 될 시점에 자원활동가 두 명이 지원을 한 것이다. 나는 이 주간 동안 인턴십을 마무리 짓기로 했고, 이 주간동안 내가 맡은 건 이 두명의 자원활동가들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었다. 우중독보행의 “뒷풀이 자리에서 합의 봤다”는 말만 듣고 누굴까 했는데, 얼굴을 보니 얼마 전에 바다비에서 첫공연을 치렀던 ‘아홉번째’ 라는 3인조 밴드의 드러머와 베이스 주자였다. 여기서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니 참 반가웠다. 알고 보니 이 사람들, 나이도 나와 얼마 차이가 나질 않았다. 열아홉살, 스무살의 청년들이었다. 어떻게 바다비에 오게되었냐, 부터 시작해 음악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 학교는 다니냐, 안다니냐 .. 반갑고 또 신기한 마음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행히 하루사이에 어색함이 많이 없어져있었다.

인수인계에 대한 건 사실 딱히 할 얘기가 많지 않다. 나도 이것저것 배우는 도중에 바다비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음향기술이나 무대에 대한 건 지금도 배우는 중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기기들을 다뤘던 방법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일이었다. 자원활동가 두 명은 전에 전혀 이런 기기들을 다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해주는 것이 사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더 좋았지만,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기란 힘들었다. 사실 딱히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마이크와 케이블, 케이블과 믹서와의 결선, 라인아웃, 기타앰프들의 사용, 드럼셋의 관리 등 그날 그날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는 정도로서의 인수인계였다. 그런 기술적인 것들 외에 뒷풀이 자리에서 만나 바다비에서,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회포를 풀어놓지 못했던 건 참 아쉽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마지막 주간에 또 은근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인수인계작업을 비롯해서 9월 초에 바다비에서 44개의밴드가 모여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취지의 대규모 공연의 기획이 시작되기도 했고, 꽤 오랜 시간 잠잠했던 바다비 식구 소연누나의 벼룩시장이 바다비 입구에서 다시 열리기도 했다. 8월 15일 일요일에는 바다비 일요시극장의 2010프린지 페스티벌 참여 공연이 있기도 했고, 나는 그 많은 일이 있었던 마지막 주간 동안 떠날 준비를 해야 했다.

8월 6일 금요일은 인수인계 주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 날로 내 바다비에서의 인턴십 활동도 모두 마무리 되었다.

V 끝내고 나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인턴십을 시작하기 까지의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지만, 약 4개월 동안의 인턴십 기간동안 바다비에서 지내면서 나는 초반의 내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활동을 ‘잘’ 마쳤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계획이란 건 늘 수정되고, 빗나가고, 다른 길로 새기 마련인데, 어떻게 거의 모든 게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 질 수 있었을까? 내 활동을 계획한 대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는 건 뿌듯하고 만족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활동 중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뻘하고 패턴화 되어 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4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바다비라는 공간 안에서만 활동이 이루어졌던 건, 처음부터 주어진 시간동안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의 삶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내가 원하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건 맞지만, 다양성의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협소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말 앞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배움을 쌓을 수 있었는지는 다시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다.

활동 중간중간에 병결이나 다른 중요한 일정 때문에 출근하지 못했던 날들도 있었다. 그럴 때는 미리 바다비 식구들에게 알려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종종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나 실수로 생긴 사건 사고들은 다들 각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인턴십 기간동안은 바다비 활동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바다비에서의 공연 기획건에 집중하느라 신경 쓰지 못했던 일들도 분명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의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관계했다. 일이 쉽게 잘 풀릴 때도 있었지만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구상하고, 실현해보았다.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이 만남이 계속해서 관계성을 띄고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전적으로 나한테 달린 문제일 것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음악공연은 사람들과 관계하기위해 찾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지 절대 나의 유일한 하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문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에는 음악공연외에도 수많은 종류와 길이 있고 그 길에서 끊임없이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앞으로 나가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이 생겨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가지더, 얻게 된 생각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것 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있어서 이 뮤지션들 뿐 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에게서도 배우고 공부할 거리들은 끝이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바다비와 바다비식구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뿐만 아니라 진로프로젝트 때부터 함께 많은 고민을 나눴던 필쌤과 현숙쌤, 상현쌤께도. 외에도 인턴십 활동을 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 공연을 위해서 만났지만 자신들의 방법대로 성심성의껏 힘과 마음을 모아준 31일 지락기획공연의 공연자들에게도 소중한 인연이 닿았던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사회생활 백서

6학년 배아현

기간

2010년 3월~6월

단체

경기고 고양시 Free zoom

마주보기 공동체

나의 인턴십

배우고 나눠보자

[순서]

I 인턴십

1. “나누고 배워보자” 동기 그리고 다짐
2. 단체 소개

II 활동

1. 공공미술 Free zoom
 - 1). 오픈스튜디오
 - 2). Bus프로젝트
 - 3). 이천 하이닉스 <좋은기억 도자거리>
 - 4). 노원 문화재단 (어린이날)
 - 5). 기타
2. 공공예술 공동체 마주보기
 - 1). 강원도 인제군 신월리 달뜨는 마을 두 번째 공공예술 프로젝트
 - 2). 기타

III 느낌

1. 인턴십을 마치면서
2. 아쉬운 점 & 어려웠던 점
3. 제안 합니다
4. 단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IV 혼자살기

V 개인 활동

1. 만다라
2. 그림

VI 인턴십 평가 및 의미 찾기

I 인턴십

1. 인턴십을 결정하게 된 동기 그리고 다짐

1). “나누고 배워보자” 동기

나는 왜 나누고자 했는가?

5년 동안 내가 가장 많이 소통한 사람은 간디인 이였다. 사회에 나가기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나는 간디인이 아닌 사회인과 소통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기회를 통해 간디인이 아닌 사회인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알고 그 틀을 깨어 주고 싶었다. 예를 들어서 꿈보다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돈보다는 꿈을 향할 수 있도록 꿈을 향해 가는 계획 얘기들을 나누고 싶다.

2). 다짐

무슨 일이든 내가 한다고 마음다짐 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2. 사회인, 간디인 이 아닌 사회 사람들과 소통하며 배워본다.
3. 남을 위해 나에게 재능이나 나에게 있는 무언가를 나눌 줄 아는 법을 배우자.
4. 싫은 것도 끝까지 참고 해야 하는 참을성, 긍정마인드를 키워본다.
5. 그동안 학교에서 잃어버렸던 누구든지 먼저 웃으며 다가가는 법을 되찾아 온다.
6. 사회생활 요령이나 tip을 배우며 현실에 대해 좀 더 다가가보기.

2. 단체소개

1). 공공미술 Free zoom?

공공미술 프리즘이란 단체는 창조적인 문화예술작업을 통해, 지역과 공간, 환경, 사람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기획, 실행하며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공공미술 프리즘이 하는 일

문화예술 공간 디자인_커뮤니티 디자인 (시민참여 공공미술)

지역문화 기획

ART&놀이+터_어린이 놀이터

문화예술 콘텐츠 (하루놀이터/뚝뚝뚝뚝 공방놀이터/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가치 사업

얼토당토워크샵 (연구, 실험, 상상, 탐구작업)

2). 공공예술 공동체 마주보기?

지역과 자연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는 공공예술 공동체 <마주보기>는 2008년 서울예술대학, 상명대, 경기대, 동덕여대, 한양대, 남서울대, 삼육대, 강원대 재학중인 24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공공예술 공동체로 현재는 대학생, 사회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위치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까지 총 4개의 지역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마주보기>는 공공의 예술문화 활동을 지향하며 나누고 소통하는 관심의 방법으로 나아가며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문화영역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자연과 마을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일상적 소재에 접근하고 있는 중이다.

문화 예술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찾아, 그곳의 지역 정체성을 공공예술의 한 부분으로 표현하며, 지역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같은 눈높이와 같은 마음으로 즐거움을 나누고 마주보며 때로는 문화-예술-교육을 가로지르는 활동을 통해, 때론 창작자들의 작업을 통해 부드러운 소통과 활력을 만들어 내며, 이 경험을 공유하고 마을과 디자인, 그리고 그 과정을 즐거움을 나누려고 하는 공동체이다.

II 활동

1. 공공미술 프리즘

1). 오픈스튜디오

사회적 기업 공공미술 프리즘 활동 소개 및 살롱드 프리즘소개 행사

처음으로 내가 맡은 기획이었다. 초대장도 직접 내가 디자인하고 홍보 섭외 모든 준비과정 일을 할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다. 이 계기로 혼자서 기획 하는 것에 조금 자신이 생긴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오픈스튜디오홍보 현수막 디자인그림을 내가 했다는 것이 뿌듯했다.

2). Bus프로젝트



‘부르릉 작가와 함께 출-퇴근 버스를’이라는 공공미술프로젝트는 버스라는 일상 공간에 미술이라는 매개체 결합되어 버스를 타는 승객들로 하여금 그 시간동안 미술작품을 갤러리를 찾아가지 않아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프로젝트 .

버스 프로젝트덕분에 신인작가 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엔 버스프로젝트 신인 작가로 참가해서 함께 하고싶다.

3). 이천 하이닉스 <좋은 기억 도자거리>

이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낡은 지하도를 반도체 기업인 하이닉스와 예술단체인 공공미술 프리즘이 이천 시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도자 타일로 타인의 기억들을 모아 공유하는 새로운 지하도 프로젝트.

시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도자타일을 모으기 위해 처음으로 이천도자기 축제 행사장에 갔다. 우리 부스에서 내가 맡은 일은 사람들에게 도자타일에 그림주제와 그리는 법을 설명 하는 일이었다. 이천 도자기 축제가 끝나기 전까지 거의 주말마다 행사장에서 설명했었다. 그 덕분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며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점점 날씨가 더워져 고생했지만 마지막 까지 웃으면서 하니 기분 좋게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3). 노원 문화재단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놀이공간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종합적 감각을 습득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행사.

처음에 프리즘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린이날과 프리즘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어린이날 물건 셋팅 작업을 하면서 깜짝 놀랐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고기집 에서 쓰는 환풍기를 아이들이 입고 놓고 파이프를 연결해 동물을 만드는 것이 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상력 이였다. 이런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더 많은 상상을 키워나갈 것 같았다. 나도 만약 어렸을 적 이런 어린이날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좀 더 특별한 상상력이 생겨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 지역아이들에게 찾아가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일상에 쓰던 물건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재미있는 상상력이었다.

4). 기타

사무적인 우편 심부름, 워드작업, 카페분석표 정리, 살롱드 프리즘 카페일 그리고 선배님들 보조 역할을 하였다.

인턴하면서 우체국심부름,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던 심부름들을 하면서 인턴이 원래 이런 일들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심 마음이 안 좋았다. 한편으로는 이런 심부름 말고 선배님들 밑에 보조일 하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작은일 부터 큰 일까지 이것저것 해보았던 것이 인턴인 나에게는 더 도움이 된 것 같다.



프리즘에 있으면서 내 그림을 그곳에 나누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대표님께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부탁 하셨는데, 일반적인 주차금지가 아니라 주차금지 표지판이지만 꽃을 특이하게 그려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셔서 그리게 된 주차금지 그림이다. 대표님이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음에는 카페 유리에도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내 그림을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나누며 그 그림을 보며 사람들이 더 큰 상상을 했으면 한다.

2. 공공예술 공동체 마주보기

1). 강원도 인제군 신월리 달뜨는 마을 두 번째 공공예술 프로젝트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처럼 문화적, 예술적인 면들을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행 된 프로젝트.



평소 내가 한번쯤 해보고 싶었던 일을 인턴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벽화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서 여행 같은 시간이었다. 서울에 있는 동안 지치고 우울했던 마음을 다시 즐겁게 만들어줬던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교아이들과 내년에 다시 또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는 약속을 했다.

2). 기타

강원도 동해시 묵호 등대마을프로젝트 보조 및 주소록정리 자료조사.

마주보기 인턴은 집에서 하게 되었다. 집에서 인턴 하는 동안 등대마을 프로젝트 보조 일을 하면서 인턴이 끝나기 전 함께 작업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사정이 생겨 프로젝트 진행이 늦어져 결국 함께 작업은 못하게 되어 매우 아쉬웠다.

III 느낌

1. 인턴ships을 마치면서

처음 내가 생각했던 프리즘활동은 시골거리 벽화를 그리러 다니는 단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프리즘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크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

첫 출근 날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우연한 타이밍으로 첫날부터 온양온천역다리 벽화작업을 3박4일하게 되었다. 처음 작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짐을 챙길 때 내가 생각했던 시골쪽에 벽화라고만 생각하고 얇게 옷을 챙겨갔는데 알고 보니 시골이 아닌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지하철아래 다리였다.

작업을 시작 할 때도 내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스케치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길이를 재서 스케치 하고 바닥에는 물감이 묻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라는 것도 붙여 작업을 시작했다. 나에게 첫 작업이라는 긴장감과 내 또래가 아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님들을 처음만난 함께 지내며 작업한다는 긴장과 얇게 입은 옷 덕에 그날 저녁 그만 몸살이 걸려버려 다음날 집에 혼자 돌아왔다.

프리즘에 다니면서 내가 과연 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많이 걱정했다. 하지만 선배님들과 답사 다녔던 덕에 선배님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프리즘에 3개월 동안 지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기획 홍보 섭외 등 여러 과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뜻 깊었던 것은 특히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문화 예술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하고 소통하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조언 받으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시각을 좀 더 넓혀가는 것이 좋았다. 또 프리즘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중 하나인 신인

작가들과 함께하는 버스 프로젝트를 했을 때 신인 작가 분들의 작품들을 보고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 잊지 못할 만남 이었던 것 같다. 나도 기회가 된다면 프리즘에서 신인작가로 활동 하고 싶다. 프리즘에 활동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는 큰 배움인 것 같다. 프리즘에서의 3개월이란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딱 맞는 시간 이었던 것 같다.

마주보기란 곳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프리즘에서 일하셨던 선배님이 활동하는 모임을 너도 같이 해보지 않겠냐며 권유해주셔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

마주보기얘기를 처음 듣고 이 단체에서도 일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아직 틀이 잡힌 상태가 아닌 준비상태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였다. 그러다 우연히 타이밍이 맞아 이번 신월리마을 프로젝트에 함께 하게 되었다. 신월리마을 프로젝트를 가기 전 마주보기대표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교통비 식비 숙박비 모두 내가 부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많이 고민했다. 내 돈을 내고 내가 봉사 하는 것과 처음 보는 마주보기 분들과 함께 생활해야하는 것... 그렇지만 이런 기회가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를 것 같아서 일단은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마주보기 모이는 날 걱정 반 설렘 반으로 모이는 장소에 갔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마주보기회원 중에 버스프로젝트 작가 분들이 계셨다. 별로 친하지도 않지만 왠지 모르게 많이 반가웠다. 마을로 가는 길 같이 차타고 가는 언니와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언니도 오늘 처음 오는 거였다. 왠지 모르게 마주보기에 아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처음 온 사람들도 있어서 걱정이 없어진 것 같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던 건 내가 꼭 그려보고 싶던 벽화느낌 이어서 좋았고 마주보기 언니오빠들이 다들 미술 쪽 대학에 있는 분들이라 대학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추천도 해주시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얘기들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월리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티셔츠 만들고 놀았던 기억이 좋은 것 같다.

2. 아쉬운 점 & 어려웠던 점

1). 식사

프리즘이 아무래도 회사이다 보니 밥값이 제한되어 있었다.

2). 서울 MT계획

나에게 처음 맡겨진 프로젝트였다. 사실 처음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한숨이 제일 먼저 나왔었다. 서울지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주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았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도 일단 무작정 짜보기로 하였다. 평소 내가 가고 싶었던 곳들로 계획한 후 대표님께 제출 했다. 역시나 말도 안 되게 계획했다고 다시 계획해 오라는 말 이외에는 어떠한 조언도 해주시지 않으셨다. 마음이 울컥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프리즘 사람들이 서울 가보고 싶은 곳을 알기위해 설문지를 만들었다. 각자 써준 설문지를 통해 두 번째 계획서를 대표님께 다시 제출했다. 대표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다. 일단 한고비는 넘겼다. 이제 갈 곳을 정했으니 숙박과 예산, 주변 맛집, 상세일정을 짜보기로 했다. 숙박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가는 곳 주변 숙박 집 을 인터넷으로 찾아본 후

3). 여가 생활

가끔씩 예상치 못하게 주말에도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주말에는 전시와 공연을 보러

다니고 싶었지만 틈틈이 주말마다 일이 생겨서 공연과 전시를 많이 보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3. 제안 합니다

1). 프리즘

프리즘 직원 분들과 대화를 많이 해보았는데 다들 소통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래서 프리즘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다함께 모여서 서로에 대해 좀 더 얘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면 대표님이 조금 더 직원들과 얘기하는 시간을 조금씩 내어서 직원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2). 마주보기

마주보기는 아무래도 아직 틀이 잡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틀을 잡고 앞으로 일정이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주보기를 함께 만들어갈 직원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마주보기와 프리즘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날 하였던 자바라놀이를 문화 예술을 접하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 전국 투어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2. 단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문화예술교육

2). 젊은 예술가 발돋움

3). 문화예술 연구

4). 문화예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며 사람들이 문화 예술에 대한 간혀 있는 틀 깨기

IV 혼자살기

프리즘 인턴십을 하면서 4개월 동안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다. 사실 혼자 산다는 것에 큰 로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기로 혼자살기란 내공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자취를 시작했을 때 너무 좋다고 생각했다. 잔소리 하는 부모님도 안계시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들 그리고 집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러 다니는 그 설렘.

첫 생활비를 받았을 때 내 생활비 정도면 한 달은 넉넉히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막상 한 달을 살아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생각보다 교통비도 많이 들었고 사람들을 만나서 노는 비용과 반찬거리를 사면 아슬아슬했다. 그때부터 나가면 돈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게 된 것 같다.

그리고 회사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혼자 밥해서 밥 먹는 건 너무 외롭고 슬펐다. 엄마아빠가 잔소리 많이 해서 귀찮다고 생각 했었는데 막상 이순간이 되니 엄마 아빠랑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느끼게 된 것 같다. 엄마에 밥이 얼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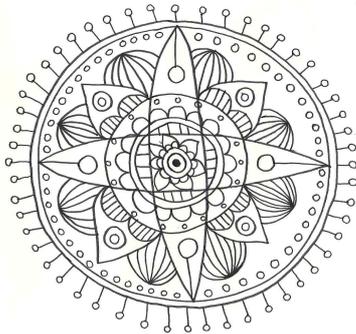
맛있고 고마운 건지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자취를 끝내고나서 돌이켜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취를 안 하는 것 보단 한번쯤은 생활해보고 느끼는 게 좋은 것 같다.

V 개인 활동

1. 만다라

꾸블라이씨에게 그림을 배우려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꾸블라이씨에게 그림을 배운 양다운 언니에게 그림을 배웠다.



..... 다운언니의 만다라는 매우 섬세하며 파스텔적인 느낌 이었고 내가 그리는 만다라는 큰 느낌에 강렬한 색상을 썼다. 만다라 수업은 각자 그려온 만다라를 보며 느낌을 얘기하는 것 이었다. 인턴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해서 내 욕심만큼 만다라를 많이 그리지 못한 것과 주말에 일이 생겨 수업을 많이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 이번 만다라 수업을 통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림이 생겨 좋았다.

2. 그림

인턴을 하면서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시간일 날 때마다 틈틈이 선배님들에게 일러스트와 포토샵 하는 법을 배웠다. 일러스트로 그림을 그리는 건 아직 어려워서 일단 스케치 그림으로 색을 입히는 작업을 했다. 처음 하는 작업이라 시간이 꽤 걸렸지만 그만큼 마음에 들었다. 일러스트는 손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색을 표현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다. 앞으로 일러스트와 포토샵은 기본으로 배워야할 것 같다.



VI 인턴십 평가 및 의미 찾기

이번 인턴십을 돌이켜 보며 나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 인턴십을 하는 동안 배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나누었던 것 같다. 인턴십 단체에서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었고, 일반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간디인들만의 생각을 심어주며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회의시간에 적극 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틀에 잡힌 그림이 아닌 좀 더 여유로운 나의 그림을 통해 빡빡한 회사 일정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직선이 아닌 곡선을 선물해 준 것 같다. 4개월 동안의 인턴은 나에게 사회에 좀 더 다가가며 소통의 첫 발 뚫음이 되었다. 사회인들과 소통하면서 내 또래에 간디인들과 좀 더 많은 것들을 소통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이제 나에게는 내가 보고 느낀 사회를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 더 많이 나눠야 하는지 숙제가 생겼다. 우선 내가 보고 느낀 사회를 간디인에게 나누고 싶다. 내가 과연 어떻게 숙제를 풀게 될지는 모르지만 난 확신한다. 지금에 나라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친 내 자신에게 자랑스럽다! 수고 했어 아현아♥

여름만 8달

안예지

태국 치앙마이, 치앙라이 YMCA
2010년3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인턴십

[순서]

I 인턴십

1. 가기 전에
2. 내가 간 그곳
3. 뛰어보자 !
4. 일상
5. 묻고 답하기
6. 마무리

II 여행

1. 인도여행
2. 태국여행

I 인턴십

1. 가기 전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이렇게 계속 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같은 장소, 같은 건물,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들과 지내다보니 너무 익숙해져버렸다. 초등학교에서의 6년은 내가 어릴 때라서 간디학교로 올 때의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몇 살 조금 더 나이를 먹은 뒤 6년 내내 같은 곳에서 지내보니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조금씩 두려워졌다. 어릴 때는 보이지 않던 무섭고 겁나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 둘 나의 눈에도 어렵듯이 보이기 시작하나보다. 그래서 6년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금,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겁이 난다.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배운 방식과 배운 것들과 살아온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서 어렵게 다가온다. 하지만 졸업은 다가오고 나도 그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살아가야 하니 올해 나는 내가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라는 벽을 깨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사람 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고, 대한민국의 19살 청소년 즉, 고3이라는 수식어로 불리지 않아도 되는 외국으로 나가고 싶었다. 그리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장소로 혼자서 떠나보고 싶었다. 그동안 학교에서 함께 여행을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체험학습을 많이 다녀왔지만 혼자서 가본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다. 언제나 늘 옆에는 든든한 친구 혹은 선생님이 있었고, 내가 걱정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내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기에 나는 늘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기대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태국이라는 타국으로 4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다녀오려고 한다. 갑자기 혼자서 떠나기에는 아직 두려운 것이 많아서 선재학교라는 단체를 통해 한 달 동안의 인도여행을 다녀왔다. 새로운 사람들과 한 달 동안 함께 했던 이 여행은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의 나에게 큰 도움이 된 여행이었다.

태국에서 내가 하게 될 일은 아직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았다.

나는 그동안 나의 시간을 남에게 쓰는 것에 예민해져있었다. 누군가가 나의 시간 속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참지 못했고, 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들의 부탁도 잘 거절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거절을 할 수 있는 성격인 줄 알았는데 거절이 잦아지니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이번 활동을 통해 나의 시간을 나에게만 투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투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

사실 내가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 보다는 활동을 하면서 갖는 마음가짐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되도록 몸을 많이 쓰는 활동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가만히 앉아서 워드로 작업을 한다거나, 뭔가 사무적인 일을 보는 것 보다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거나 뭔가 직접 부딪혀서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일을 하게 되더라도 긍정적으로 늘 밝은 마음으로 조금은 어렵겠지만 내가 늘 먼저 시도해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해보려고 한다. 지금은 단체에 나의 의사를 전달해 놓은 상황이고, 며칠 뒤 태국에 도착해서 함께 의논해볼 예정이다.

2. 내가 간 그곳

태국 YMCA

태국에는 총 6개 지역에 YMCA가 자리하고 있다. 치앙마이, 사오힌, 치앙라이, 람퐁, 삼캄 팡, 산파통 지역 순으로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생겨났다. 그중 내가 일했던 YMCA는 삼캄 팡과 치앙라이 YMCA였다.

치앙마이 YMCA는 1970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후 1984년 1985년에 거리가 얼마 멀지 않은 두 지역, 사오힌과 삼캄팡에 YMCA가 생겨났다. 이 세지역의 거리는 차타고 30분 정도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다양한 일들을 함께하고 있다. 주로 아이들 교육과 환경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방학기간에는 데이캠프라는 캠프를 진행한다. 15일 정도의 기간 동안 모자라는 수학, 영어, 한국어, 체험활동 등을 진행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주말에 찾아온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업을 진행하고 특이사항으로는 태권도 수업이 있다. 사오힌 YMCA 2층에는 환경과 관련한 사무실이 따로 마련 되어있다. 그 곳에는 아이들에게 지구온난화에 대한 수업을 하기 위한 공간과 재활용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바이오 가스나 대체 에너지 등에 대해 설명 되어있는 공간들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지구의 날이나 행사 때 대학생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다. 자원봉사를 하는 대학생들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수업을 도와주는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사무를 돕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치앙마이 YMCA에는 호텔이 함께 있어 여행객들의 숙소가 되기도 하고 태국어 수업을 진행하여 여러 여행객들이 태국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국제적인 교류 행사로 열리는 워크캠프는 일본 고베와 미국 시애틀 사람들과 함께 태국 치앙마이 친구들과 진행한다. 이 캠프는 올해로 27회를 맞이했다. 그리고 매년 '라운아띠' 라는 그룹의 이름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이 YMCA로 국민은행에서 지원을 받아 다섯 달 동안 봉사활동을 하러 온다. 그리고 치앙라이라는 국경지역의 특성을 살려 미얀마와 라오스의 단체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치앙라이 YMCA와의 교류로 이웃 나라와의 국제적인 교류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치앙라이 YMCA는 1984년에 시작되어 시내와 조금 떨어진 곳에 호텔과 사무실, 센터가 함께 위치해 있고 시내에 YMCA 유치원이 있다. YMCA 유치원은 8시부터 5시까지 2~5세의 아이들을 돌봐준다. 영어와 태국어를 가르치며 일주일에 한번 씩 수영과 컴퓨터 수업을 한다. 그리고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YMCA에서는 위에 설명했던 데이캠프, 영어캠프, 가족캠프, 워크캠프와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그리고 언청이 입술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언청이 입술을 발견하였을 때 치료를 도와주기도 하고 수술을 받은 이후에 교정되지 않는 발음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토요일마다 아이들의 집을 언어치료사와 함께 직접 방문해 발음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세미나가 자주 열리며 고산족 분들이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직접 위탁 판매하기도 한다.

3. 뛰어보자!

1월	2월	3월	4월
인도 여행 (선재마을)	인도 정리 + 태국 준비	태국 적응기간 + 데이 캠프 (한글 수업 보조교사) + 태국어 배우기	인타논 산에서 캠프 (로알 프로젝트 체험 + 고산족 청소년들과 환경캠프) + 유치원 (한글 수업 교사) + 지구의 날 행사
5월	6월	7월	8월
YMCA 유치원 (아이들 돌보기+방청소 + 점심 설거지) + 비자 연장과 관광	YMCA 유치원 + 그림전시 수익금 기부 (에이즈 청소년+ 언청이입술을 가진 아이들)	혼자여행 + 귀국	음악관련 활동 + 만다라 그리기 + 전화영어 시작하기

<데이캠프>

*20100315 한국에 대해 알리고 이름 지어주기

3가지 영상 : 슈퍼주니어, 소녀시대가 나온 'Seoul Song' + 다이나믹 코리아 + 전통모습과 요즘 모습을 보여주는 네이버에 있는 영상 보여주기.

한국 이름이 적힌 종이를 뽑고 갖고 있던 이름표에 붙여 자기 이름 갖기.

각자 뽑은 이름을 어떻게 발음 하는지 어떻게 쓰는 건지 배우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_____입니다. 다시 만나요.' 가르치기.

* 수업준비 : 명함 종이 자르기 + 이름 종이 만들기

*20100316 명함 만들기

'나의 이름은 _____입니다. 나는 _____살 입니다. 나의 꿈은_____입니다.' 가르치기.

각자의 이름 어떻게 발음하는지 다시 알려주기.

나이를 어떻게 세는지 알려주기.

기본적인 직업들을 나열해 보여주고 나중에 자라서 하고 싶은 직업 선택해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기.

앞에서 배운 것들로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 하기.

* 수업 준비 : 숫자판 만들기 + 직업 나열한 프리젠테이션 만들기

*20100317 한복입기

프리젠테이션 하기. : 한복의 다양한 사진들과 명칭 설명.

한명씩 한복 입어보고 담당 선생님과 사진 찍기.

한복 저고리와 바지를 색종이로 접고 색칠하기.

모든 활동을 마치게 되면 여자한복과 부채 만들기 추가.

* 수업 준비 : 수업 당일 조별로 맡아 애들 종이접기 가르치기.

*20100318 음악놀이 : 마라카스 만들고 노래 배우기

한국어 복습 + 인사 송 + 노래 시범 보여주기

동요 인디언 보이와 비행기 가르치기.

마라카스 만들기. 종이컵 안에 곡식을 넣고 테이프로 붙이는 작업 도와주기.

마라카스 + 노래 +기타반주와 함께 합창하며 노래 익히기.

* 수업 준비 : 마라카스 재료 준비하기.

*20100319 한국 놀이하기.

3조로 나누어서 게임을 진행한다.

-실뜨기, 고무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눈 가리고 박수치기

한 조에 선생님 두 명이 아이들을 인솔하며 각 교실을 돌아가며 준비되어있는 놀이를 가르쳐 주고 진행한다.

* 수업 준비 : 각 놀이에 필요한 재료 구입.

*20100323 한지로 액자 꾸미기.

다섯 조로 나누어 지도 한다.

하드보드지 액자 판에 한지를 손으로 찢어 물풀로 붙여 꾸민다.

이후에 작업이 다 끝나면 액자 끈을 걸어주고, 수업 마지막 날에 한복입고 찍은 사진을 넣어 준다.

* 수업 준비 : 하드보드지로 만들어 놓은 액자 판을 준비하고, 한지로 전통문양을 만들어 놓는다.

*20100324 노래 배우기.

우리들의 수업내용에 맞게 노래 개사하기.

- 우리 모두 다 같이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컵쿤카,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깽막, 잘했어요.

* 수업 준비 : 개사하기, 가사 판 만들기.

*20100326 한국음식 만나보기.

매작과 만들고 시식하기. + 라면 시식하기.

반죽이 다 되어있는 매작과로 파배기 모양 만들어보고 미리 만들어진 매작과 시식하기.

라면 끓여서 한입씩 맛보게 하기.

* 수업 준비 : 시식할 매작과 만들어 두기, 라면 먹을 때 필요한 식기 준비.

‘데이캠프’는 '라온아띠' 라는 그룹의 이름으로 치앙마이 YMCA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대학생 다섯 명의 주 된 일 중 하나였다. 지역에 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방학 기간동안 약 2주 동안 진행되는 캠프이다. 이 캠프에서는 수학, 영어, 태권도 등 다양한 수

업들을 진행하며 그 중 한 수업으로 한국어 수업을 대학생들과 내가 함께 진행해 나갔다. 이 기간 동안은 매일 저녁 다음 날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 놀며 얘기하며 수업준비를 했다. 태국에 와서 혼자 활동을 시작했더라면 걱정도 더 많았을 테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혼자 어려워했을 텐데 비록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함께 활동을 시작 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컸다. 프로젝트처럼 매일 다음 날의 수업을 준비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우리 학년과 함께 지낸 학교생활을 떠올리게 했다. 매일 일상을 나누는 것도 그랬고 다음날 수업에 어떤 노래를 가르쳐 줄지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업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했다. 이러한 고민들을 늘 같이 해오던 학교 친구들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대안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나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다. 데이캠 프를 하는 동안은 태국에서의 생활과 활동에 적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학생들과 함께 했던 이 기간이 빠르게 흘러가 버려 별 다른 생각 없이 지나갔을 지도 몰랐지만 다시 돌이켜보니 덕분에 태국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일까? 내가 왜 우리나라말을 이 어린 태국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 이게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하는 고민이 자꾸만 들었다. 하지만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새로운 언어에 관심을 가지며 한국 문화를 접하고 신기해하는 아이들을 보니 굳이 저런 고민을 하며 걱정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접하고 다른 나라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어린나이에 때부터 조금씩 접하는 일은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 와서 다시 되새겨보니 한국 사람인 내가 그곳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만나 가르치면서 단 기간 동안 많은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매일 생각을 나누다보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도 더 깊게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고산족 마을에서의 생활>

치앙마이에서 지냈을 때 인타논 산에 살고 있는 카렌족의 마을에 가서 대학생들과 함께 일주일동안 지냈다. 우리는 그 곳에 가서 왕궁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현장을 지켜보고 참여해 보는 것과 카렌족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환경 캠프에 함께하며 홈스테이를 했다. 고산족이라고 하면 전부 독특한 자수 옷을 걸치고 특히나 카렌족 이라하면 목에 링을 가득 걸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고산족의 수도 너무 많고 같은 카렌족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냈던 카렌족 사람들 중 우리 나이또래 친구들은 우리처럼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귀를 뚫는 등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꾸미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다. 집은 나무로 지어진 전통가옥이었고 일층이 없이 높게 지어진 집 아래에는 창고로 사용하거나 돼지우리로 사용되어 모두의 집 아래에는 돼지들이 널부러져 생활하고 있는 것도 인상 깊었다.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는 못했지만 함께 캠프 활동 중 조별로 같이 들판을 뛰어다니고 춤추고 놀며 친해질 수 있었다. 나무를 심으러 간다고 숲속에 들어갔는데 길도 없는 곳으로 모두가 다니다가 결국 한국 대학생 언니가 미끄러져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지만 정말 야생에서 생활하는 카렌족 청소년들은 너무 나도 잘 다녀서 많은 도움을 받아 그나마 잘 돌아올 수 있었다. 말이 통했더라면 좀 더 깊이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

지 못했던 게 아쉬웠다. 이 캠프가 가장 좋았던 이유는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과 태국 사람으로서 고산족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여행자들이 고산족 사람들을 보기위해 가는 그 고산족 마을은 이미 관광객들에 의해 관광지화 되었다. 여행자들이 인 해 일부 고산족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경로가 아닌 돈과 상관 이 없이 사람으로서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

<혼자 진행하는 유치원 한국어 수업>

데이캠프가 끝이 날 즈음부터 일주일동안 YMCA근처에 있는 유치원에서 혼자 한국어 수업을 했다. 삼십분씩 두 번의 수업을 진행했고 데이캠프 때 불렀던 동요들을 가르쳐주는 일을 했다. 아침시간에 노래를 크게 부르는 일이 나의 목에는 무리가 가는지 목이 쉽게 쉬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목이 힘들어 하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삼십분씩 세 번의 수업을 진행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두 번의 수업으로 줄였다. 혼자서 수업을 진행하는 일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다. 빠르게 습득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야하는데 혼자서 수업을 진행하니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게 하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았고, 수업의 내용도 다양하지 못해서 매일 가르치며 새로운 수업 준비를 혼자서 하는 일이 버겁게 느껴졌다. 그래도 가르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수업을 하고난 뒤에 남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머리를 묶어주고 낮잠을 재우는 일을 도와드렸다. 아이들을 관찰하는 일이 재미있었는데 여자애들끼리 노는 모습이나 그림을 그리는 모습 또는 친구 간의 관계를 지켜보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 줄 때 나에게 와서 안기는 아이들도 있고 이쁜 짓을 하는 아이들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다. 또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셔서 혼자서 처음 진행하던 수업이었고 활동이었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

<치앙라이 유치원>

8시 까지	유치원 출근
9시30분 까지	아이들 등교 도와주기
10시부터	운동하고 노래하기
11시	아이들 점심시간 + 설거지하기
11시30분부터	낮잠시간
12시30분	선생님들 점심시간 + 설거지하기
3시	간식 시간
3시30분	하교시간 + 청소하기
5시	퇴근

* 화요일과 수요일은 YMCA에 아이들과 차를 타고 이동해 컴퓨터수업과 수영수업을 한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적응기간으로서 유치원이 어떻게 운영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지냈다. 하지만 내가 부담스러웠던 것 도 있고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 어영부영 사라지게 되어 한 달 반 동안 그저 청소하고 아이들을 재우는 일을 도왔다. 가장 꾸준히 일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애정이 없고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이 없었더라면 나의 인턴쉽이 의미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 혼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며 시장에서 밥과 반찬을 사다먹고 또래친구나 친구처럼 얘기

하며 지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지내는 일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유치원 생활도 즐겁지 못했고 생활이 힘겨우니 즐겁게 일을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심지어 부정적이지 않게 바꾸는 것 까지도 너무 어려웠다. 이 곳 유치원에는 총 두 반으로 2-3살 어린이 반과 4-5살 어린이 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지내는 기간 동안 3일 빼고는 전부 4-5살 어린이 반에서 일을 도왔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마냥 즐겁게 지낼 수만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작년 마지막 학기 학교에서 카페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내가 애들에게 나의 기준대로 맞춰 일을 시키고 지시하는 나의 가면서 보게 되면서 어렸을 때 했던 나의 생각이 떠올라 나 자신에게 충격 적이었다. 언제였는지는 기억 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른들처럼 자신의 틀에 다른 사람까지 끼워 맞추려고 하는 나의 가면서 보고 그 수모를 당했던 학교 친구들에게 미안했고 나에게 화가 났순간부터런 나의 가면서 바꿔 보고 싶다는 생각서 했다 했던선생님으로써 아이들을 만나야 하니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 수모를제제 시켜야만 했고썩게 미말도 통하지 않는 내가 그 수모를 조용히 시키지 못 반 선생님들의 꾸밈서 듣기 일쑤였다. 이 반아침마다 한 시간씩 아이들에게 화막 표정서 내으며 조용히 시키고 나반 얼굴에 웃음을 짓기가 어색하기도 했고 표정서 밝게 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이 반하루를 시작하니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더 어려웠던 것 같다. 게다가 선생님들썩는 문제도 나의 부정적인 마음에 큰 영향서 끼쳤던 것 같다. 기본적인 영어조차 하지 못 에게 화가 세분과 함께 지내니 에게 걸기도 어려웠 했던선생님 생각이너무 친하싶다는내가 끼어 자리가 없는 가까져 나중에는 정말 에게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나중에는 내가 병어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선생님 도 나를 병어리로 알고 있는 건 그날까 에게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아이들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나고 아이들을 있는 일이방이나 자있는 일이것 진행조금 더 부 했더라면 나도 참여 에게방법진행더 많았을 것 같은했던다. 선생님 도은 다.마이에서 지낼 때 일주일 동안 갔던 님 도보다 교육과정이자선생님들의 마음가짐학교 지 않게 가까이 . 치앙라이 YMCA의 시설을 이용해 컴퓨터 교육 과 수영을 가르치는 것이 특별하기는 하지만 평소 수업은 태국어와 영어를 조금 알려주는 것과 동요를 부르는 것이 전부라 아쉬운 점이 많다. 다양한 만들기 수업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아이들끼리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도 거의 없는 편이다. 그리고 가장 내가 힘들었던 점은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는 것이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를 때리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웃으며 손찌검을 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이 건 아니라고 '저러면 안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얘기를 꺼내지는 못했다. 이러한 모습을 눈앞에 보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던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 뿐만 아니라 사무 일을 보시는 분들 중에라도 친한 분이 있거나 나와 잘 지내는 분이 계셨더라면 조금 더 힘이 되었을 것 같은데 한 달 반 동안 나와 편하게 소통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힘든 요인 중 하나였다.

내가 했던 일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 것과 낮잠 재우기 그리고 화장실 청소, 점심 설거지와 모든 일과가 끝난 뒤 교실을 청소하는 것 이었다. 두 다리와 두 팔만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인턴을 하는 기간 동안 '내가 왜 이 일을 하러 왔을까?' 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수십 번 나에게 질문했던 것 같다. 봉사활동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나에게 다시 '해야 하는 일인가.' 라고 물으면 '하면 좋겠지.' 라는 식의 대답이 나오게 된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나의 이미지 때문인 것 같다. 나에게 '해야 한다.' 의 이미지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정을

떠올리게 한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와 ‘인간은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할 때의 ‘해야 한다.’의 느낌이 다르게 다가온다. 사회에서는 봉사활동을 하는 대상을 규정지어 놓았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과 같은 약자들에게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진짜 봉사활동은 저런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미지로 생각되게 만드는 봉사활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존재인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을 규정지어 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져 내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그 때 내가 찾은 이유는 내가 다른 나라에 까지 와서 이렇게 서로 돕고 사려고 하는 에너지가 전해진다는 것. 19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일을 생각 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것. 이러한 나의 행동이 여행을 다니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4. 일상

1). 함께 즐거움

치앙마이에 온지 삼 일만에 ‘영어’라는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캐나다에서 유학생 생활 중학교 때 하고 온 봉사자 언니와 영어를 무척이나 잘하는 나의 담당자. 이들 사이에 있으니 이 둘이 영어로 이야기를 해도 나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인턴쉽 진행을 위해 나의 의견과 단체의 의견을 나눠야 했기 때문에 내가 온 이유나 목적 등에 대해서 영어로 이야기를 나눠야만 했다. 그나마 있는 나의 영어실력이 이제야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를 영어로 하려니 콧 막혀버렸다. 한번 막히니 머릿속이 온통 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답답하니 괜히 눈물이 나오려고 해 참느라 고생이었다. 적응하기도 전에 혼자라는 생각에, 한국말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밀려 왔다. 근데 때마침 운이 좋게도 한국 대학생 봉사단 다섯 명이 내가 지내는 곳으로 왔다. 그날 한국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어찌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그날부터 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지내며 노는 게 참 즐거웠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놀았던 것 같다.

평소에 모든 일과가 끝이 나고 나면 다 같이 혹은 몇몇이서 모여 카페의 시원한 음료와 시원한 에어컨바람을 쐬러 놀러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그리고 토요일이면 밤에 열리는 야시장 구경을 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치앙마이 생활 중 가장 큰 재미라고 할 수 있다. 태국에서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나에게서는 평화로움이었던 것 같다. 우리 학교에서 일요일에 덕산을 나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행복해하던 것과 비슷했던 것 같다.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고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풍경들을 둘러보며 태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더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었다. 다 같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 면사무소 앞 넓은 공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면서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탁 트인 기분이 들어 좋았다. 그리고 대학생들과 매일 저녁 일상나누기를 했던 것이 나에게서는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필리핀에 갔을 때 매일 저녁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과 비슷한 시간을 가졌는데 비슷한 상황을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그것도 대학생들과 함께 하니 신기했다. 밖에서 생활해온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한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첫 경험이었을 지도 모르겠다. 이 밖에도 함께 한국어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던 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 학교에서도 매번 해오던 것이기는 하지만

늘 함께 하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마음을 모으는 일은 더 보람차게 느껴졌던 것 같다. 대학생들과 함께 했던 시간 중 가장 신이 났던 때는 치앙라이에 놀러왔을 때였다. 내가 치앙라이로 옮기고 난 뒤에 다들 와서 함께 지내고 놀다가 돌아갔는데 그 때 정원이 예쁘게 가꿔진 곳에 가서 사진 찍고 뛰어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혼자서 지내다가 그동안 함께 지내던 언니오빠들을 만나니 신이 나서 정말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다. 치앙마이 YMCA에는 대학생 봉사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서 함께 밴드 생활을 한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태국 노래도 배우고 수다도 떨고 활동도 함께 하면서 친해졌는데 나중에 여행으로 치앙마이에 갔을 때에도 함께 놀아줘서 고맙았다. 이 친구들이 있어서 치앙마이에서의 함께 하는 생활이 더 즐거웠던 것 같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생활이 온전히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나의 생활도 유지해가며 사람들과 신나게 지냈기 때문에 잠도 얼마 자지 못하고 놀았더라도 눈곱만큼의 후회도 없다.

2). 혼자 힘듦

돈 때문도 있었지만, 외국으로 떠난 이유가 혼자 생활을 해보는 것이었기에 이에 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치앙라이로 이사를 했다. 치앙마이에서는 국민은행에서 후원을 받아 봉사 활동을 하러 오는 대학생 언니오빠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니 나도 덩달아 돈을 많이 내야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내야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생각이 들고 나서는 사실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현숙쌤께서 비용 문제에 대한 메일을 보내셔서 YMCA스텝들이 고민한 끝에 나에게 치앙라이에 있는 YMCA소속 유치원에서 일하게 되면 내가 식사를 해결해야 하지만 비용은 더 적게 든다며 나에게 제안을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하지만 짧은 시간을 고민했다. 후회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였다. 이미 한 달 반을 지내 온 치앙마이에는 스텝들과 태국 대학생 친구들과도 편해졌고 한 반을 온 대학생들과도 친해졌는데 치앙마일로 옮겨가면 아는 사람도 한명도 없고 한 사람도 없이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에 부모님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지만 태국은 워낙졌는데들 걱정을 많이 하는 나라라서 19살 여자애를 위험한 곳에 돌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난 안전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하지 않았다. 나는 결국 깊지만 짧은 고민 끝에 치앙라이로 이사를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에 나오면 나에게 기회가 찾아올 때 거부하지 않고 될 수 있다면 다 경험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찾아온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치앙라이로 이사를 했던 첫 날부터 나는 줄곧 견디기 어려운 힘듦을 맞이했다. 혼자. 방안에 혼자. 길 위에 혼자. 어느 곳에 가나 나는 혼자였다.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스텝이 한명도 없었고, 같이 일을 하는 유치원 선생님들은 영어를 할 줄 몰랐다. 부정적인 나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었다. 선생님들과 내가 먼저 소통하려 하는 것도 어려웠고 시간이 지나자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도 어렵게 되었다. 결국 나중에는 편지, 메일, 전화 등으로 학교 사람들과 소통하며 나의 외로움을 이겨냈다. 주말이면 하루가 너무 길었고,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심지어는 한국에 일찍 귀국할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어느 날 카페에 현숙쌤께서 서정운의 홀로서기 라는 글을 올려주셨다. 그 글을 읽으며 공감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해서 카페에서 컴퓨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첫 일주일엔 밤마다 우는 게 나의 하루 일과 중 하나가 되었다. 혼자 일기를 쓰다가 혹은 편지를 쓰다가도 눈물

이 나왔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나면 목소리는 바로 내 옆에서 들리는데 결국 나의 옆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기도 했다. 그래도 고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힘들고 외로웠지만 매일 눈물이 날 정도는 아니었다. 긍정적으로 마음을 바꿔보려고 애썼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두 달을 채우려고 했던 치앙라이 생활을 한 달 반으로 줄이고 여행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기간 동안의 힘듦은 말로 잘 표현을 못하겠다. 겪어 보지 않고는 이 느낌을 알 수 없으리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만큼 나에게에는 충격적이었고 강한 기억으로 남았다. 내가 만약 치앙마이에서만 계속 지냈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한다. 당시에는 힘들어서 이런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니 이런 경험을 겪지 않았으면 나의 인턴십을 알차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기간 덕분에 나는 평생 겪어보지 못할 수도 있는 '혼자' 라는 느낌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코 나는 나의 인턴 기간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홀로서는 것이야 말로 정말 필요한 자립이 아닐까.

5. 묻고 답하기

태국에서 지내는 동안에 인터뷰를 직접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해 메일을 통해 사오한 YMCA 스텝으로 많은 캠프 진행을 담당하고 국제적인 교류 사업 일하고 있는 쾌활한 성격의 P'Yo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다.

1. 언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이 일은 6년 전 대학 졸업 후 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2. 왜 시작하게 되었나요?

대학교 4학년 때 YMCA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는데 YMCA와 일을 하고 난 뒤에 이 쪽 일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 YMCA 스텝이 되었어요.

3. 무슨 일을 하시나요?

YMCA 스텝으로서 사회,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과 관련한 일을 해요.

4. 지금 하시는 일을 좋아하시나요? 어느 정도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많이 좋아요.

5. 일을 할 때 언제 보람차고 언제 가장 힘든가요?

YMCA스텝으로서 일하는 것 자체가 보람차기 때문에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거나 쉬운 일 모두 하는 것이 좋아요.

6. 이 직업을 갖기 위해 몇 년이나 공부하셨나요?

몇 년이나 이 일을 갖기 위해 공부했는지 얘기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 얼마동안 대학교에서 공부했냐 하는 질문이라면 저는 직업을 갖기 전에 4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8. 어떤 성격을 가져야 이 직업에 도움이 되나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류의 사회적인 일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

나라 가야하고 함께 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9. 내가 만약에 이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하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요?

우선 YMCA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하고, 함께 일하며 배울 준비를 해야 해요.

10. 누가 당신의 롤모델인가요?

저의 롤 모델은 저의 아버지예요. 일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저의 매니저와 디렉터가 일을 잘해요.

6. 봉사활동에 대한 생각

지금 내가 쓰는 생각들은 태국YMCA에서 봉사활동을 한 온전히 나만의 생각일 수 있고 해외에 봉사활동을 나가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러니 그저 가볍게 읽으면 좋을 것 같다.

1).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태국에 처음 도착하고 오랜 시간동안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YMCA 스텝 분들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감을 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한국대학생 봉사단들이 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 사실 내가 있지 않아도 잘 돌아가던 단체에 갑자기 들어가 일을 하려니 나의 자리는 보이지 않았다. 내가 할 일을 찾게 된다 해도 그건 내가 할 일을 스텝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 되어버렸다. 학교에 있는 동안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도 몰랐고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어떤 일을 하면 학교생활이 더 재밌어 질지 생각해 내지 못했다. 하지만 고등부가 되어서 부터는 학교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걸 몸이 느끼고 마음이 느껴서 이것저것 마음껏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처음에는 적응도 필요할뿐더러 돌아가는 구조도 파악해야 내가 있을 자리가 보이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나눔을 배우고 싶다는니 몸 쓰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 스텝들도 나도 뭘 하면 좋을지 전혀 알지 못했던 거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내린 결론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이걸 인정하고 나면 소소한 일거리들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말아서 하지 않더라도 늘 도울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잘 없으니 평소에는 못한다고 주저하게 될 일들도 서투르지만 한 번 해보겠다고 용기를 내게 될 수 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내가 비행기타고 날아와서 이걸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했었다. 물론 지금도 그 후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의 시간을 나누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가 생길 것이고, 내가 이 사소한 일을 하면서 이제는 한국에서도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나의 시간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이걸로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하는 동안 즐겁게 일을 하려고 해도 힘든 적도 많았다. 힘든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 참 어렵더라. 그래도 힘든 마음들을 이겨내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2). 봉사활동하면 밥이랑 잠자는 건 공짜 아닌가?

치앙마이에서 같이 지냈던 한국대학생 봉사단 언니오빠들은 후원을 받아서 오는 것이라 같

이 지내려니 돈이 많이 들었다. 태국의 싼 물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지내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누구는 돈 한 푼도 안들이고 봉사활동을 하고, 누구는 숙식비 다 지불하고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처음에는 내 돈도 아니고 엄마아빠가 힘들게 번 돈이라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더욱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로 옮기게 되었다. 그 곳에서는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돈을 내가 조절해서 쓰면 되는 거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돈만 생각하고 옮긴 것은 아니었다. 나는 사실 우리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면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나마 주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고 하는 것들을 옆에서 주워듣고 약간이나마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번 인턴을 결정할 때에도 현숙쌤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가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할 때 뭘 알아봐야 하고 뭐가 필요한지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른 단체를 알아보려는 생각도 별로 없었기에 난 돈이 얼마가 드는지, 어떤 경로로 가면 비용과 활동 모두 만족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내가 돈 내고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되지 않았지만 이렇게도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다른 방법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 경로로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알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 돈 뿐만 아니라 개인 봉사자들을 많이 받아 본 단체들을 찾아 가는 편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 나는 잘 몰랐었지만 이 세상에는 봉사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단체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6. 마무리

나는 사실 봉사활동에 큰 관심이 없다.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성심원과 소록도에 가게 되어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학교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단체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기에 주변에서 들리는 정보로 봉사활동 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크게 관심을 가졌던 적도 생각을 깊이 했던 적도 없었다. 그랬던 내가 그동안 생각조차 깊게 하지 않았던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자, 해서 가게 된 태국이었다. 내가 가장 노력했던 부분은 나에게 다가오는 해야 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서 해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결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사람들 앞에서 민요를 부르는 일도, 영어 문서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도 갑자기 닥쳐와도 최대한 침착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나와는 잘 맞지 않는 봉사활동을 직접 다시 몸으로 경험해보니 생각도 없이 그저 '싫다' 라고만 생각 해왔던 봉사활동이 그리 싫지만은 않아졌다. 내 시간을 누군가에게 뺏기는 일이 아니라 모두의 시간을 함께 하는 일이었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마음과 내가 몸으로 행동해보이겠다는 생각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자연스럽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워낙 다양한 단체와 다양한 형태의 봉사가 있으니 나에게 맞는 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기만 하면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단체나 활동, 그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맞는가 하는 정보를 미리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이런 활동들이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혹은 없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로 다가가면 좋겠다. 또한 나 스스로에게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사회적으로 박혀버린 이미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턴ships을 다녀오고 난 뒤에 고민하고 생각을 나눈 뒤에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봉사활동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규정지어놓은 봉사활동의 이미지가 싫었던 것이다. 아직은 생각이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그 생각이 나의 것으로 몸에 흡수될 것이다. 그 때는 머리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도 봉사활동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처음부터 배우길 원했던 ‘혼자 살기’를 느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치앙라이로 옮겨가는 선택으로 힘들기는 했지만 혼자서 지낸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치앙라이로 옮겨간 선택을 한 것에 있어서 잘 했다는 생각을 한다. 이 기간 동안의 힘듦으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혼자라는 힘듦이 걱정이 더 많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찾아온다면 조금 더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다면 좀 더 온전히 혼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된다. 막상 그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생각 따위는 못하고 탈출구를 찾아 해매게 될 테지만 그 힘듦을 다시 겪고 나면 나는 또 한 계단을 올라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II 여행

1. 인도여행

<맛이한 2010년, 그리고 인도여행>

내가 다녀왔던 인도는 좋거나, 싫거나. 극과 극의 감정들이 오갔다. 사람들이 나에게 여행이 어땠냐고 물어오면 필리핀을 다녀왔을 때처럼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여행이었다. 뭐라고 꼭 집어서 ‘어떠했다.’ 라고는 얘기 할 수가 없는 여행이었다. 한국에 돌아와 내 여행을 생각해보니 뭔가 무척 뒤죽박죽 엉켜있어 엉킨 실타래의 끝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여행의 마무리도 잘 되지 않았었고 여행을 정리하는 글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엉킨 실타래의 시작은 여행 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무척이나 바쁘고 빡빡한 일정에다가 소들이 무리지어 도로 위를 지나다니는 촌 동네를 가기도 하고 오토릭샤와 버스들이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대도시에 머무르기도 하는 일정에 나의 감정도 시골에서 도시로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하듯 빠르게 변화했다. 시골을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주제가 없는 여행 일정이었다. 뭐하나 주제를 갖고 다니기에는 장소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어쩌면 내가 준비되지 않은 여행에 몸보다는 나의 마음이 힘들었나보다. 사실 시작부터 그저 여행을 가고는 싶지만 혼자서 외국을 여행하기에는 겁이 많아 이 여행을 함께 하려고 마음먹었었다. 그러니 내 여행의 목적은 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중요 했지만 떠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했을지도 모르겠다. 처음 내 여행의 목적은 즐겁게 탄따라쟁이와 그림쟁이가 되어 여행을 다녀오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행을 다니다보니 일정도 일정이었고,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기에는 복잡한 인도 여행이 되어버렸다. 이 풀기 힘든 실타래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고민하다 좋았던 기억과 싫었던 기억들로 풀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인도여행의 엉킨 실타래를 ‘좋고’, ‘싫고’로 나눠 풀어보자.

#1 기차와 짜이 좋고!

여행의 첫 번째 사건은 홍콩에서 인도로 가는 비행기의 연착이었다. 그 연착으로 인해서 인

도 여행의 시작을 몸으로 느꼈다. 이게 바로 인도다, 하는 사람들 사이의 농담이 오갔다. 인도에 도착한지 이들이 지나고 우리는 델리에서 보드가야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 하룻밤을 자야하는 침대기차였다. 처음 타는 침대 기차에 누가 물건을 훔쳐가진 않을까 걱정해 불편하기도 했고, 쌀쌀한 북인도 날씨에 잘 닫히지 않는 창문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온몸을 침낭으로 꽂꽂 싸매고 자야했다. 인도의 기차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쉬었다가 가기도 하는 등 일정한 속도로 절대 달리지 않는다. 계속해서 멈추는 기차 때문에 언제 도착하는 지도 모르는 기차에서 시간을 보내야했다. 처음에는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밤쯤 도착할 거라는 예상이었는데, 우리가 탄 기차 앞에서 세 번의 기차사고가 났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차는 제자리에서 8시간을 멈춰 복구가 될 때 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덕분에 우리는 숙박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다. 총 이틀 밤, 44시간을 기차에서 보냈다. 첫 기차에서부터 험난하니 그다음 기차 일정은 쉽게 느껴졌다. 아예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나니 기차 안이 나의 숙소인 듯 편하게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나중에는 기차만큼 여유롭고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것 같다. 인도 여행을 하면서 총 7번의 기차를 탔는데 기차에서 자는 편안한 잠자리와 우쿨렐레를 치며 다 같이 부르던 노래들 한가로이 밀린 일기를 적고 사람들을 그리던 때가 가장 그리울 것 같다.

델리의 빠르간지에서 처음 마신 짜이, 라지기르에서 토기에 마시던 짜이, 기차에서 마시는 티백 짜이, 갠지스 강을 바라보며 마시는 모닝 짜이, 판자촌을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마시던 짜이, 하루의 마무리를 장식해줬던 폰디체리에서의 짜이, 새벽사원을 둘러보고 마시는 따끈한 짜이 한잔.

집으로 돌아와 짐정리와 집안청소를 마치고 라면 끓이던 냄비에 물과 우유를 넣고 인도에서 사온 찻잎을 넣고 설탕을 넣어 달달한 짜이 한잔을 만들어 마셨다. 짜이를 마시니 인도에서 마셨던 짜이의 맛과 바라보이던 풍경들 그리고 함께 마신 사람들까지 인도 각지의 풍경이 떠올랐다. 인도에서 짜이를 한잔 마시는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쉬면서 마시는 달달한 믹스커피 한잔과도 같은 느낌이었다. 다리가 아플 때 까지 돌아다니다가 아 힘들어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비록 앉아서 쉴 수는 없지만 짜이를 한잔 마시러 간다. 짜이를 마시면 정신없는 대도시에서도, 차가 바빠 오가는 도로 속에서도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만 같다. 혼자서 인도를 돌아다닌 적이 있었다. 딱 한번. 그때 정말 하염없이 걸어 다니기만 하다가 힘들어서 짜이를 마시러갔다. 현지사람들과 섞여서 One Jai를 외쳐 주문을 하고 기다려 짜이 한잔을 받았다. 뭔가 나도 이제 인도에 익숙해진 느낌이 들었다. 얼마냐고 묻지도 않고 현지사람들과 함께 마시는 짜이 한잔이 나를 인도의 일상에 스며든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인도에서 마시던 달달한 짜이 한잔, 5루피 짜리 여유한잔이었다.

#2 남인도와 오토릭샤 싫고…….

쌀쌀한 날씨의 북인도에서 한여름마냥 더운 남인도로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 추운 곳에서 갑자기 너무 더운 곳으로 내려가니 축축 처지는 몸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날씨는 너무 더운데 숙소를 찾으니 모든 숙소가 빈방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힘들게 숙소를 찾아다녀야 했다. 덥고 땀이 나는 걸 몹시 싫어하는 나에게는 잘 곳도 없는 남인도가 너무 싫었다. 남인도

에 도착한 다음날에는 같이 잤던 친구가 아픈 바람에 허겁지겁 씻고 짐도 다 챙겨주고 같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친구는 방에서 쉬라고 하고 스프 사다주고, 일어나서 오후 한시가 되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챙겨주기만 하고 있었다. 이게 남인도에서의 첫날이었다. 남인도로 내려오고 일주일엔 정말 덥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것도 별로 없고 맛있는 음식도 없는데다가 비싸기만 하고 방도 비싸고 힘든 요소를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남인도가 싫은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짬 더운 곳으로 내려오니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다. 이후에 다녔던 남인도에서의 일주일 정도는 더운 것 빼고는 좋은 기억도 많았다. 어느 지역에 가든 남인도에는 바다가 있어서 바다를 보면서 하염없이 걷던 밤도 좋았고, 맛있는 파인애플과 파파야를 먹던 날도 좋았고, 숙소에서 라면을 미적지근한 물에 불려서 먹었던 재밌는 추억도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혼자서 아침 해가 쨍하게 뜨기 전에 일어나 밖을 산책하고 왔던 때도 좋은 기억에 남아있다. 이렇듯 더위만 피했다면 나에게 좀 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더위를 즐기는 방법을 찾지 못해 힘들었던 기억이었던 것 같다.

인도 사람들 중 가장 싫은 사람이 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겪어보고 이 글을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겠다. 공감이나 아닌 그저 받아드리기만 한다면 앞으로 인도여행을 하러가기에는 큰 걸림돌이 되어 다가올지도 모르니.....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거짓말을 잘하고, 농담을 잘하고, 사람을 갖고 노는 습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었지만 정말 한두 번 겪은 일들이 아니기에 내 머릿속에서는 떨쳐버리기가 힘든 기억이다. 내가 싫어하는 이 사람은 바로 오토릭샤꾼이다. 오토릭샤는 인도의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다. 이 릭샤를 타기 위해서는 행선지를 말하고 가격을 흥정해야한다. 사실 현지의 물가를 잘 모르는 나지만 같이 다니는 팀원들의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우리들도 이 정도를 주고 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어디를 가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늘 릭샤꾼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니까 돈을 많이 받아보려고 두 배 세 배씩 부른다. 하지만 가격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릭샤꾼들을 보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난다. 이런 릭샤를 잘 흥정해서 타고 다녔는데,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오토릭샤를 타고 가려고 한 릭샤꾼에게 얼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300루피를 부르는 거였다.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부르길래 안탄다고 하고 다른 릭샤꾼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250루피로 깎아줬다. 그런데 갑자기 5~6명의 릭샤꾼들이 몰리더니 3\$를 부르고 350루피를 부르고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나와 일행을 둘러싸고는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을 자기들끼리 부르기 시작했다. 정말 돈밖에 모르는 바보들 같았다. 제값을 불려서 타는 사람이나 릭샤꾼이나 기분 좋게 가면 좋을 텐데 릭샤를 탈 때면 매번 릭샤꾼이나 타는 사람 모두가 짜증 섞인 상태가 되어버린다. 인도에 와서 인도사람에게 진심으로 화가 났던 날이었다. 마음속에서 욕하는 붉은 덩어리가 목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어쨌든 그 날 우리는 인도사람들과 함께 30루피를 주고 타고 갔다. 원래 저렇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 화가 나버려서 가격도 원래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는 상태가 되어버려 무조건 30아니면 안 간다고 그랬더니 현지인과 같이 타고 가라고 그랬다. 이날 이후부터는 릭샤라고 하면 질려버려서 어느 정도 대충 깎으면 그냥 돈 더 주고 타고 다닐 정도로 싫은 것이 되어버렸다.

정리가 전혀 되지 않던 인도여행을 좋았던 기억(기차와 짜이)과 싫었던 기억(남인도와 릭샤

꾼)으로 글을 쓰니 이 글속에 인도의 모든 여행이 담겨있는 것 같다. 갑자기 떠나 한 달 동안 새로운 사람들과 여행을 하고 돌아온 나에게는 인도여행이 복잡하지만 곱씹어보면 여러 가지 배움으로 다가 오는 것을 느낀다. 우리나라를 떠나 외국을 여행한다는 것에도 자신이 조금은 생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도 조금은 자연스러워 질 것 같다. 처음에는 그저 즐겁게 여행을 다녀와 보자. 라는 생각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기타 치며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는 일을 즐기다 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다보니 내가 하고 싶은 데로만 할 수 없기도 했고, 함께 움직여야하는 일정들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잘 하지 못하게 된 것도 있었다. 그동안 5년 동안 학교라는 같은 공간과 같은 사람들과 지내다보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일이 어려워졌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 인도여행 덕분에 모르는 사람들과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함께 밥을 먹고 자고 이동하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지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게 되었다. 사실 무척 급하게 떠났던 여행이라 정신없게 다녀온 것 같다. 그래도 나에게는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에 떠난 여행이었던 만큼 큰 도움이 되었다. 바쁜 여행 일정속에서도 새로운 나의 모습도 조금 찾게 되었고 모르던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어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 혼자서 해내야 하는 일이 많을 올해를 든든하게 열어줄 수 있게 한 뜻 깊은 여행이 되었다.

2. 태국여행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우여곡절 끝에 구입했다. 인도에 다녀오고 한 일주일 쉬고 나니 출국을 생각했던 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혼자서는 처음 사 보는 비행기 티켓이라서 하나도 모르겠고, 좌석도 얼마 없고 티켓은 비싸고……. 혼자서 킁킁 거리다 겨우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게 되었다. 태국에 있는 총 기간은 네 달 하고도 십이일. 혼자서는 여행 할 용기가 없어서 인턴쉽 기간 네 달을 채우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유로 12일을 남겨두자 하고 왕복 티켓을 끊었다. 태국으로 가는 날까지만 해도 약간 겁이 났었다. 사실은 치앙마이까지 잘 가야한다는 생각에 긴장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찾아갔던 것 같다.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는 버스를 타고 12시간이 걸리는 거리이다. 그래서 사실 비행기를 네 시간 타고 방콕에 도착했기 때문에 하루 자고 치앙마이로 올라갈까 생각했지만 혼자서 잠을 자는 게 겁이 났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치앙마이까지 이동을 하면서 새우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바짝 긴장하던 첫날과 다르게 역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태국어도 배우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내는 곳이 태국인지 한국인지 인식하지 않고 지내기 시작했다.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지내서 그랬던 것도 크기는 했지만 그만큼 태국이 편해졌었다. 간단한 이야기는 영어보다 서툴지만 태국어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할 정도였다. 약 네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갈 때 짬 단체에서 일을 하는 것보단 여행을 떠나는 게 나에게 더 좋은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차례의 고민 끝에 일찍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혼자 떠나길 두려워하던 내가 태국에서의 3주 동안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혼자 여행을 떠나기조차 두려워하던 내가 어떻게 국경을 넘을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앙코르와트를 꼭 봐야만 할 것 같았다. 이번에 보지 않으면 내가 언제 다시 앙코르와트를 볼 수 있을 지도 모르고 이상하게 이번에 보지 않으면 유적들이 사라질 것만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앙코르 유적과 더불어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길에 조금 멀기는 하지만 수빈이가 지내고 있는 프놈펜까지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다.

혼자서 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잠을 자고 걸어 다니다보니 혼자서 다니는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현지사람, 한국사람, 타국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남녀불문 나이 불문 여행이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뿐이었다. 치앙마이에서는 이탈리아 할아버지와 친구가 되기도 했고, 방콕에서는 여러 명의 한국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앙코르 유적들을 둘러보다가 체코에서 온 언니 한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했고 다시 돌아온 방콕에서는 길 가다 만난 아저씨의 밥 친구가 되기도 했다. 여행을 다니는 동안의 나는 나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내가 되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밥을 잘 먹었고 내가 먼저 말을 걸기도 했으며 얼굴에 웃음을 띠 줄 알게 되었다. 3주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한 번도 격한 사기를 당한 적이 없으며 악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 여행자 언니에게 해주니 고맙게도 사람이 좋아서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거일 거라는 얘기를 해주었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대로 나가던 복도 웃으면 다시 굴러들어온다고, 앞으로도 여행을 다닐 때의 마음처럼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살아갈 줄 아는 내가 되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계속해서 나를 소개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나 졸업 후의 이야기를 묻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었다.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잘 되지도 않는 영어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역시 영어를 공부해야겠구나, 나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학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도 듣게 되었고, 나를 바라보는(대안학교를 나온 청소년) 사람들의 생각들도 듣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마음속에 갖고 있기는 했지만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던 여행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 도미토리를 사용하면서 다시 느낀 것이지만 나는 사람들의 눈 때문에 나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짐을 풀었다가 싸는 것까지도 사람들의 눈이 너무 신경 쓰였다. 이러면서 기숙사 생활은 어떻게 5년 동안 했는지 모르겠다. 아직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러는 것도 언젠가 ‘아, 내가 이래서 이러는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날이 오겠지. 여행을 다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를 다시 보게 되었고, 여행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나의 졸업과 앞으로 나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역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혼자여서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혼자였기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나의 모습을 새롭게 볼 수 있었던 여행이 되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약 네 달동안의 인턴쉽 기간보다 삼주동안의 여행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학교와 관련 없는 사람들과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나 스스로가 나의 벽을 넘게 해주었다. 이번에 뛰어넘은 용기로 앞으로도 나의 앞에 놓여 있지만 보이지 않는 벽들을 뛰어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중삼 논문 때부터 차근차근 깨뜨려오던 벽을 혼자서 뛰어 넘은 올해. 나는 세상과 소통하게 되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행복하다.

세상풍경, 그리고 내 마음의 풍경을 바라보다

이다빈/LHAMO

언제

2010년 3월 1일~ 2010년 5월 24일

어디서

인도 북서부 다람살라에 위치한 록빠

무엇을

자원봉사활동 (탁아소, 카페)

[순서]

I 준비

1. 인턴십 계획서

II 마음 속 풍경

1. 티베트 소개
2. 록빠단체 소개
3. 활동내용
4. 봉사활동을 하면서 ...

III 다녀온 후에

1. 후기
2. 한국에서의 활동

IV 예산 및 결산

1. 예산
2. 결산

V 첨부자료

1. 일지
2. 인터뷰

I 인턴십 준비

1. 인턴십 계획서

누가 : 제천간디학교 6학년 이다빈

언제 : 2010년 1학기 3월~ 2010년 5월

어디서 : 인도 다람살라에 위치한 '룩빠'

1). 동기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가 유아복지, 유아교육이었다. 4학년 무빙 때는 유아교육, 5학년 무빙스쿨 때는 유아복지 쪽으로 나갔었다. 그래서 이번 인턴십을 준비하면서, 한비야씨 책을 읽으면서 제 3세계 아이들에게 눈이 갔다. 물론 우리나라, 가까운 곳에도 가서 안아주고 싶은 아이들이 많지만, 이번 인턴십 기간 동안은 더 상처가 많고, 힘든 제 3세계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다.

그래서 이곳저곳 조사하다가 '희망을 여행하라'라는 책을 통해 룩빠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다. 관심이 생겨 홈페이지에 들어가 어떤 단체인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다 지금 티벳인들의 상황과 아픔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룩빠의 가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2). 인턴십을 통해 얻고 싶은 것

① 티베트인들 삶의 이야기 듣기

티베트 아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티베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 나와 다른 가치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② 이 험한 세상에서 홀로 살아남기!!

아직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어려워하는 나에게 홀로 설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고 싶다.

③ 두려움 없애기

새로운 것에 두려움이 많아 낯선 것, 도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 환경, 사람, 모든 것이 낯선 곳에 가서 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해보고, 꺼려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싶다

④ 진드기와 친해지기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편해 하지 않으며, 훌륭한 적응력을 가지고 싶다.

3). 떠나기 전 다짐

많이 힘들 거라는 것 잘, 아주 잘 안다. 눈앞에 고생길이 흰히 보인다. 많이 울기고, 포기하고도 싶을 거다. 하지만 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쑈-욱 자라서 돌아올 거다.

자신감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고,

용기를 가지고 모든 도전해보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며,

마음을 열고 모든 받아들이고.
많은 것을 담아서 돌아올 것이다!

4). 겨울방학 동안의 준비

① 영어공부 하기

현지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가기 전 영어 공부는 필수! 인터넷 강의를 통해 겨울 방학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다.

② 티베트의 대한 공부

티베트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한 공부. (관련된 책을 읽고, 자료수집, 록빠 대표를 만나 이야기 나누기)

③ 여행준비

여행 루트 짜기, 여행에 관한 자료 수집, 예방접종

II 마음 속 풍경

1. 티베트 소개

티베트는 히말라야 산맥 해발 4천 미터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티베트 고원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티베트 불교를 비롯해 독특한 고유의 글과 예술 문화를 가지고 있다.

현재 티베트는 1950년 중국 침략 이후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중국은 티베트를 침략하는 과정 속에서 6000여 개의 불교 사원을 파괴했으며, 대부분의 승려들은 투옥하거나 강제로 환속 했다. 당시 전체 인구의 1/6인 백이십만 명을 학살하기도 했다.

그 후 달라이 라마는 인도 북부 히말라야 기슭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세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50년 동안 비폭력 평화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현재 인도 전역에 10만여 명의 티베트인이 난민으로 살고 있으며, 3만 여명의 티베트인들이 네팔과 부탄에 있는 티베트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티베트 본토에는 정치적 발언을 한 티베트인들을 향해 무차별하게 사형과 고문이 집행되고 있으며, 한 해 오천명에 가까운 티베트인들은 티베트를 떠나 근접 국가인 네팔과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로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있다. 히말라야를 넘는 난민의 대다수는 종교의 자유를 찾는 스님과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이라고 알려져 있다,

*티베트 난민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 태어나고 자란 나라와 가족과 헤어져 언어, 문화, 기후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
- 세계 사회에서 인정하는 정식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세계와의 단절감
- 한정된 직업 교육과 극도로 부족한 고용 기회
-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젊은이들의 무기력과 그로 인한 좌절감으로 빠르게 퍼져가고 있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사라져 가고 있는 티베트 전통 문화 보존에 대한 시민 의식 부족과 지원 부족

벌써 자신의 모국인 티베트에 가보지 못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망명 3세대들이 자라고 있다. 티베트 본토에서 중국화 되어 가고 있는 이들과 망명지에서 망명국화 되어 가고 있는 이들. 티베트 불교와 달라이 라마라는 울타리 안에서 걸음으로는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통과 문화가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며 고희를 맞으신 달라이 라마의 사후 이후에는 더욱더 지켜 나갈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티베트의 현실이다.

2. 록빠 단체 소개

록빠는 단순 자선 단체가 아닌 티베트 난민들의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자립을 지원하는 시민 단체로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난민촌을 근거지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도 티베트 난민의 현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같은 아픔을 겪었던 한국과 티베트 난민 사회의 건강한 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일하는 가정을 위한 무료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티베트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여성 작업장도 운영하고 있다.

1). 무료 탁아소

경제적으로 힘든 티베트 난민 부모들이 마음 놓고 직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설립되었다.

탁아소의 궁극적인 목적이 부모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를 맡길 수 없다. 또한 탁아소의 부모들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탁아소 청소, 바자회 주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2). 여성 작업장

-목적

티베트 여성의 자립을 통해 티베트 난민 사회 내부로부터의 경제적, 문화적 자립과 독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티베트 난민 가정을 지원한다.

둘째, 일을 통한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과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켜 나간다.

셋째, 여성 공동체적 원리와 가치에 기반한 여성들의 삶, 노동 문화를 되살린다. (직업 훈련 & 문화교육을 병행)

넷째,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티베트 난민 사회의 관계성 회복 및 나눔의 가치를 꽃피워나감으로써 티베트의 자립과 독립에 기여한다.

3). 록빠 카페&샵

여성 작업장에서 직접 만든 수공예 물품을 비롯해 다람살라 지역 사람들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세계 각국에서 여행 온 자원 활동가들이 직접 운영한다.
재활용과 나눔을 주제로 하는 작은 워크숍들도 진행한다.
일하는 사람이 손님이 되기도 하고, 손님이 일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일하기도 하는 삶의 그물망이 절로 형성되는 따뜻한 공간이다.

4). 록빠 가게 2호점

록빠에서 자원 활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다람살라를 잊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티베트 난민들의 평화운동을 지지하고 록빠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한국 록빠를 결성하였고, 지난 5월 15일에 보다 안정적인 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사직동, 그 가게'를 오픈 하였다. 사직동 그 가게를 티베트 독립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평화운동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장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주말에는 티베트 문화를 이해하고 록빠도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 워크숍도 열린다, 그동안 진행된 프로그램만 해도 티베트 인형 만들기, 팔찌 만들기, 멜로디 잔치, 인도 요리 워크숍 등 꽤 다양하다.

5). 1루피 프로젝트

-목적

금액에 상관없이 누구든 기부할 수 있으며, 1루피가 천 명 모여 1000루피가 되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개개인이 모여 큰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도움의 손길을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시작한 록빠 첫 캠페인 '1루피 프로젝트'는 1루피 이상의 기부자는 누구든 나뭇잎 한 장에 자신의 이름과 소망을 담아 희망의 나무에 붙일 수 있다.

3. 활동 내용

1). 록빠 카페, 샵

일주일에 6일 월~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카페&샵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주로 베이커리와 커피를 담당했다. 록빠 카페에서 판매되는 모든 베이커리를 만들고, 다른 봉사자분들께 핸드드립을 가르쳐 드렸다. 나도 엉터리라서 누구를 가르쳐 줄 실력이 절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은 아예 모르니깐 괜찮다며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드리게 되었다. 다행이도 그 이후 맛없다고 소문났던 록빠 카페의 커피에도 단골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자원 활동을 하면서 손님을 받아야 하니깐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많이 쓰게 되었다. 장기로 있다 보니깐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 나의 영어 선생님을 자칭하는 친구들도 많았다. 덕분에 원어민 선생님께 공짜로 영어도 배웠다.

하지만 역시 서양인들과 어울리기는 참 힘들었다. 한명과 있으면 맘 편히 대하고 친해질 수 있었지만 서양인들이 무리지어 있고 나 혼자 있으면 그 분위기에 녹아들기가 참 힘들었다.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다. 엄청난 오버액션과 365일 들떠 있는 기분. 내가 정말 들떠있을 때 아니고는 그 기분에 맞춰주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그 사람들로 인해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거 같다.

일하는 사람으로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질문을 한다. 길을 물어보는 사람, 맛집, 좋은 숙소를 물어보는 사람. 질문은 거기서 거기다. 하도 많이들 물어봐서 질문의 대답은 특치면 특 나올 정도로 입에 붙어있었다. 그 중 나를 가장 곤란하게 하던 질문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카페에서 파는 베이커리가 내가 만든 걸 안 후 다들 꼭 이렇게 물어 본다. 나보고 어찌란 말인가. 대략 난감이다. 처음 과정부터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건지, 대충 둘러대면 되는 건지. 나중엔 그냥 재료들만 설명해주는 걸로 질문을 넘겼다.

한번은 매일 브라우니를 사가던 남자가 오더니 자기가 요리사인데 브라우니 레시피 좀 알려주면 안되겠냐 물었다. 당황스러웠다. 같이 일하던 언니가 농담으로 일급비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집요하게 물어봐서 그냥 레시피를 보여줬다. (뭔가 스파이가 된 듯 한 기분에 찜찜했다.) 내 이름을 물어보더니,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다빈 브라우니’라는 이름으로 팔겠다고 했다. 지금쯤 미국 어딘가에서 다빈 브라우니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을거다!

2). 무료 탁아소

일주일에 6일 월~토일 탁아소 오후 타임 자원 활동을 했다.

나는 탁아소의 막내 아기들 방을 담당했다. 그렇다고 막내 아기들 방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다. 다른 봉사자 같은 경우 간식시간 때 큰 아기들에게만 먹이면 되는데, 난 미리 막내 아기 방을 챙기고 밖으로 나와 큰 아기들을 챙기는 식이다.

일은 훨씬 많았지만 정말 좋았다. 낯을 많이 가리던 막내 아기들이 나를 알아보고 정말 잘 따랐다.

오후에는 주로 간식을 먹고, 그룹 활동을 하거나 템플트립을 나갔다.

하루 종일 많은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풀어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고 약간의 문제점을 느꼈다. 좀 더 그룹적으로 나누어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니저와 얘기를 나누고 직접 해보기로 했다. 그룹 활동으로는 그림그리기, 놀이터 나가서 놀기, 밀가루 반죽 가지고 놀기 등이 있었다. 아직 다양한 활동을해보지는 못하고, 너무 한정적이었던 점이 아쉽다.

템플트립을 나가서는 템플을 한 바퀴 돌고 뛰어 노는거였다. 이거 또한 내가 가고 나서 생긴 얼마 안 된 프로그램이라 나에게 놀이 프로그램을 부탁하셨지만 아직 너무 어린아이들이여서 밖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는 너무 한정적이었다. 그리고 템플트립을 나가는 건 많은 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었다. 그래서 따로 이 하루 아이들과 트립을 나갈 봉사자를 받아서 진행했다. 하지만 어려움이 많았다. 한명씩 맡아서 나가는 거였는데 낯을 가리는 아이들이 있어서 수월한 진행은 힘들었다.

카페에서 영어를 배웠다면 탁아소에서는 티베트어를 배웠다. 탁아소 스탭분들 중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나는 한국어를 가르쳐드리고 그분은 나에게 티베트어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서 탁아소 스탭분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처음 내가 티베트어를 배우게 된 동기는 탁아소 아기들 때문이었다. 자원 활동을 시작하기 전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데 그 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티베트어를 배운다. 예를 들어 이리와, 앉아, 하지마 식의 것을 배운다. 아기들에게 영어로 이리와~ 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티베트어로 이리와~라고 말하면 알아듣고 오는 것이다. 아는 티베트어를 총 동원해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알아듣고 대꾸를 하기 시작했다. 난 아이들과 더 많이 나누고 싶었기에 티베트어가 너무 너무 배우고 싶었다. 그날부터 나는 아주 열심히 하루 종일 티베트어만 중얼거리며 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내가 귀엽다며 다들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셨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다는 더 열심히 배웠다. 하루 종일 티베트어를 접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금방 늘었다. 기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듯 하다. (이래서 영어는 나가서 배워는게 좋다는 건가.) 티베트어를 할 수 있게 되자 아기들은 나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고, 나를 더 가깝게 생각하고 잘 따랐다. 또 이런 내가 신기해서인지 먼저 다가와 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자 금세 주변에 많은 티베트 친구들이 생겼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좋아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정말 마음으로 다가와주는 친구들도 있었다.

4. 자원 활동을 하면서…….

자원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삼개월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록빠라는 단체를 통해 만날 수 있었고, 참 많은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저 적응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뭘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적응도 끝내고 일도 다 익힌 뒤 조금씩 록빠의 좋은 점과 문제점도 찾을 수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록빠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잠시 왔다가는 그 수백명의 자원 활동가들 중 한명. 이렇게 기억되고 싶지는 않았다. 눈에 띄게 큰 것은 아니더라도 나로 인해 조금의 변화 또는 달라지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노력한 결과 조금의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달라지긴 했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더 변화되고 배울 수 있었다. 고백한다. 난 솔직히 그들을 만나고 싶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간 것도 있지만, 내가 배우려고, 내가 변화하려고 간 것이 더 크다. 둘 다 잡으면 더 좋은거지만.

인도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였다. 저 사람은 틀려가 아닌 단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말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원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었다. 처음에는 싸우기 싫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같이 한 가지 일을 기획하게 된 적이 있었다. 의사소통도 힘들지만, 서로 다른 곳, 다른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라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많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많이 달랐다. 이것 역시 틀린게 아니고 다른거였다. 이것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트러블이 생겼을 거다. 하지만 난 그러기 싫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받아 들이기 시작했던거 같다. 계기는 어땠을지 몰라도 난 내 목표를 이루었다. 그 후부터는 아예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나 돌이켜 보니 난 이미 많은 것을.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었다.

1). 좋았던 점

① 친구 사귀기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었다! 그리고 많이 사귀었다. 덕분에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완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 덕분에 난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 낯선 나를 진심으로 친구로 생각해 준 친구.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날 이정도로 생각해 준다는 것에 놀랍고 고마웠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친구가 참 부럽기도 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 '난 친구가 없어. 아는 사람이 많은 거지' 이런 친구가 나에게 '넌 나의 첫 번째 친구야!'라고 말해줬을 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② 마을사람이 되어 지내기

잠깐 왔다가는 여행자들처럼 생활하기 싫었다. 정말 그 마을사람이 되어 살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여행자들로부터 도망쳐 숙소도 마을 안에 있는 곳으로 잡고, 밥도 지어먹어 보려고 주방도 있는 방으로 잡았다. 숙소가 좀 멀어 힘들긴 했지만 마을 안에 있어 시끄럽지도 않고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었다. 자신의 집으로 저녁초대를 해주는 친구들도 있었다. 마을 사람처럼 지내는 내가 재미있었는지 잘 챙겨주고 좋아해주셨다. 진짜 그곳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난 내가 살고 있는 숙소가 부끄러웠다. 잠시 들르는 사람 주제에 현지인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누린 다는 게 부끄럽고 미안했다. 하지만 집을 구할 수는 없었기에 그냥 살았다.

2). 아쉬웠던 점

① 실행에 옮기지 못한 프로젝트

탁아소에는 아주 다양한 국적의 봉사자들이 온다. 그 말은 즉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탁아소에 모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봉사자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며 이야기를 한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되도록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고, 티베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아직 어린 아기들이 언어의 혼란을 느낄 거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봉사자들한테 무조건 티베트어만 사용하세요. 라던지 영어만 사용하세요. 라고 말하기도 애매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 봉사자들이 자신의 나라 동요를 알려주는 활동이 있는데, 그 노래들의 가사를 티베트어로 바꾸어 알려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재밌는 프로젝트였다. 시간이 별로 없었기에 급하게 실행에 옮겼다. 처음으로 여러 가지 언어로 된 동요가사를 영어로 정리했다. 두 번째로는 영어로 된 가사를 티베트어로 바꿔야 하는데, 내 티베트어 수준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티베트 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서로 바빠서 딱 한 노래를 티베트어로 바꾸었다. 하지만, 탁아소 일정과 나의 시간이 맞지 않아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못했다. 결국 탁아소 스태프에게 번역한 가사를 드리는 걸로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었다.

② 열악한 환경

탁아소 아기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 싶었다. 기대에 가득 차서 한국에서 몇 가지 구상해 간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한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시간도 부족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재료를 가져갔던 물품들을 스태프에게 전해드리고 왔다.

3). 힘들었던 점

① 혼자 밤을 보내다.

방에서 혼자 보내는 밤 시간이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랑 놀다가 최대한 늦게 들어가려고 하면 밤에 숙소로 가는 길이 너무 무섭고, 일찍 들어가자니 무섭고 심심하고 외롭고.. 정전이라도 되는 날이면 숙소 테라스로 나가 별을 보며 전기가 들어올 때 까지 기다리기도 했다. 안 그래도 무서운데 알려주지도 않은 숙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밤에 숙소로 찾아오는 인도남자들도 있었다. 대박은 살인사건이었다. 내가 그곳에 지낼 때 새벽에 일찍 숙소에서 나온 오스트레일리아 여자가 칼에 찔려 죽었다. 그 사건 이후 얼마나 긴장을 하고 지냈는지 모른다.

혼자 지내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얼

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혼자 잘 지냈다고 이제 한국 돌아가서는 혼자 굳건히 일어나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 난 함께 지내는 게 좋다. 이걸 뼈저리게 느꼈다. 홀로 선다는 것이 혼자 선다는 것과는 다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서되, 온전한 내가 되는 것. 난 그걸 이루고 싶다.

IV 다녀온 후에

1. 후기

***2010년 5월 10일**

계획보다는 너무나 짧았던 시간 3개월. 힘든 시기에는 이 짧은 시간인 3개월이 왜 그리 길게만 느껴지던지..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삼개월이 참 짧았다는 생각을 한다. 나에게 이곳에 지낼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만이라도 더 주어진다면 참 좋겠다. 한 달 더 있는 다고 내가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거야. 하면 그건 또 아닐거다. 그냥 단지, 이곳을 떠나기 싫은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일 뿐일지도 모른다. 날 자신의 첫 번째 친구라고 말해주던 사람, 몰래 주방으로 불러 맛있는 걸 챙겨주시던 분. 아픈 나를 위해 밤에 숙소로 찾아와 약을 챙겨주시던 분, 환하게 웃으며 또는 눈물 콧물 쏟으며 나에게 달려와 안기던 아기들.. 난 단지 이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아쉬워 이곳을 떠나기 싫은 걸지도 모른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 온 곳이니 사람들과 헤어지기 싫은 게 당연할거다. 카페에서 자원봉사하며 만났던 많은 외국 친구들과 티베트 친구들, 탁아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함께 놀았던 아기들, 항상 고맙다고 인사하던 탁아소 부모님들. 같이 봉사 활동하던 봉사자들. 모두들 내가 많은 걸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소중한 인연이다.

나에게 있어 정말 소중한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2. 한국에서의 활동

한국으로 돌아올 즈음 서울 사직동에 록빠 가게 2호점 '사직동, 그 가게'가 오픈되었다.

이렇게 록빠에서의 활동을 접기도 아쉽고, 앞으로 한국에서 록빠 행사에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를 하기로 했다. (이곳은 모두 봉사자들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다)

6월 첫째 주부터 7월 마지막 주 까지 총 두 달 동안 봉사를 했다. 참 잘한 선택이었다. 짜이 끓이는 법도 배우고, 제일 좋은 건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도 학교 밖 인맥이 생기고 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토요일이라 워크숍도 많이 열렸다. 내가 함께

한 워크숍은 티베트 음식 만들기, 인형 만들기, 팔찌 배우기 워크숍 이었다.

티베트 음식 만들기는 한국분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고 계신 '다와'라는 티베트 분이 진행하시는 워크숍이었다. 티베트 음식 짜파티와 짜이, 그리고 알루 커리를 배웠다. 완전 맛있고 재밌는, 인도 생각이 많이 나는 시간이었다.

인형 만들기는 록빠 여성작업장 여성분들께 보내드릴 디자인, 예시품을 만드는 거였다. 참가자들이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 주시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팔찌 만들기는 재능후원자 분이 진행해 주시는 워크숍이었다. 실을 하나하나 꼬아가며 팔찌를 만드는 건데, 하필 이날 정전. 촛불을 키고 하느냐고 눈이 뿔뿔 뻗은 날이다.

이밖에 멜로디 잔치도 진행하고, 홍보 차원에서 흥대로 나가 홍보 및 판매를 하기도 했다. 짧지만 알찬 시간이었다! 봉사는 끝났지만 앞으로 행사에도 참가하고 놀러가며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V 예산 및 결산

1. 예산

국내	항목	금액	비고
	비행기 값	787,800원	
	비자	74,570원	
	여권사진	8,000원	
	예방접종	진료비-4,110원 B형간염검사-6,310원 =10,420원	
	준비물구입	300,000원	
	합계 = 1,180,790		
해외	항목	루피	한화
	숙박비	300*90= Rs270,000	675,000원
	숙식비	100*2*90= Rs18,000	450,000원
	교통비	Rs 2,000	60,000원
	생필품구입	Rs 1,000	30,000원
	비상금	Rs 2,000	60,000원
	합계 1,275,000원		

2. 결산

1). 준비 비용

항목	금액	비고
비행기값	787,800원	
비자	74,570원	
여권사진	8,000원	
예방접종	진료비-4,110원 B형간염검사-6,310원 =10,420원	
준비물구입	300,000원	
합계 = 1,180,790		

2). 현지 생활비

	날짜	항목	루피	한화	비고
해 외	3월	식비&간식비	RS.4,6000	124,200원	
		숙박비	RS.2,925	78,975원	
		교통비	RS,675	18,225원	
		통신비(인터넷, 전화)	RS.365	9,855원	
		기타	RS.575	15,525원	
		합 계	RS.50540	246,780원	
	4월	식비&간식비	RS.3,475	93,825원	
		숙박비	RS.3,000	81,000원	
		교통비	RS.0	0원	
		통신비(인터넷, 전화)	RS.720	19,440원	
		기타	RS.4,060	109,620원	
		합 계	RS.11,255	303,885원	
	5월	식비&간식비	RS.2,915	78,705원	
		숙박비	RS.4,500	121,500원	
		교통비	RS.870	23,490원	
		통신비(인터넷, 전화)	RS.155	4,185원	
		기타	RS.970	26,190원	
		합 계	RS.9,410	254,070원	
합 계			RS.71,205	804,735원	

*1루피를 27원으로 계산

노뜰에서 살았습니다

장우석

[순서]

I 동기 및 목적

II 노틀

1. 노틀의 사람들
2. 노틀의 연극

III 활동

1. 극단에서의 나의 활동
2. 작품들
3. 노틀에서의 나의 일정

IV 인턴십을 하면서 느껴왔던 것

I 동기 및 목적

나는 3월까지만 하더라도 현기와 덕산 카페에서 인턴십을 하기로 했었다. 덕산에 도착해서 우리가 살집을 청소하고 도배도 하며 인턴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고 덕산 카페에서 나의 인턴십을 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교로 가서 현숙쌤과 상담을 하면서 학교를 나가기로 결정했다. 현숙쌤과 얘기하던 중 나는 내가 연기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학교를 나가서 돈을 벌면서 연기를 배우겠다고 얘기했다. 현숙쌤은 학교를 나가는 것은 좋은 결정은 아닌 것 같다고 나를 설득하셨지만 나는 학교를 나가 연기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나의 고집을 피우다가 학교를 떠나 집으로 왔다. 집으로 와서 부모님과 나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현숙쌤이 진주에 오셔서 엄마와 나와 얘기를 했다. 원래 목적은 학교를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얘기 할려고 했었는데 현숙쌤이 내가 연기를 배우며 인턴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해주셨다. 현숙쌤이 아는 극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인턴십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내게 물으셨다. 엄마는 좋은 생각 같다고 말했다. 나도 현숙쌤의 생각이 좋다고 생각했고 연기도 배우고 항상 궁금했던 극단생활과 연극에 대해서 가까이서 보며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현숙쌤이 알려주신 극단 노뜰에서 인턴십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이번 인턴십을 선택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번 인턴십은 무엇보다 나의 선택이었다는 것. 현숙쌤이 추천을 해주셨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현숙쌤이 도움을 도와주어서 이번 인턴십을 하게 된것이 내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연기를 배우고 싶었다. 배우가 되고 싶었다. 연기를 통해서 나를 표현 하는 것을 떠나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되어보고 싶었다. 연기를 통해 나 가슴속에 답답함을 해소 해줄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연기를 배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 연극을 하던 쇼를 하던 영화를 찍던 드라마를 찍던 무엇인가를 해야될 것이다. 그래서 극단에 대해서도 배움이 필요했다. 그래서 극단으로 인턴십을 결정한 것이다.

나는 연기와 연극, 드라마, 영화에 대한 나의 지식은 아주 짧다 그래서 먼저 연극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했다.

II 노뜰

1. 노뜰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노뜰은 아주 작은 인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예전엔 15명 정도 있었는데, 노뜰의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연극을 하기위해 대학로나 지방으로 가버리고 내가 갔을 때는 5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대표이자 연출이신 원영오 대표님.

부대표 배우 이지현 선생님

배우 이은아 선생님

배우 윤상돈 선생님

회계, 배우 엄주영 선생님

조연출이자 배우 오택상 선생님

인턴십 중 가장 아쉬운 것은 개개인적으로 많이 친하게 지내기가 어려웠다. 나의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도 적고 극단에 있으면서 항상 무엇인가를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서로 애

기를 하지 못했다. 항상 연극, 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의 생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였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다. 인문학 캠프를 하기전 시간을 내서 노뜰로 놀러갈 생각이다. 그때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고 내 얘기도 하고 친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2. 노뜰의 연극

노뜰의 연극은 몸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형식의 피직컬 연극이다. 우리나라에서 몇 되지 않는 피직컬 극단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피직컬 연극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해외에서 많은 공연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공연을 하고 있다.

III 활동

1. 극단에서의 나의 활동

나는 극단가서 처음으로 한 것은 무대 뒤편에 창고를 지었고 노뜰 선생님들과 대청소를 하였다. 그리고 공연 연습 중에 음향도 보고 무대 설치, 심부름 같은 걸 자주했고 가끔 지현 선생님께 연기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연극에 대해서도 듣고 트레이닝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였다.

공연을 할 때는 무대 설치, 심부름, 청소, 무대 정리, 객석 관리, 표 관리 등을 했고 딱 두 번 춘천마임축제에서는 음향 오퍼레이션도 봤었다.

제일 기억에 남은 활동이 음향 오퍼레이션이라서 모든 활동을 제쳐두고 계속 음향오퍼레이션 춘천마임축제만 생각이 난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일은 유일한 남자 배우에게 좋은 동생이 되었다.

2. 작품들

1). 귀환: 전쟁 중 있었던 한 보헤미안의 삶을 극화 시킨 작품.

첫 데뷔

귀환이란 작품은 내게 의미가 깊은 연극이다. 내게 처음으로 무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향오퍼레이션이란 직업을 알게 되었다. 내가 연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 영어도 몰랐고, 음향오퍼레이션은 음향감독이랄까? 갑작스레 연출님이 내게 음향오퍼레이션을 시켰지만 한 달 정도 같이 연습하면서 춘천마임축제에서의 공연을 준비하고 춘천마임축제에서 음향오퍼레이션으로 같이 공연을 했다.

2). 동방의 햄릿: 연극의 고전인 햄릿을 동방의 느낌으로 원영오연출님 방식으로 재해석한 작품

3). 보이체크: 전쟁 중 한 사내의 슬픈 사랑이야기.

4). some on a journey

내가 노뜰에 갔을 때 준비하던 새로운 연극이다. 연극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같이했고 공연도 같이했다. 나는 새 공연을 할 때 옆에서 준비 작업을 돕고 객석관리, 청소 같은 막내들이 하는 작업을 했다.

some on a journey는 전쟁 중에 잊어버린 자신들의 가족을 찾아가는 5자매의 이야기와 어느 마을에서 살아가는 부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3. 노뜰에서의 나의 일정

07:00 기상

08:00~08:30 아침식사 (하루마다 당번이 있어 돌아가면서 식사당번을 했다.)

09:00~09:45 청소

10:00~12:00 트레이닝 및 스트레칭

1:00~2:00 휴식

2:00~4:30 트레이닝 및 대본연습 참관

4:30~5:30 휴식

5:30~6:00 저녁식사

6:00~7:00 대본연습 및 즉흥 참관

7:00~ 자유 시간 및 술자리

IV 인턴십을 하며 느껴왔던 것

연극은 돈이 안 된다. 하지만 하는 분들이 있다. 연극은 연극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끝나고 나면 뒷풀이가 있다. 아는 관객과 모르는 관객도 모여서 연극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술잔을 나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정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대학로연극에 대한 나의 생각은 너무 상업적으로만 하려고 한다. 대학로를 걷다 보면 손에 들어 와있는 광고지가 있는데 다 개콘, 웃찾사 같은 개그프로그래를 따라한 대학로 연극이었다. 하지만 연극은 개그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드라마나 코미디가 다룰 수 없는 좀 더 무거운 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대학로 연극이 좀 더 무게 있고 우리에게 고민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연극이 하고싶다. 연극은 내게 고민거리를 줄 것이고 똑바로 걸어 나가는데 내게 좋은 힘이 될 것이다. 좋은 배우가 될 생각도 좋은 연출이 될 생각도 없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을 하며 살고 싶다. 이게 내가 노뜰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느낀점이다.

뽐뽐하게 놀기

전수빈

[순서]

I 왜 캄보디아에?

II 마음을 준비하자.

III 반티에이 뿌리업(Banteay Prieb)은.

IV 활동내용.

1. 반티에이 뿌리업에서
2. 여행
3. 메일링

V 뽀뽀한 자기평가

VI 결산

1. 결산을 공개하기에 앞서
2. 결산

VII 첨부

*들여가기 전

일시: 2010년 2월 23일 ~ 2010년 7월 31일

다녀온 곳: 캄보디아, 베트남

한 일: 장애인 직업학교 반티에이 뿌리업에서의 자원활동, 여행

I 왜 캄보디아에?

사실 제천간디학교에서 인턴십이라는 개념은 참 애매하다. 사회적으로 이미 여러 곳에서 통용되고 있지만 주로 그 내용은 어떠한 특정 직업을 위한 수련이나 체험과정이다. 이것만으로는 간디학교의 인턴십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 선배들의 예를 봤을 때 다양한 내용들이 보이긴 했지만, 감이 잘 잡히지 않았다.

보통의 인턴 과정은 공부했던 내용을 실전에서 체험해보자는 취지이므로 짜여진 과정을 따라 이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린 그런 거 없다. 과정 자체를 우리 스스로 기획하고 채워야 하며 대학 전공으로 대체될 만큼의 뚜렷한 관심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정말 막막하게 느껴진단 얘기다. 스스로 계획한다고 해서 아주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학교철학을 생각해야 했다. 근데 학교철학은 도대체 뭐냐고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대안어쩌구나 NGO는 왠지 배알이 끌리기도 했다.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는 절대 싫었는데 그렇다고 별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었다.

10월의 어느 날, 어떤 쌤과 잠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인턴십에 대해서 여쭙보셨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다. 내 여러 가지 안을 들어보시던 쌤이 말씀하셨다. “난 왜 아무것도 너한테 별다른 자극이 안 될 것 같지?” 그 순간엔 충격이었지만 당연한 이야기였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보다는 해야 될 것(만 같은 것)을 중심으로 생각 중이었고, 그러니 그 안들은 내 흥미보다는 ‘왠지’에서 나온 것들이 더 많았다. 그 날부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나 해야 될 것 같은 것을 버리고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해하는 일부터 차근차근 생각하기 시작했다.

막막하기만 하던 인턴십을 거꾸로 생각해보니 나에게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라는 최소한의 틀은 무엇보다도 든든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철학(?)에 맞다면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좋은 친구였다.

이렇게 좋은 기회 아니면 다시는 마음내기 힘든 일을 하고 싶었다. 이참에 집을 꼭 떠나지 생각했고, 그게 해외 자원활동이었다. 처음에는 단지 이런 이유였지만 나중에 마음을 곰곰이 씹다보니 이렇게까지 발전되어 있었다.

“제가 생각하는 인턴십은 더 깊고 부드러워지는 것인데요.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가 쉽게 대학으로 결정되지 않는 저희들은 사실 이번의 인턴십이 학교라는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프로그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관심사를 심화시키기보다는 저를 보다 유연하되 단단한 상태로 만들어서 두려움 없이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낮은 자세로 사람을 보는 것과 두려움 없이 새로운 환경을 만나는 것인데, 해외봉사는 저에게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고민 끝에 마음을 정하게 됐습니다.” (신부님께 보낸 자기소개서 中)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여러 나라 중 캄보디아를 선택한 이유는, 캄보디아 안에서도 선택의 폭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쌤이 알고계시는 곳만 4-5개였으니 어디 한 군데 거점을 잡고 방문하는 식으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았다. 막연하게나마 생각하던 일정은 정보 수집과 약간

의 캄보디아어 공부 뒤 2월 출국, 3-4개월 정착 봉사, 1개월 NGO견학 겸 여행이었다.

반티에이 뿌리업의 오인돈 신부님께 자기소개서를 써서 보냈다. 몇 주 뒤 허락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마음이 벅찼다.

II 마음을 준비하자

승낙의 메일을 기다리면서 가게 될 단체에 대해 알아봤다. 어마어마한 활동의 양에 놀라던 참이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고민하던 중에 신부님께 메일이 왔다.

신부님이 계신 곳은 18세 이상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학교라고 했다. 그리고 덧붙이셨다.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는 사람들 안에서 배운다는 자세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 오고 싶어 많은 분들이 가난한 나라에 오니 꼭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은 자칫 캄보디아인들을 도와주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만들 우려가 있지요.(……)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먼저 오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2009년 12월의 메일중)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말라는 신부님의 말씀이었다. 출국 준비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개척자들’의 한정애 간사님을 찾아갔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마음준비만 하면 됩니다.”

뭘 꼭 해야만 하는, 가만히 있질 못하는 나에게는 가장 어려운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명상이나 기도를 생각해봤지만 복잡하고 심난한 마음에 기도나 명상이 될 리가 없었다. 신부님이 주신 자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을 때, 내가 가게 될 그 곳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하고 있는 듯 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교육과정과 학교의 활동들은 내가 감히 끼어들어 뭘 도울 상황이 아니어 보여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노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난 잘 놀 준비를 시작했다.

내가 잘 놀기 전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돈이었다. 형제도 많고 형편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어릴 때부터 목돈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20살 ‘땡’치는 그 순간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한다는 소리를 항상 들어왔는데 열아홉, 내 나이는 20살의 직전이었다. 그 때까지 부모님은 내가 인턴십으로 뭘 하던 ‘외국까지’ 나가는 것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런 부모님의 돈으로 ‘외국까지’ 나가 잘 놀 자신이 없었다.

처음에는 방학동안 최대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모자란 돈은 인정할 만한 절차(차용증 같은)를 따라 빌릴 생각이었다.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고민할 때, 엄마가 ‘모금’에 대해서 제안했다. 이번 기획에 너의 경비를 스스로 마련해보지 않겠냐고 말이다. 엄마는 모금을 할 때 내 활동에 정당성이 부여 된다고 했다. 이 말은 곧 ①배운 것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②활동내용을 보고하겠다는, 굉장한 책임의 표현이라는 것은 조금 더 나중에 깨달았지만 말이다.

모금을 통해 활동경비를 마련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방법과 성격에 대해서 고민했다. 처음

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장애인학교를 위해 내가 자원활동 하기 위한 경비와 활동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산을 대충 가늠해보니 내가 쓸 돈 중 정작 그 학교(혹은 그 안에서 생활하기 위한 비용)에서 쓸 돈은 아주 적었다. 이미 반티에이 뿌리업에서는 별도의 생활비 없이 지내도 된다는 신부님의 대답을 들은 터였고, 그럼 남은 것은 항공비와 여행비였다. 이것을 캄보디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참 민망했다.

그래서 방향을 수정했다. 여행과 자원활동을 아우르는 이번의 인턴십은, 목적도 결과도 모두 '배움'일 것이었다. 처음 시작은 엄마에게 손 벌리기 싫은 거였으니, 앞으로 모금할 돈도 엄마가 줄 돈을 나눠받는 것으로 생각했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진짜로 독립하기 전에 더 큰 가족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돈 뿐만 아니라 편지나 조언 같은 모든 정신적인 것들까지 십시일반 모아 보자고 했다. 그래서 목표금액도 정하지 않았다. 그냥 딸이 공부한다는데 돈 내주는 부모 마음으로 받는 거니까(정작 주신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내 바람은 그랬다.), 이제는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해졌으니까 목표액을 채우고 못 채우는 식의 문제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2010년 1월 16일, 편지를 완성했다. 1월 17일, 교회를 시작으로 2월 캄보디아로 떠날 때까지 열심히 편지를 돌렸다. 가족들을 만나고 무빙스쿨이나 인턴을 했던 단체들을 찾아갔다. 학교에도 돌리고, 그 때 교사직무연수 오셨던 다른 학교 선생님들께도 돌렸다. 개인적으로 알던 엄마친구, 아빠친구,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직접 찾아갈 수 있거나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내 편지를 읽으시고 메일 주소를 주신 분들에게도 파일로 첨부해 보내드렸다. 정리해보니 가족으로부터 연결된 인맥이 대부분이었지만 '누구누구 딸'이 아니라 그냥 '전수빈'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주의했다. 예를 들어 받는 사람을 '작은 엄마, 작은 아빠'가 아니라 '전○○,김○○'으로 표현하는 식이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약 120분께 내 편지를 전달했다. 총 36분이 돈으로 도움을 주셨고, 그 외 메일이나 편지, 격려의 말씀으로 힘을 주신 분들은 셀 수가 없다. 교사직무연수 때 뜬금없이 편지를 받으셨던 55명의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에게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시작한 이 일이 나중에는 정말로 '마음 준비'가 되었다.

모금의 기초가 되어 누구나 읽게 될 편지를 공들여 쓰면서 내 인턴십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썼다면, 캄보디아 행이 결정된 이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되는 모든 것을 풀어놓았다.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보면서 캄보디아에서 벌어질 일을 상상하는 일들이 정말로 재밌었다. 진짜 진짜 잘 놀고 싶게 됐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마음만 들떠서는 결국 '잘 놀고 싶습니다!'를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마지막 페이지의 아주 짧은 설명밖에 없다. 진짜 마음으로만 신나게 생각한거다! 예 !

생각보다 컸던 편지의 반응은 또 다른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이번 경험은 이번 인턴십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계속 남을 자신감을 갖게 한 것이다. 나는 집 밖으로 한 발짝 나가려고 발을 떼면서, 아주 작은 용기를 가지고 도움을 구했다. 그렇지만 이 때 받았던 많은 격려의 말들이나 물질적 도움은 내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의 감사와 감동이었다. 나는 이번 모금을 통해서 내 작은 움직임으로 내 주변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법을 배웠고, 또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사람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로 아름답게 체험

했다.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는데 진심이 될 수 있었다.

아직도 2월에 편지를 돌리고 사람들과 얘기 나누던 때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띄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내 곁에 든든하게 서 있다는 생각을 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홀로서기의 시작을 이렇게 따뜻한 세상의 환영과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하다.

스스로 기획하고 행동한 일에 대해 이렇게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몇 번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이번 '편지 프로젝트'는 앞으로 살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발산하면서 오랫동안 기억 될 것 같다.

III 반티에이 뿌리업(Banteay Prieb)은

반티에이 뿌리업에서 지낼 당시 만들었던 뉴스레터에 사용했던 소개글을 그대로 싣는다. 나와 자원봉사자 '김소령'님이 함께 썼다.

반티에이 뿌리업(Banteay Prieb, The Center of Dove)은 1991년 JSC(Jesuit Service Cambodia)가 설립한 장애인 직업훈련센터입니다. 1990년대 초 캄보디아는, 오랜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남은 상처로 가난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지역에서 난민 지원활동을 해온 JSC는(당시 명칭 Jesuit Refugee Service), 캄보디아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인 장애인과 함께 하며 이들의 자립을 돕고자, 캄보디아 내 건달주(Kandal Province)로 자리를 옮겨 반티에이 뿌리업을 설립하였습니다.

반티에이 뿌리업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뿐 아니라 자신과 동료 장애인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돕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다음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s)을 제공합니다. 반티에이 뿌리업은 농업, 기계, 전자, 재봉, 목공예 5개 과목의 직업훈련을 제공합니다. 목공예는 2년 과정, 나머지는 1년 과정으로 매년 100여명의 지체장애인이 입학하여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과목 수업 외에도 캄보디아어 문해교육과 공통농업교육, 보건교육, 인권교육과 체육대회, 나들이,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은 입학 후 장애에 대한 진단을 받고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으며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공동체생활을 통해 존엄성과 자립성을 회복합니다. 학생들은 직업훈련이 진행되는 1년 동안 센터 내에 지어진 11개의 집에서 다른 학생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공동체의식과 자립성을 높입니다. 각 집에서는 10여명의 학생과 집 선생님 1명이 한 가족이 되어,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텃밭을 가꾸며 온전히 독립된 생활을 해갑니다. 과목 선생님, 집 선생님과 학생 담당선생님은 학생 개개인과 만나며 공부, 생활, 건강, 가족상황, 마음에 대해 듣고 서로 공유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영 사업장(Production Workshop)을 운영합니다. 직영사업장은 졸업생을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졸업생들이 일을 시작하기전, 실습기회를 갖는 장입니다. 또한 프로덕션을 수익창출을 통해 반티에이 뿌리업의 재정자립에 기여합니다.

목공, 용접, 수공예, 목공예 총 4개 직영 사업장에서 23명이 일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목재가구, 철재가구, 놀이기구 등은 캄보디아 내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고, 수공예 및 목공예 제품은 센터 내 숍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공예 제품은 한국, 호주, 스페인, 독일 등의 주문을 받아 해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웃리치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을 통해 지속적 지원을 합니다.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졸업생들이 일을 시작하고실제적인 자립을 해갈 수 있도록 졸업 후 최소 5년 이상 졸업생들을 만납니다. 가정 및 일터를 방문하여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방문을 통해 자립의지가 있고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선발하여 직업기술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졸업생 및 장애인가정의 자녀교육비 지원, 집 수리 등 복지개선을 통해 자활의 기반을 지원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메콩휠체어(Mekong Wheelchair)를 보급합니다. 메콩휠체어는 지체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스스로 장애를 가진 19명의 직원들이 이용자의 입장에서 캄보디아의 환경에 맞춘 휠체어를 개발, 제작, 보급하는 독립된 사업장입니다. 재정적으로 자립을 이룬 메콩휠체어는 캄보디아 내 여러 NGO와 연계하여 연간 1000대 이상의 휠체어를 장애인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반티에이 뿌리업은 사람이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해갈 때 일어나는 변화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익힌 기술을 통해 스스로 자신과 가족의 삶을 꾸려가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 생활로 경험한 나눔의 힘으로 졸업 후 돌아간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반티에이 뿌리업을 움직여가는 캄보디아인 스태프들의 전문성과 리더쉽, 사람을 소중히 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서, 언젠가 온전히 캄보디아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비전을 그리며 이끌어가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티에이 뿌리업이 내딛는, 느리지만 소중한 이 걸음들이, 캄보디아 내의 장애인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캄보디아가 진정한 자립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한 흐름이 되기를 꿈꿉니다. (A Letter From Banteay Preib Vol.1 中)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글이다. 근데 반티에이 뿌리업이 그런 곳이다.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말이 아니라, 19년의 역사만큼이나 하는 일이 많아서 그것만 줄줄줄 늘어놓기에도 A4 두장이 모자란다는 뜻이다. 그래도 이 글을 쓰는 건 이것보다 더 반티에이 뿌리업의 일을 잘 정리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티에이 뿌리업의 더 많은 일들을 아는 나는, 오히려 이 정도는 당연히 소개하고 싶다.

내가 느끼기에 반티에이 뿌리업은 생명의 활기가 넘치는 공동체였다. 넓은 학교 부지 곳곳에 꽃과 나무가 넘실거리고, 개, 고양이, 소, 닭, 돼지, 칠면조 등등 어디를 가나 동물이 눈에 띈다. 물론 사람들도 많다. 학생들만 100여명에 선생님, 학교 직원, 프로덕션 직원은 물론 동네 사람들까지 합세해 언제나 북적북적 거린다. 세계 곳곳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다.

이렇게 큰 공동체가 짜임새 있게 잘도 굴러갔다. 슬쩍슬쩍 보아도 놀랍도록 체계적이다. 이 큰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는 19년 세월의 노하우는 아마 내가 절대 가늠할 수 없겠지만, 이것들은 모두 거쳐 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일하고 계시는 신부님이나 수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보면 진정으로 이 학교를, 그리고 일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진다. 무척 열정적이다. 아마 그 전에 계신 분들도 그랬을 거다. 위의 글에 잠깐 설명했던 반티에이 뿌리업의 목적처럼 한 사람, 사람이 소중

히 여겨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시킨다는 말이 실체로서 느껴진다.

나름의 체계가 분명한 공동체였지만, 누구나 그 곳에서 어울릴 수 있을 만큼 수용적이기도 했다. 자기들끼리 너무 잘 굴러가서 마치 내가 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내가 꺼도 잘 굴러갈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누구나 환영하고, 환영받는다. 이것도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반티에이 뿌리업 특유의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 같다. 좀 부족한 사람도, 그 곳에 함께 있으면 내 부족한 부분이 다시 '사람'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든다. 사람이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그럴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이런 느낌들은 5달 동안 여기저기서 별다른 일 없이 지내면서 받은, 그냥 느낌이다. 뭘 알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느꼈다는 말이다. 이렇게 짧게나마 말로 표현할 수 있기까지, 이런 느낌을 5달 내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면 정말 놀라운 일일 것이다.

IV 활동내용

1. 반티에이 뿌리업에서

기본적인 일과는 이랬다. 6시 15분 아침 미사 / 7시 아침식사 / 7시 30분 오전 일과 시작 / 11시 오전 일과 끝 / 11시 30분 점심 식사 / 1시 30분 오후 일과 시작 / 4시 30분 오후 일과 끝 / 7시 저녁 식사

내가 해야 하는 별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다. 언제나 똑같이 굴러가는 시간표들 사이에서,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즐거웠다. 스스로의 무쓸모에 몸부림치기도 했고,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바쁘게 지내기도 했다. 나는 저 틀에 맞춰 움직이기도 했고, 저 틀을 벗어나기도 했다. 부탁하신 약간의 일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내 맘대로 학교 여기저기를 쭉시고 다닌 것들이다. 그 산만했던 활동들을 정리하자니 꽤나 골치가 아프다. 나름대로 정리했지만 역시 분류하긴 애매하다. 아주 자잘했던 일들을 빼고 생각나는 대로 늘어놓아본다.

1). 사진보드 만들기

반티에이 뿌리업의 교무실 맞은편 복도에는 역대 학생들의 증명사진이 기수별로 붙여져 있는 사진보드가 있다. 그 사진보드의 올해 버전을 만드는 것이 반티에이 뿌리업에 도착해 처음으로 부탁받은 일이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각 전공별로 나눠 배치하고, 사진이나 색지로 예쁘게 꾸미는 일이었다. 학생들 얼굴도 모르고, 글씨도 못 읽고, 학용품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우왕좌왕했었다. 내가 일을 하려면 남에게 폐를 끼쳐야 하는 그 상황에 몹시 괴로워했던 기억이 난다. 빨리 말을 익혀야지 생각하게 됐다.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사진보드도 만들었다. 전에 있던 것은 2003년 버전인데 업그레이드를 버리고 계셨다. 처음에 학생 사진보드 만들 때 선생님들 사진도 찍어 놓았는데, 결국 내가 갈 때가 되어서야 하게 되었다. 학생 사진보드 만들 때와 다르게 선생님들 사진만 보고 여기, 저기로 척척 분류하는 내가 신기했다. 이때까지도 글씨를 읽을 줄은 몰라 선생님 2분의 이름 붙이는 것만 남겨놓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직 미완성이라고 한다. 좀 여유롭게 시작해서 완성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2). 소풍 사진 작업

매 번 소풍을 다녀올 때 마다 사진을 찍었다. 학생별로 골라서 포토샵 작업을 하고,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일이었다.

3월 여성의 날 소풍을 다녀왔을 때는, 증명사진을 하나씩 놓고 “이 언니가 이 언니 맞아?” 하면서 보고 또 봤다. 고르고 또 고르며 열심히 작업했다. 그러나 나눠줄 때의 진행 미숙으로 분류해놓은 사진 다 섞이고, 결국 받은 다른 언니가 다시 했던 기억이 난다. 이때의 기억으로 나중에는 철저하게 할 수 있었다.

5월부터 시작된 토요일 소풍 사진은, 같이 지내던 은비언니가 주로 담당했었다. 나는 그냥 자르고 붙이는 간단한 일을 신나게 하다가, 그 언니가 떠난 뒤 6월부터 모든 과정을 맡아 일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못 외우던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고 개개인에게 애착을 가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것 역시 처음에는 얼굴을 구분 못 해 어렵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훗훗 할 수 있게 됐다.

3). 소풍

3월 여성의 날엔 반티에이 뿌리업의 여학생과, 여선생님, 모든 여성 스태프와 깜뽕쌈이라는 바닷가에 놀러 갔다 왔다. 바다를 처음 만난 학생이 대부분이었고, 나 또한 ‘잘’ 놀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친해지고 싶었다. 튜브를 열심히 끌어주면서 언니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복통(한창 물놀이 중이었음)과 지나친 부담감으로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소풍이었다.

5월부터는 각 기숙사 동별로 매주 토요일 근처 절이나 유원지로 소풍을 다녔다. 나는 총 6번 다녀왔다. 더운 날씨에 컨디션 핑계 대면서 몇 번 안 갔더니, 나중에는 가는 것이 되려 어색해질까봐 열심히 다녔다. 2번째 집부터는 계속 같은 곳으로 놀러갔는데도 매 번 재밌었다. 멋지게 차려입은 학생들과 기념사진도 찍고 간식도 나눠먹으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부지런히 안 간게 후회됐다.

7월 16일에는 학교 식구 모두 다 같이 깜뽕쌈에 다시 한 번 다녀왔다. 학생들이 언제 가냐고 물어볼 때, 항상 7월에 소풍같이 다녀온 뒤 떠난다고 했었다. 3일 뒤 19일, 나는 베트남으로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마음에 진짜 열심히 놀았다. 비바람과 무서운 파도에도 불구하고, 사진도 열심히 찍고 물놀이도 열심히 했다. 재미있었다.

4). 재봉프로덕션에서

재봉프로덕션은 반티에이 뿌리업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다. 원래 학교에서도 재봉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재봉프로덕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지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즐거웠었다.

처음엔 무조건 앞에 앉아서 언니들 하는 것을 구경했다.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다가, 시침핀 떨어지면 잽싸게 주워주고 또 구경하다가 했다. 조금 친해지고 난 뒤 본격적으로 재봉틀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조그만 파우치 만드는 것을 배워서 하나 만들어 보기도 했고 언니들이 만들던 포장용 주머니를 나도 몇 개 만들기도 했는데 전기 값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만 뒀다. 그 대신 간단한 손바느질이나 시침을 도와줬다. 4월에 디자이너 진희언니가 오신 뒤, ‘다섯 개는 개발하고 가라’는 말씀에 제품 개발에 열을 올려보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머리띠나 코사지, 인형 같은 샘플 아닌 샘플을 만들고, 피곤할 땐 가서 즐기도 했다. 같이 고아원에 가서 할 인형 워크샵을 준비하고, 진희언니 생일파티 준비도 했다.

재봉 프로덕션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나중엔 언니들이랑 정말 친해졌다. 그 상당한 시간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자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 설 새 없이 꼬물거리고 킁킁거리면

서 놀았던 건 확실하다. 별로 뉴스레터 만들면서 스트레스 받다가도 재봉작업장 가서 10분 정도 낄낄거리면 회복될 정도로 좋아했던 곳이었다.

되는 대로 가서 지내다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다니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다. 그 공간과 일을 좋아한만큼, 조그만 프로젝트라도 하나 기획해서 진행했더라면 돌이켜 봤을 때 기억하기도 쉽고 얘기하기도 쉬울테니까. 그렇지만 이 활동도 후회는 없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쓰겠지만, 아무것도 안하는데 엄청 재밌었던, 그 자체가 놀라운 체험이 되었으니까.

5). 화단 가꾸기

이 일은 4월의 새해휴가 때 갑자기 시작되었다. 논보다도 못났던 프로덕션 앞 화단지리를 새로 정비해 진짜 ‘꽃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곡괭이질을 해서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냈다. 크로마를 두르고 일하다가 땀이 뚝뚝 떨어질 때는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척박한 땅을 위해 소똥도 직접 걷어다가 밭에 뿌렸다. 농업반의 소똥비료를 풀 때는 내가 밟고 선 소똥비료의 따뜻한 온도에 감동하기도 했다. 화단의 울타리도 다시 치고, 수도도 만들었다. 꽃을 심고 지속적으로 잡초를 뽑아줬다. 소똥도 몇 번 더 뿌려줬다. 금방 무성해진 꽃밭을 볼 때마다 흐뭇했다. 학생들이 예쁘다고 그 앞에 앉아 쉬고 있을 때는 더 뿌듯했다.

6). 뿐루깎

이것은 곧 잡초와의 전쟁이었다. 매주 토요일 오전, 학생들은 집별로 나눠 학교 청소를 시작하는데, 대부분 그 일은 학교 곳곳의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다. 여학생들은 빗자루로 낙엽과 꽃잎을 쓸기도 했지만, 나는 영 성격에 맞지 않아 주로 잡초를 뽑았다. 넓은 학교 부지 곳곳에는 비 한 방울 없이도 싹싹 자라는 잡초밭이 어디에나 있었다. 때론 곡괭이로, 때론 손으로 매 주 잡초와의 싸움을 계속했다.

7). 웹사이트 정리·개발

같은 시기, 함께 지내던 은비언니는 네이버 카페와 facebook을 개설했다. 네이버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려고 했으나, 한 번의 글 작성과 몇 번의 댓글에 그치고 말았다. 은비언니 떠난 뒤에는 facebook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하고자, 영어로 된 소개 글을 찾아서 올렸다.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을 체크한 뒤 나보다 facebook을 잘 하는 친구에게 수정을 부탁하기도 했다.

또한 ‘예수회 캄보디아 미션’의 한국홈페이지에서 반티에이 뿌리업에 관한 내용을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수정했다. (그 전에 정리되어 있던 내용을 게시판 형식에 맞게 정리해 다시 업로드했다.)

8). 아웃리치

졸업생 지원 및 신입생 선발을 담당하는 아웃리치 팀과 2번의 졸업생 방문을 함께했다.

4월 26일, 윗 선생님, 뚝뚝 선생님, 딜가 수사님과 2명의 졸업생을 만났다. 나무 등의 재를 사가지고, 우동 지방에서 집을 짓고 있는 졸업생을 한 명 만났다. 이제 막 전자제품 수리점을 시작한 졸업생 한 명도 감똥초낭에서 만날 수 있었다. 졸업생이 어떻게 일하고,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어렵פות이나마 알 수 있었다.

5월 26일, 따깨오에서 살고 있는 1명의 졸업생을 만났다. 재봉을 배운 언니였다. 학교에서

재봉을 빌려 집에서 간단한 수선 일을 하려고 했지만 일이 없다고 했다. 그 전에는 간단하게 재봉을 전달하거나 격려하는 것만 보았는데, 선생님이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랫동안 의논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또 캄보디아 시골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온 동네 아이들이 외국인 구경하러 몰려오기도 했었다.

아웃리치 팀은 6월부터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마을 방문을 시작했다. 나도 그 때 한 번 갈 수 있었다면, 학생들이 어떤 배경을 갖고 공부하러 오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텐데 그게 조금 아쉽다.

9). 캄보디아어 공부

도착한 다음날부터 매일 아침 8시부터 약 40분간 크마에어 공부를 했다. 수업은 학교에서 문해반을 담당하고 계신 비볼 선생님이 해주셨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도착한 다른 봉사자 언니들이 있어서 3명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글자를 쓰는 것은 처음부터 포기했다. 간단한 문법 설명과 단어, 회화 연습이 반복 되는 이어지는 수업은 학생들과 캄보디아어로 대화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달 반 정도 꾸준히 수업을 하다가, 3-4달만 지낼 거라면 더 이상의 공부는 필요 없다는 선생님의 말씀과 함께 수업을 마무리했다. 그 후에는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어휘를 늘리고 패턴을 익혔다.

10). 뉴스레터

뉴스레터 창간호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거의 도착하자마자 들었다. 내가 맡아서 하기로 결정하고 한 달 정도는 다른 일을 하면서 반티에이 뿌리업에 적응을 해갔다. 3월 말에 기획안을 쓰고, 실행계획표를 만들었다. 계간지가 목표니까 6월 말 발송을 목표로 작업했다.

처음에 기획안을 쓰긴 썼지만, 정확한 소식지의 내용이나 형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내가 다시 봐도 너무 두루뭉술해서 감이 안 잡힐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때 조금씩 썼던 기사들도 결국 나중에는 갈 곳을 잃고 폐기처분됐다. 학교에서 뭘 일을 할 때는 그냥 맘대로 꼬적대거나 농담을 따먹는 것만으로 어느 날 일이 진행되어 있기도 했지만, 이제 나에게 그런 곳은 더 이상 없는 거다.

반티에이 뿌리업 뉴스레터를 만들 때 특히 고려해야 했던 것은 매 번 만드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다. 반티에이 뿌리업 내에서 뉴스레터를 계속 담당할 고정 인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서 말아도 쉽게 빈칸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단순하고 정확한 프레임이 필요했다. 브레인스토밍 뒤에 나온 답은, 뉴스와 사람. 딱 두 가지였다. 뉴스를 수집하고, 사람을 2명 정도 정해 인터뷰나 글 청탁을 하면 끝이다. 창간호니까 소개글을 추가 한 뒤, 각 꼭지를 확정했다.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되는 문의와 조율의 반복이었다. 기사거리를 찾기 위해 학생, 선생님들에게 묻고,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고, 디자이너 분께 문의를 드렸다. 조금이라도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와 주변에게 묻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고치고, 고쳐달라고 묻는 작업이 계속 반복되자 뉴스레터가 점점 완성되어갔다.

6월 28일, 디자이너에게로부터 뉴스레터 최종본을 전달받았다. A4로 7장 분량의 PDF 파일, 영어와 한국어의 2가지 버전이었다. 6월 중에 보내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메일링리스트 수집을 하고 발송 방법을 연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7월 15일, 떠나기 4일전에야 뉴스레터 최종 발송을 할 수 있었다.

함께 일하는 것의 어려움을 새삼스레 깨달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 처음부터 내가 책임지고 기획해야 한다는 것 보다, 끊임없이 내가 내놓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의논해야했던 것이 상당히 두렵고 어려웠다. 그 전에는 일을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많이 좌절하기도 했다. 그래도 사진을 찍고 기사 쓴다고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물어볼 때는 정말 재밌었다. '뉴스레터를 만든다면 그 단체에 꼭 젓어버리지 않을까??' 라고 누군가 해줬던 말 그대로였다.

11). 'Home of Peace' 보육원 활동

'Home of Peace'는 사랑의 선교회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HIV 보균아동을 위한 보육원이다. 반티에이 뿌리업과는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2월 말에 다른 언니들과 함께 갈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애기 한 명이 계속 눈에 밟혔다. 그래서 4월 휴가를 마치고 1주일에 한 번씩 다니기로 했다. 매주 목요일 아침에 가서, 애기들이랑 놀고 청소, 빨래, 식사를 도왔다. 7월까지 총 14번 방문했다.

오전에는 주로 학교를 가지 않는 7살 이하의 아기들과 놀았다. 1살 반 된 막내 샤워도 시키고, 소꿉놀이도 하고, 산책도 나가고, 머리도 빗기고, 밥도 먹여줬다. 막내 동생 보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었다. 학교 다니는 애들은 점심 먹을 때쯤 오는데, 밥 먹고 낮잠 자면, 또 다른 수업을 한다. 그래서 놀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한 2달쯤 꾸준히 가니까 먼저 다가와줘서 참 고마웠다.

처음에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는 보육원 생활에 좀 놀라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도 했다. 수없이 오고가는 사람들의 애정이 이 아이들에게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다.

좀 지나자 그냥 애들이 마냥 예뻐서 같이 잘 놀고만 싶어졌다. 바닥에 그림 그리자고 가져간 분필도 애들이 막 부수면 그냥 나도 부수고, 괜히 옆에서 같이 땅 파고, 같이 고무줄 놀이하고, 뒹굴면서 노는게 그냥 좋았다.

맨날 머리도 딱 저있고, 가끔은 냄새도 나는 애들이었다. 나도 더운 날씨에 이리저리 뛰면서 땀에 흠뻑 젖어야 하지만 그런 것 따윈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이 보육원 아이들이야 말로 조건 없이, 열어놓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최고의 선생님이자 친구였던 것 같다.

12). 미사

반티에이 뿌리업에서 지내면서 했던 일 중 제일 꾸준했던 일이 아마 미사일 것이다. 반티에이 뿌리업, 그 자체는 전혀 종교색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사는 집은 어쨌든 누군가가 매일 아침 미사를 드렸고, 신부님과 수사님을 따라 주말에도 미사를 드리러 다녔으며, 매주 화요일에는 다른 예수회 신부님과 수사님들이 모여서 미사를 드렸다. 대충 세도 100번은 될 거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나는 미사의 형식이 익숙한 듯 낯설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긴 한데, 성경책은 서로 약간 다르고, 예배가 아니라 미사인 것도 다르고, 기도하는 방법도 다르고. 비록 형식은 낯설었지만 기도하는 마음은 모두 같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미사를 드렸다. 비슷한 듯 다른 형식들 안에서,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했던 기독교라는 종교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더불어 여러 신부님과 수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직자인 아빠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매일같이 미사를 드리면서 알게 된 건, 잘 몰랐지만 나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간 집에 있을 때는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녔는데, 그게 너무 익숙해서 별 생각이 없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게 그 자체로 마음에 위안이 되고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믿는 것 같았다. 이건 너무나 오래된 습관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번 인턴십을 준비하고 또 지내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은 가끔은 '신의 어떤 것'이라고 느껴지기도 했다. 아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더 빨리 긍정하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믿어보기로 했다. 아니 믿는다고 생각해보기로 했다. 종교에 관해서는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믿는다고 생각하면 믿어질 것 같고, 나는 그러고 싶다.

13). 취미활동

공간도 만나는 사람도 다르니 안 하던 짓도 종종 하게 됐다.

일단 심심하니까 기타 연습을 했다.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노래방도 없고, 학교에선 아무 때나 들리던 기타소리도 안 들리니까 괜히 허전해서 혼자 반주하기 시작했다. 적당한 악보가 없어서 치던 것만 쳤기 때문에 결국 기타 실력은 그대로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5월부터는 디자이너 언니랑 하루에 한 장씩 그림 그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내가 그린 그림보다도, 한 2달 동안은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그린 내가 신기했다. 아마도 내가 1달 이상 하루도 안 빼놓고 내 의지로 무언가를 꾸준히 한 건 TV빼곤 처음이었을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그림을 그릴 때는 마음이 편했다. 사람들이 내 그림공책을 볼 때는 긴장되지만 설렘고, 그림에 대한 감상을 들을 때도 기분이 좋았다. 여행을 다닐 때는, 그림공책을 들고 있으니 내 공책에 내 얼굴을 그려주던 사람도 있었다. 그림 그리는 것을 멀게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져버렸다. 좋은 취미가 하나 더 늘었다.

책도 5개월동안 19권이나 읽었다. 다녀간 사람들이 두고 간 책들이 많았다. 특히 김훈과 서경석의 책들을 인상 깊게 읽었다. 시집을 한 권 읽고는 시도 몇 편 썼지만 정신이 없어서 공책을 버리고 왔다. 똑같은 시를 다시 쓸 순 없겠지만, 앞으로 그 보다 나은 걸 쓰면 된다.

14). 집안일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힘들 때는 일상의 위대함을 항상 얘기하시던 엄마가 떠올랐다. 그 때에는 내 방청소와 빨래를 깨끗이 하면서 마음을 정갈히 했다. 저녁에 먹을 반찬을 데우고, 밥을 앉히고, 설거지를 하고, 내 방청소와 빨래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다. 방청소는 해도 해도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포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15). 기타 단체 방문

2월 27일과 5월 29일, APCA에 2번 방문했다. 캄보디아 현지 NGO인데, 보육원을 운영한다. 반티에이 뿌리업에 주말마다 의료봉사를 오는 언니를 따라 방문할 수 있었다.처음엔 그냥 놀러갔다가 두 번째 갈 때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 인형이나 머리띠 등의 재료를 준비해서 갔다. 재봉프로덕션 언니들과 함께였다. 내가 다니던 고아원과 다르게 큰 아이들이 많았다. 영어도 한국말도 잘해서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었다. 또래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4월 30일, 프놈펜에 있는 단체 2곳을 방문했다. 처음 단체는 이름은 까먹었는데, 역시 주말마다 자원봉사하러 오던 소나이라는 친구가 일하는 NGO였다. 중고등학생 아이들 열댓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공부방 같은 곳이었다. 밥도 먹고 노래도 부르면서 놀았다. 몇몇 친구

들과는 친해져서 내가 소나이 집으로 다시 놀러갔을 때나 반티에이 뿌리업에 놀러왔을 때 같이 놀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또 방문했던 CCSC는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다. 각 지역에서 올라온 장학생들이 대학공부를 위해 프놈펜에서 지낼 때 머물고 있었다. 기숙사 담당 선생님께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한국의 문화와 캄보디아의 문화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북 분단상황이나 한국의 부정부패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대학생들과 취업의 어려움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5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따께오에 있는 이삭학교에 방문했다. 이삭학교는 한국의 민들레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농업학교다. 한국에서부터 방문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삭학교의 선교사님이 우연하게 먼저 반티에이 뿌리업에 찾아오셔서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생태적으로 돼지를 키우는 법을 배우려고 갔지만 선교사님 딸이랑 열심히 놀다 왔다. 2007년 풀무전공부로 무빙스쿨을 갔을 때 만났던 싸론을 이삭학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놀라웠다.

2. 여행

혼자 하는 여행은 1달 정도로 계획했었다. 캄보디아에 2주, 베트남에 2주. 캄보디아에서는 가능하다면 소개받았던 단체 중심으로 NGO견학도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4월에 예상하지 못했던 2주 동안의 휴가가 생겼고, 어쩌다보니 NGO견학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반티에이 뿌리업에 애착이 생기면서 7월 소풍까지만 기다려보자고 했고, 그러다 보니 베트남 여행도 12일로 줄어들었다.

(역시나 예상치 못했던) 3월의 베트남행까지 포함한 3번의 여행을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1). 3/18-3/22, 베트남 호치민

엄마가 옆 나라 베트남에 출장을 온다고 해서 다녀왔다. 호치민은 버스로 5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다녀왔다.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 기숙사 생활을 5년 동안 하면서도 엄마가 보고 싶다는 사실을 인정해본 적이 없는데, 이 때에는 용기내서 인정하고 다녀왔다.

첫 날은 이동하고, 둘째날은 엄마가 일 할 동안 혼자서 시내를 구경하고 꾸찌터널에 다녀왔다. 셋째날은 엄마, 엄마친구와 메콩델타를 짧게 보고 왔다. 넷째 날은 주일이라 예배를 드리고, 아는 분을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 다섯째 날은 아침 일찍 캄보디아로 돌아왔다. 둘째 날 혼자 돌아다니면서 길을 자주 잃었는데, 매 번 친절할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혼자 여행하기에 앞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엄마를 만나서 들뜨고 엉킨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있었다.

2). 4/5-4/15, 캄보디아 시소폰, 따헨, 시엠립

캄보디아의 새해 휴가를 맞이해서 다녀온 여행이다. 반티에이 뿌리업에서 같이 지내던 소령언니는 작년에도 캄보디아 시소폰과 따헨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다. 소령언니와 함께 지내던 곳을 둘러보고, 시엠립의 앙코르 유적을 보고 왔다.

시소폰에서는 성당에서 지내면서, 코이카와 굿네이버스로 자원 봉사하는 한국인들을 만났다.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다음날 아침에는 직접 활동 중인 학교에도 가 보았다. 시소폰 성당에서 지내는 학생들과 새해맞이 놀이도 하고, 동네 꼬마들과 그림도 그렸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따옴 성당의 100주년 미사에 참여했다. 곧 만나게 될 따헨 아이들이 춤 공연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헨은 바땀방 옆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다. 예수회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특히 아이들이 추는 전통춤이 유명하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집에도 놀러가고, 춤 연습도 구경했다. 친구들과 즐기면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에 반해버렸다. 춤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불끈 솟아 올랐다. 근처 마을에 부활절 행사에 춤 공연을 하러간다고 하여 따라갔다. 같이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면서 춤도 추고, 물도 뿌리는 즐거운 날이었다.

시소폰과 바땀방(따헨) 두 곳 모두 예수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었었는데, 휴가기간에 방문해서 많은 활동을 보지 못한 점이 아쉽다.

캄보디아 북서쪽으로 올라간 김에, 근처 시엠립의 앙코르 유적까지 보고 왔다. 3박 4일동안 자전거로 고대유적 사이를 누비면서 실컷 땀을 흘렸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시끄러운 한국인 단체관광객도 많이 만났다. 유적이 상상 이상으로 방대하고 아름다웠다. 나중에 꼭 다시 한 번 가고 싶다.

3). 7/19-7/30, 베트남 호치민, 달랏, 호이안, 하노이, 사파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횡단하는 이 여행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귀국여행이기도 했다. 비행기를 하노이에서 타야했기 때문이다. 집에 가자는 마음으로 북쪽으로 열심히 여행했다.

첫 날은 버스를 타고 호치민에 도착했다. 지난번에 대충 봤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달랏으로 바로 넘어갔다. 아름다운 중부고원도시 달랏에서 2박 3일간 머물렀다.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니면서 꼬불꼬불한 산들을 맘껏 느꼈다. 다음은 호이안이었다. 성수기였기 때문에 버스를 구하기 힘들어 어느 로컬버스 맨 뒷자리 앞 발판에 앉아서 15시간 동안 이동했다. 힘들었지만 좋은 친구 만났다. 아름다운 호이안에서는 세계 문화유산인 구시가지와 미션유적을 구경하고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했다. 3일간 신나게 놀고 어느 로컬 슬리핑버스를 타고 하노이로 이동했다. 하노이 시내를 구경하고, 아름다운 국립미술박물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저녁에 다시 침대기차를 타고, 북부고원도시인 사파로 이동했다. 사파에서는 1박2일 일정으로 가벼운 트레킹을 했다. 나랑 동갑인 소수민족 가이드와 함께였다. 촘촘하게 펼쳐진 라이스테라스에 감동하고, 그 곳을 천천히 걸을 수 있다는데 감사했다. 다양한 모습의 소수민족들을 만날 때는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지나친 호객에 내가 먼저 지쳐버렸다. 가이드인 '수'가 들려주었던 진짜 소수민족이 사는 얘기는 그들의 의상보다 훨씬 흥미로웠다. 다시 하노이로 돌아온 날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다. 호치민 생가와 박물관을 둘러보고, 시원한 국립도서관에서 책 구경을 좀 한 뒤 공항으로 갔다.

여행을 할 때에는 반나절이 멀다하고 닥치는 새로운 문제들 때문에, 빨리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었다. 물론 혼자하는 여행이 외롭기도 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마침 좋은 친구들을 만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혼자 하는 여행의 외로움을 조금씩 극복하고 이제 여행을 즐기게 될 즈음에 여행을 마치게 되었다. 조만간 다시 한 번 나가고 싶다. 그 때는 혼자서 최소한 1달은 돌아다니고 싶다.

3. 메일링

'편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가족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인턴십 기간 내내 간단한 메일링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총 12번 메일을 발송했다. 캄보디아에서 지낼 때에는 2주에 한 번씩 보내다가, 마지막 한 달간은 잠시 쉬었다. 여행 중에 한 번 보내고, 귀국하고 한 번 보냈다. 보고서를 다 쓰면 다시 한 번 보낼 것이다.

내 상황을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글을 쓰는 건 큰 부담이기도 했지만 그 자체로도 스스로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나만 보는 일기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는 글이기 때문에 그럴싸한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최대한 내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고자 노력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고, 매일에 대한 답신을 읽을 때마다 들었던 격려와 그것이 주는 힘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내 감정과 상황에 솔직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오히려 구체적으로 활동한 사항은 충분히 나누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블로그로 보충하려고 했는데, 느린 인터넷과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아쉽다.

V 뻔뻔한 자기 평가

1. 관계

수많은 집 밖, 학교 밖 살이의 영향으로 어디에든 끼어들어 적응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 순식간에 그 들안에 스며들어 지내기 시작했다. 워낙 좋고 유쾌한 분들이신지라, 지내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었다. 가끔은 같이 일하고 주로는 같이 놀면서 편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잘 형성된 관계들안에 끼어들어서 지내는 일은, 그 자체로 문제는 없지만 스스로에게는 약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주로 어울리던 사람들은 한국인 스태프들이었다. 캄보디아까지 와서 이미 잘 하고 있던 '기술'을 이용해 인턴십을 편리하게 보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곳에서 공들여 관계 맺을 사람은 따로 있어"

그렇다면 다음부터 나의 대상은 100명이 넘는 캄보디아 학생이나 스태프가 되어야 했다. 집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계속 만나면서 친해질 수 있었는데, 학생들은 내가 움직여야 만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나도 먼저 다가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어떤 사건과 나의 컨디션 난조로 어느 날부터 저녁에 학생들 만나러 가기를 잠시 그만두게 되었다. 한 번 습관을 들이니까 다시 나가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렇게 잠깐 쉬고 나니까, 지낸지 세 달이 되었는데도 아직 학생 이름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그 때부터는 그냥 같이 놀았다. 공들여서 관계를 맺고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난 불쑥 찾아가서 이런 저런 잡담을 늘어놓고 킁킁대다가 밥을 얻어먹거나 농구도 하면서 노는 편을 택했다. 솔직히 말하면 세 달이나 지내고 이름부터 물어보기가 창피하고 미안해서 택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도 언니, 오빠들은 진짜 착해서 내가 갑자기 친한 척해도 받아줘서 고맙웠다. 18세 이상 성인들을 위한 학교다 보니 내가 온 학교를 통틀어서 막내였다. 내 나이가 썩 실감나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나는 당연히 언니, 오빠라고 생각했다. 그치만 반티에이 빠리업의 학생들은 꼭 언니, 오빠라서가 아니라, 그냥 따뜻했고 열려 있었다. 언제나 받아주었다. 한정된 공간에서 친한 친구들과만 살 거나, 큰 도시 서울에서 살던 나는 절대 상상할 수 없던 환영과 열린 마음이었다. 그래도 배우고 싶었다. 누구에게나 무조건 따뜻한 그 마음이 밝은 미소와 여유의 시작인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많이 부족했다.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언니, 오빠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꾸준히 만나지 못했다. 재봉반 언니들이랑은 많이 친해서 집에도 자주 놀러가고, 시장도 같이 가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영 안 만나졌다. 100명이 넘는 학생을 골고루 만난

다는 생각자체가 무리라고 해도, 이름을 외우는 노력정도는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고아원 아이들과의 관계와 같이, 5달째 쯤 되자 먼저 다가오고 인사하는 언니, 오빠들이 있었는데 그 때 마다 이름을 몰라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난 게을렀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나에 대해서 제대로 실감한 내용도 있다. 주제(?)에 안맞게 어른들이랑 놀기 좋아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쌤들이랑 놀기 좋아하고, 평소 무빙스쿨이나 다른 곳으로 인턴을 나가도 계속 만나던 사람이 어른이라서 불편함도 전혀 없었다. 같이 지내던 한국 스태프들도 고작 열아홉인 나에게는 다들 '어른급'이셨는데, 그냥 친하게 지내다보니까 편해져서는 학생들한테 좀 더 만나야 할 필요를 느끼기가 어려웠다.

사실 꼭 학생들을 만나야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것이 계속 과제로 남아 있었다. 어른들과 필요 이상으로 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느꼈고, 그 대안은 내 또래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꾸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나만의 시각이 아니라 여러 어른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차근차근 제대로 여물지도 못 한 채 맘대로 성큼성큼 쌓아올린 생각의 성으로 어른인체 하고 애어른 취급받는 것도 이제 지쳤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어릴 때부터 모든 어른들의 칭찬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은 나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런 부담 없이, 조금씩이라도 내 맘대로, 칭찬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성취를 바라면서 행동하는 연습을 하고 싶었다. 그 중 하나가 학생들과 만나는 일이었는데, 제대로 하지는 못한 것 같다.

반티에이 뿌리업의 어른들은 나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래도 역시 어른들이랑 같이 다니면 자잘한 거 고민 안해도 되고 싫은 소리 덜 듣는 등, 내가 스스로의 편하고 쉬운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다른 가능성 있는 관계들을 너무 간과했던게 아닌가 싶다.

떠나기 전 스스로와 한 약속 중 '매일 한 명 이상의 새로운 사람과 5분 이상 대화를 나누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결과는 60%의 성공이었다. 인턴십을 진행했던 총 160일 중 98일 동안 새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

의도치 않아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날이 거의 반이었고, 나머지는 의도하고 접근해서 대화를 하고 친구가 된 경우였다. 갑자기 스스로와의 약속이 떠올라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지' 결심하면 그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할 수가 없었다. 누군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길 바랬지만, 결국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실패로 끝나는 날도 많았다.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욕심내고, 받고 싶은 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웠는지 모르겠다. 막상 누군가에게 용기 내어 말을 걸게 되면 5분 이상의 대화에 실패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든 날에는 저녁 늦게라도 꼭 누군가가 나타나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마음대로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럴 때면 혼자서 위축되는 감정을 어찌지 못해 '저 분은 사실 날 사랑하셔' 주문을 수십 번 외우기도 했다.

하루에 한 명 씩 새로운 사람을 만나자는 미션을 정하고 행하면서 제일 기뻐할 때는, 별로 의식하지 않았는데 며칠 씩 누군가를 계속 만나고 있을 때였다.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은 언제나 어려웠지만, 기회가 생기면 조금 더 신경 써서 묻고 대답하면서 통성명을 뛰어넘는 대화를 하고자 노력했다. 나중엔 그것도 습관이 되어있었다.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빼곡하게 적힌 일지의 'New Friends' 칸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만났던 사람이라도 다시 새롭게 보는 일은 진짜 좋은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두렵기도 하다. 나 또한 새롭게 보여줘야 하니까. 이번 인턴십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 좋은 친구는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도 세상에는 나의 이런 두려움을 점점 없애줄 좋은 사람이 어디에나 있는 것 같다 !

2. 일

“2. 반티에이 뿌리업은”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반티에이 뿌리업은 탄탄한 공동체다. 오랜 역사로 다져온 탄탄한 학교 운영체계를 보게 된다면, “내가 ‘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겠구나.” 금방 알게 된다. 이미 신부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한국에선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도착한 뒤에 정말로 할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얼마간 우울했지만 그게 내 능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단 하나의 해야 할 일, 뉴스레터는 6월 말 발송을 목표로 멀리 미뤄놓고 맘대로 놀기 시작했다. 사무실이 아니라 재봉작업장으로 출근하고, 소똥도 푸고, 꽃도 심고, 농구도 하고, 수다도 떨고, 무작정 구경도 하고. 잠깐씩 부탁받은 단순 업무도 신나게 처리해버렸다. 소풍도 가고, 책도 읽고, 바느질도 하고, JSC 자료도 읽고, 여행도 했다. 또 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보고서 제목처럼 ‘뻘뻘하게 노는 것’이 내 주된 일이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잘 놀기 위한 부담도 버리고 그냥 막 놀았다.

단 하나 주의했던 점이 있다면 괜히 일하는 척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뉴스레터도 그렇고, 잠깐씩 부탁받은 일도 그렇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일들이 많았다. 적당히 느린 인터넷은 한 번 빠지면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었는데, 열심히 놀아도 놀고 난 뒤 짹짹했다. 컴퓨터를 구입한 것도 급하게 결정된 일이었다. 원래 의도대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캠퍼스라는 새로운 환경을 최대한 느끼고 싶었다. 그렇지만 컴퓨터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 내게 부족했던 학생들과의 관계 부분도 컴퓨터와 덜 친했다면 더 나아졌을 것 같다. 불필요하게 컴퓨터에 할애했던 시간만이 지금 와서 ‘후회’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철없이 멋모르게 놀던 때를 지나 진짜 뉴스레터를 만들 때가 왔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고, 일 진행도 더뎠다. 내가 미숙해서 일이 느려진 것도 확실히 있었다. 내가 미숙했던 점은 정확히 요구하거나 거절하는 법이었다. 날짜에 맞춰서 나와야 하는 뉴스레터인데, 담당자가 먼저 제대로 말 못하고 안절부절하면 뭘 일이던 될 수가 없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바빠 보이는)디자이너 분께 수정을 한 번 더 부탁하지 못하고, PDF파일의 오타를 포토샵으로 올려붙여 고치는 작업으로 자폭하기도 했다. 그런 문제가 생긴 것도, 그 전에 신부님이 제대로 원고를 보셨는지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것이었다. 우물쭈물 하다가.

일 할 때도, 놀 때도 내 부족함과 문제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혹시나 모를 결과물의 허접함에 대비해서 은근히 노는 척하면서 일한다거나(정면승부 완전 거부), 그럴싸한 의미나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지금 당장 신나게 놀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잘 못 알아들어도 이해한 척 넘겨버리거나, 웃음이나 장난으로 모든 상황을 무마하려 하고.

이번 반티에이 뿌리업에서의 일은 내 부족한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조금씩 바뀌어나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내내 여전히 부족하기도 했고, 조금씩 나아지기도 했다. 오락가락했다.

3. NGO에 대한 생각의 변화

나에게 NGO는 동경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멋진 사람들과 멋진 일에 혹해서 한 번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필요이상의 고민과 고생의 장. 이런 생각은 어릴 때부터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됐고, 간디학교에 들어와 다양한 NGO활동가들을 잠깐씩 만나 볼 기회가 생기면서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 좋은 일 하면 고생하는구나.’

나는 고생이 하기 싫었다. 무빙스쿨 같은 기회가 있으면 그 멋진 비전과 활동들에 마음이 혹해서 기꺼이 체험하고 왔다. 그러나 혹시 누가 진로와 연관시켜 물었을 때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하하”라면서 대답을 피하기 바빴다. 학교에서 하도 대안과 NGO를 강조해서 생긴 청개구리 심보이기도 했다.

반티에이 뿌리업은 JSC라는 큰 NGO에서 운영하는 단체였다. 자원봉사자로 있는 언니들도 한국에선 NGO활동을 했었다. 해외에서 또는 한국에서 현재 NGO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었고, NGO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청년들도 만날 수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화해 본 결과,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와 아빠의 경우는 너무 가까웠고, 다른 분들의 경우는 너무 멀었다. 한 마디로 나는 NGO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했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무빙스쿨 할 때, 무조건 전화하고 자기소개서 보내서 1달씩 머물렀던 경험으로 모든 NGO는 부딪히면 뚫리는 쉬운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곧 ‘NGO를 하려면 일하면서=고생하면서 배워야만 한다.’는 내 편견의 뿌리였다. 그러나 NGO는 비정부기구를 모두 이르는 굉장히 큰 부류이다. 그 속에는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하는 NGO가 있고, 각각의 NGO는 나름의 전문지식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이 때 나는 깨달았다. ‘아, NGO도 그냥 보통의 직업이구나.’

그러나 각각의 사람들에게서는 뭔가 다른 점들이 느껴졌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나뿐만이 아닌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고민하는 것이다. 내가 가진 기술과 능력을,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때로는 지구를 위하고, 이주노동자를 위하고, 제 3세계를 위하고, 장애인을 위하면서 말이다. 모두들 같이 행복한 즐거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문제와는 별개로, 각자의 일들을 사랑하고 즐기고 있었다. 아마 그 모든 분들은 멋진 사람과 활동 보다는 사람들을 향하는 본인들의 마음에 혹 하셨을테고, 필요 이상이 아니라 딱 세상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당연한 고민과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느껴졌다.

만약 저런 것이 NGO의 모습이라면, 나는 앞으로 뭘 할지 몰라도 결국 NGO가 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 NGO활동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 특정한 직업진로가 아니라 삶의 자세에 따라 결정될 자연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가장 세상과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일이 뭘지 찾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NGO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끌렸던 배알을 이렇게도 풀어놓으시다니. 이 모든 것이 다 ‘NGO사관학교’ 간디학교의 계락이 아닐까, 요즘 종종 생각한다.)

4. 내 뻥뻥함에 대하여.

나는 뻥뻥한 사람이 싫었다. 자기 할 도리도 못하고 놀 거나 댄 일하는 그런 사람들, 남한테 빌붙고는 감사인사도 제대로 안하는 그런 사람들, 남들 얘기는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뻥뻥함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인턴십

을 하던 중 뻔뻔해져 있는 나를 여러 번 발견하게 되었다. 참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느껴졌다.

내가 새롭게 느낀 뻔뻔함은 그런 것이었다.

“다른 사람의 기대 정도 가뿐히 무시하는 나의 리듬”

그간의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쉽게 말하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 였다. 항상 착하고 싶었다. 진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그들에게 비치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일은, 쉬운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 나를 풀썩 지치게 만들었다.

그런 나에게 아무런 임무도 없고 별다른 자극도 없는 반티에이 뿌리업은 그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진공상태와도 같은 공간이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극(동기)으로 하루하루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스스로 이런저런 말을 끼워 맞추며 나를 쪼아보기도 했지만 그럴 때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오로지 나뿐이었다. 실제로 잘 할(잘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였을까?) 필요도 없었다. 더 이상 잘한다고 악 쓸 에너지도 없을 때 놀기 시작했다.

별다른 목적 없이 노는 일은 그간의 나에게 대한 엄청난 배신이었다. 말 그대로 뻔뻔했다. 안 하던 짓이라 잘 되지는 않았지만 재밌었다. 그 자체로 엄청 통쾌했고, 후련했다. 처음으로 내 칭찬도 남 칭찬도 바라지 않고 하던 일이었다. 어쩌다 좋은 소리를 듣고 나서도 예전 처럼 더 이상 엄매이지 않았다. 그냥 그 때 좋고 말았다. “흐흐 네, 감사합니다!” 끝.

일지와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평가하고 다음날을 계획했다. 하루하루가 스스로에 의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뭘 하던 좋았다. 남들이 뻔뻔하다 그러던 뭐라 그러던 상관없었다. “아니, 내가 이럴 수가 있다니!!” 뻔뻔한 것(=나에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별 것도 아니었고, 엄청 좋은 것이었다. 아직 더디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해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놀던 와중에 어쩌다보니 일이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서 놀고 저기서 놀았던 일들이 꽃밭이 되어있고, 작은 주머니가 되어있고, 뉴스레터 기사가 되어 있고, 관계가 되고 있었다. 그냥 노는 게 좋아서 아무것도 안한다고, 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재밌는 일들을 최고의 능률로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별로 잘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잘하고 있잖아!!!!”

내가 바라던 그 상태였다. 일 안하고 그냥 논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 매 번 난 잘 놀기만 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신경도 잘 안 쓴다. 하루하루, 매 순간을 즐기면서 산다는 것,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이 뭔지 알 것 같았다. 계속 뻔뻔하고 싶었다.

이 상태를 잘 기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일과 공간과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게 무슨 일이 되었건.

나는 더 뻔뻔해질테다.

VI 결산

1. 결산을 공개하기에 앞서

부끄럽지만 나는 출국 전에 제대로 된 예산안을 작성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인턴십 발표를 할 때는 캄보디아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던 상황이라서 아무런 자료조사 없이 “비행기 값

100만원+여행비 50만원+생활비?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다였다. 캄보디아행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게 되면서 지출에 대한 구상도 바뀌었지만, 막판에 편지 돌린다고 바빠서 정확하게 문서화시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예상보다 많은 지출을 하게 되었다. ①성수기로 여행 물가가 오르고, 여행 일정이 변경되었다.(예상은 500\$) ②업무 중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기에 노트북을 급하게 구입하게 됐다. 처음에 노트북을 살 때는 예상에 없던 큰 지출이라 고민을 많이 했지만, 캄보디아에서 생각보다 무척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980,000W) ③고아원에 다니면서 아이들 간식비(50\$)를 추가 지출하게 되었다. ④고아원에 시소(250\$)를 선물해 주고 왔다. 반티에이 뿌리업 프로덕션에서 주문했다. 그간 나에게 많은 사랑을 나눠주신 2곳에 대한 감사이기도 했고, 모인 돈을 나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써야한다고 생각했다. ⑤예상하지 못했던 핸드폰이 생기면서 용돈에 포함하려고 했던 전화비(45\$) 지출이 늘어났다. ⑥발에 못이 찔리고, 몸살이 심하게 드는 등 병원비(46\$) 지출이 생겼다. 여행자 보험이 가능한지 확인 중에 있다. ⑦그리고 솔직히 용돈을 좀 많이 쓴 것 같다. 아무래도 도시 근처에 있다 보니 불필요한 지출이 좀 있었다. 용돈 지출에 대한 계획을 ‘한 달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아서 감이 좀 없었던 것 같다.(반티에이 뿌리업 프로덕션에서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선물구입비로 80\$을 쓴 것이 좀 큰 타격이었지만 이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도 돌아와서 계산해보니 돈이 모자라진 않아서 다행이다. 출국 이후에도 계속됐던 관심과 인턴십 경비에 보탬 목적으로 방학 때 강의하고 받았던 내 돈을 합치고, 쓴 돈을 모두 빼자 이제 10만원(달러 포함)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처음 ‘편지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예상외로 많이 모이는 돈에 살짝 겁이 나기도 했지만 지내고 나니 처음의 통장잔고와 거의 비슷하다. 정말 넉넉하게 채워주신 마음과 통장으로, 부족함 하나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인턴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 통장을 채워주신 36명의 고마운 분들과, 그에 못지않게 마음통장을 팍팍 채워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왕왕 감사드립니다. 이번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꼭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 나는 꼼꼼하게 가계부를 작성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정리하고 정확하게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후배들은 방심하지 말고 꼭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떠나기 바란다.

2. 결산

* 한화 수입내역

날짜	내용	가격(W)	비고
1/18-6/24	‘편지 프로젝트’ (총 36분에게서)	3,148,050	
1/19-1/20	교사직무연수 강사비	250,000	
		총계 3,398,050	

* 한화 지출내역

분류	날짜	내용	가격(원)	분류별 합계(W)	비고
환전	2/22	500\$(1\$=1150W)	576,630	1,438,006	

	7/11	711\$(1\$=1211.5W)	861,376		수수료 포함 (실인출금액 700\$)
항공료	2/18	인천-호치민-프놈펜, 하노이-인천	754,700	754,700	
건강	2/16	예방접종(장티푸스, 말라리아)	7,510	53,890	
	2/16	B형 간염검사	5,580		
	2/16	말라리아 약 처방	23,300		
	2/20	상비약	17,500		
후원 편지	1/7	문구류	11,000	15,750	
	1/26	우편 발송	4,750		
기타	2/17	빨랫줄	3,000	1,099,400	
	2/17	신발	95,000		
	2/19	코바늘, 실	8,000		
	2/19	노트북	980,000		
	2/20	기타 생활용품	13,400		
			총계	3,361,746	

*한화 잔액

3,398,050W - 3,361,746W = **36,304W**

*달러 수입내역

날짜	내용	가격(\$)	비고
1/18-6/24	'편지 프로젝트' (총 36분에게서)	400	
2/22	환전	500	
7/11	ATM 출금	700	
		총계 1,600	

*달러 지출내역

분류	날짜	내용	가격 (달러)	분류별 합계(달러)	비고
비자	2/23-7/19	1개월 25\$*5	125	125	
고아원 활동비	(총 14회)	차비 및 식비	30	330	
	(총 5회)	간식(빵과 연유)	50		
	7/19	시소 선물	250		
여행	3/18-3/22	[베트남]호치민	75	620	
	4/5-4/10	[캄보디아]시소폰, 바뎀방, 따헨	51		
		과자 선물	25		
	4/10-4/15	[캄보디아]시엠립	113		
	7/19-7/30	[베트남]호치민-하노이 횡단	356		
의료	4/15	파상풍주사	36	46	여행자 보험?
	5/17	몸살	10		
전화	수시	휴대폰 카드 충전	45	45	
현금	매주 주일		21	21	
용돈	수시		307	307	
환전	6/15	25\$을 28,000W으로 ¹⁾	25	25	
			총계	1,519	

1) 달러가 필요한 언니가 있었는데 마침 나는 한화가 한 푼도 없어서 바꿔줌. 바꾼 한화는 한국으로 돌아올 때

*달러 잔액

1,600\$ - 1,519\$ = 81\$

*이번 여행에서 남은 36,304원과 81달러는 꿈과 관련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의 비상금으로 고이 모셔두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VII 붙임

1. 자기소개서

오인돈 신부님, 안녕하세요.

내년에 있을 인턴십 준비로, 양쌤의 소개를 받고 연락드리게 된 제천간디학교의 전수빈입니다.

양쌤이 먼저 학교와 인턴십에 대해 메일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메일이 갔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제천간디학교는 1997년 문을 연 중고통합과정의 대안학교입니다.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철학 아래 100여명의 학생과 20여명의 선생님이 제천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명·평화 등의 주제프로젝트와 농사 등의 자립교과, ‘움직이는 학교’등의 체험학습을 학생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더불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턴십은 학교 교육과정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4개월가량의 활동을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기획하게 됩니다. 진로가 결정된 학생들은 관련한 단체에서 인턴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진로와는 특별한 관련 없이 인생전체를 관통할 삶의 자세와 가치관을 찾는 봉사 혹은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인턴십이라는 말이 특정 직업을 위한 훈련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보통 앞으로 졸업 후 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련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본인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채워볼지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 차비로 씬.

제가 생각하는 인턴십은 더 깊고 부드러워지는 것인데요.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가 쉽게 대학으로 결정되지 않는 저희들은 사실 이번의 인턴십이 학교라는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프로그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관심사를 심화시키기보다는 저를 보다 유연하되 단단한 상태로 만들어서 두려움 없이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낮은 자세로 사람을 보는 것과 두려움 없이 새로운 환경을 만나는 것인데, 해외봉사는 저에게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고민 끝에 마음을 정하고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봉사는 아주 낯설거나 새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봉천동 달동네에서 빈민목회를 하시다가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사회복지사 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뭐든 나눠주는 부모님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제 것들을 친구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능력 혹은 물건을 나누는데 큰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런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 내가 왜 나누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당연히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집에 붙은 공부방에 있으면 친구들은 도움을 받는 쪽이고 저는 '목사 딸'이었으니 그랬었나 봅니다. 물론 남을 돕는 것이 사명인 사람도 있고, 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저에게 그것은 완전히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항상 남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이면서 그렇게 생각하다니 오히려 상처만 주었을 것 같고,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돕는 사람'에는 약간의 우월 의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람과 함께 그들을 도우며 나아가고 저 또한 많은 도움을 받을 텐데, 요즘 들어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말과 행동으로만 돕는 제 자신이 눈에 띄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진실로 나눔을 주고받는, 새롭게 사람 만나는 법도 배워가고 싶습니다.

뭐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특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 이것저것 해본 것이 많습니다. 학교를 통해 한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해본 것도 있는데, 저를 소개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적어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친구들과 한센병 환자들이 계시는 성심원에 2주간 다녀온 적이 있고, 국제워크캠프에서 진행했던 베트남 단기자원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국내의 난민지원NGO에서 1달간 자원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독립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아서 독립다큐멘터리 제작단체 '푸른 영상', 독립다큐멘터리 배급사 'CINEMA DAL', 독립다큐멘터리 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발'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이것저것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또 방송에도 관심이 있어서 소출력지역라디오인 '관악FM'에서 한 달간 자원봉사하면서 배워본 적도 있고요.

자원봉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학교에서 천연비누와 화장품 만드는 것을 배웠고, 재봉과 뜨개질, 바느질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다루고 간단한 영상편집도 할 수 있고, 피아노도 오랫동안 쳐왔습니다. 유쾌하고 활발한 성격이라서 처음 본 사람에게 말붙이고 친해지는데 어려움이 없고, 터울이 큰 동생이 있어 아이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춤은 잘 못 추지만 간단한 율동은 할 수 있고, 대신 달리기를 잘합니다. 요리를 좋아하고, 간단한 쿠키와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순발력있게 이런 저런

잡무 처리하는 것도 잘하고 또 좋아합니다. 영어는 그럭저럭하는데 가기 전에 많이 공부하고 갈 생각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한국 예수회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jrscambodia.org 라는 홈페이지를 찾았는데, 게시는 곳이 맞는지요? 그 곳의 자료를 조금씩 번역해서 읽고 있는데 캄보디아 전역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듯합니다. 그 중 신부님이 게시는 곳은 어디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간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턴십 기간은 내년 1학기 중(12월 말~8월) 최소 4개월입니다. 3개월 정도 그 곳에서 봉사를 하고 1달 정도는 캄보디아에 있는 다른 NGO단체들을 견학하며 여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곳 사정이 어떤지 잘 모르므로 정확한 일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이것저것 많이 적어봤는데 아무것이나 필요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락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

2. '편지 프로젝트'의 그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부터 제천간디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수빈입니다.

저는 올해 5년간 다닌 학교의 마지막 해를 장식하는 인턴십으로 4달간 캄보디아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1달간 배낭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인턴십은 학교 교육과정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4개월가량의 활동을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기획하게 됩니다. 진로가 결정된 학생들은 관련된 단체에서 인턴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진로와는 특별한 관련 없이 인생전체를 관통할 삶의 자세와 가치관을 찾기 위하여 봉사 혹은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인턴십이라는 말이 특정 직업을 위한 훈련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보통 앞으로 졸업 후 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련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본인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채워볼지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턴십은 더 깊고 부드러워지는 것인데요.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가 쉽게 대학으로 결정되지 않는 저희들은 사실 이번의 인턴십이 학교라는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프로그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관심사를 심화시키기보다는 저를 보다 유연하되 단단한 상태로 만들어서 두려움 없이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낮은 자세로 사람을 보는 것과 두려움 없이 새로운 환경을 만나는 것인데, 해외봉사는 저에게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고민 끝에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봉사는 아주 낯설거나 새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봉천동 달동네에서 빈민

목회를 하시다가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사회복지사 이십니다. 어릴 때 부터 뭐든 나눠주는 부모님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제 것들을 친구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능력 혹은 물건을 나누는데 큰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런 일이 너무 자연스럽다보니, 내가 왜 나누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당연히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집에 붙은 공부방에 있으면 친구들은 도움을 받는 쪽이고 저는 ‘목사 딸’이었으니 그랬었나 봅니다. 물론 남을 돕는 것이 사명인 사람도 있고, 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저에게 그것은 완전히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항상 남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이면서 그렇게 생각하다니 오히려 상처만 주었을 것 같고,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돕는 사람’에는 약간의 우월의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람과 함께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저 또한 많은 도움을 받을 텐데, 요즘 들어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말과 행동으로만 돕는 제 자신이 눈에 띄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진실로 나눔을 주고받는, 새롭게 사람 만나는 법도 배워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인턴십 내내 제대로 놀고 싶습니다. 제가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서, 저만 도울 수 없음을 알고 있으니 이제는 그저 편하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보고 싶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집중하면서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나누는 일이 평소보다 좀 더 많아지면 좋겠지요. 예전의 제가 저보다는 주변의 상황, 남들의 시선에 더 신경 쓰며 행동했다면 이번에는 그 때 그 때의 행동이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괜히 쭈뼛쭈뼛대며 눈치 보다가 못하는 일이 없게 매 순간 용기내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람을 만나고, 많이 많이 나누면서 후회없는 시간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누구랑, 무엇으로든 잘 놀고, 언제나 즐기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인턴십은 나를 알고, 남을 알고, 나누는 방법을 아는, 인생의 과업을 이루기 위한 제 첫 번째 액션입니다. 또한 제가 홀로 서기 위해 제가 떼는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보통 자립한다는 것은 정신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을 포함하여 홀로 서는 일인데, 대개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홀로 서기 위해 지금의 가족을 떠나는 대신 더 큰 가족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어린만큼 더 많이 배우고 느낄 필요를 느끼고 있고, 경제적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툭툭대면서 자취하고 싶다는 투정만 하기 보다는 더 큰 가족을 만나 그 분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나중에 진짜 홀로 서기 위한 통 큰 공부를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홀로 외국에 나가있게 될 텐데, 그 곳에서 한국을 떠올렸을 때 부모님께 진 빛이 아닌 든든한 지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더 큰 자신감과 든든한 마음으로 매 순간 온전한 나로 서서 제대로 놀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생기게 되는 제 멋진 가족들이 십시일반 모아신 경비로 누구보다도 멋지고 알차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저의 노동으로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지금은 사랑과 기도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런 편지를 통하여 마련하고자 하지만, 이런 저의 몸짓이 제가 저의 부모님의 딸, 나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 여러분 모두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결단과 선언이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스스로 서고자 도움을 받지만, 사실 이 도움을 받고나면 앞으로 제가 스스로 하는 모든 행동에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혼자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함께 살면서 영향을 주고받기에 저는 이러한 부담을 좀 더 행복하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제가 알게 모르게 받은 도움처럼 저 뿐만이 아닌 되도록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제

마음에 다가가고 저에게 집중해 저를 개발하는 일도 결국은 함께 잘 살기 위한 준비임을 언제나 알고 신중하지만 설레고 신나는 한발짝 한발짝을 반복하겠습니다.

돈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가족들을 많이 많이 만나서 제가 올해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제가 올해 이렇게 받은 도움은 앞으로 제가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캄보디아에서의 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곳의 날씨, 음식, 할 일, 만날 사람 모든 것들이 설레고 그 곳에 계시는 한국인 신부님의 평화로운 메일을 받을 때 마다 새로운 상상에 빠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에 익숙해온 제가 예수회와 함께 하고, 한국에 익숙한 제가 캄보디아에 오래 머무는 등 다른 문화를 접할 때 알게 되는 같은 점 혹은 다른 점들이 저에게 '드러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떤 에너지와 가르침을 줄 지 기대 되고, 또한 제가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도 되면서 다른 것, 새로운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법을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캄보디아 행이 제게 준 긍정적인 에너지는 올해만을 넘어 앞으로 살게 될 모든 날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 날들 중 당연히 함께할 슬픔과 힘듦 또한 궁금하게 하고, 삶을 살며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야지 생각하게 합니다. 아직은 모르는 것 투성이고, 벌써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모든 것이 정말이지 재밌습니다.

긴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읽어주신 분들은 이미 제 마음 속에선 가족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편지 보내는 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격려문자나 문의메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알찬 올해를 보내기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날들 보내세요!

전수빈

010-7144-2490

aaengdu@gmail.com

blog.naver.com/crunch1235

신한 110-034-695550 전수빈

* 저는 2월 23일 한국을 떠나 4개월간 캄보디아예수회에서 운영하는 Banteay Prieb이라는 장애 인직업학교에서 자원활동을 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예수회는 12개국의 예수회, Mercy and Providence Sisters,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세계적인 NGO로 캄보디아 전역에서 광대한 범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Banteay Prieb은 캄보디아예수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학교로 프놈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뢰, 전쟁,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게 된 캄보디아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 조각 등의 직업교육을 제공합니다. 아직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자원활동을 위해 지금은 캄보디아어를 공부하며 그 곳에 계시는 한국인 신부님과 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4개월간의 자원활동이 끝나면 1달 동안은 배낭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2주 동안은 4달간 익힌 캄보디아어로 캄보디아 곳곳을 더 깊숙이 여행하고, 남은 2주간은 호치민으로 넘어가 하노이로 향하는 베트남 종주 여행을 하고 7월 22일 입국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예수회에 관한 정보와 제 계획을 블로그에 조금씩 올리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더 궁금

하신 모든 것은 블로그에 들려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세요.

* 블로그의 포스팅 또는 메일링을 통해 인턴십 기간에도 도움주신 가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관심과 도움을 주실 때 제가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도 함께 주세요.

3. 떠나기 전의 다짐

나는 이번 여행을 하는 동안

1. 나는 언제나 잘 놀겠습니다.
1. 누구와도 잘 놀겠습니다
1. 뭘로든 잘 놀겠습니다.
1. 어떤 상황이 와도 잘 놀겠습니다.
1. 나는 모든 사람의 진실 된 친구가 되겠습니다.
1. 하루에 한 명이상의 새로운 사람과 5분 이상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1. 나는 물을 많이 마시겠습니다.
1. 나는 산책을 하겠습니다.
1. 나는 꼭꼭 씹어 먹겠습니다.

1. 나는 기록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나는 청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매주 일요일, 기도와 묵상으로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1. 나는 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1. 나는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1. 나는 몸 움직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1. 나는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자겠습니다.
1. 나는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겠습니다.
1. 나는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버스를 타겠습니다.

1. 내가 나와 했던 이 모든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나 혹은 남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1. 나는 항상 변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긍정하고, 그것을 발전과 성장이라 생각하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1. 내가 받은 세상의 축복을 나눌 방법을 항상 고민하며 살겠습니다.

4. 연락처

Banteay Prieb.

address. Banteay Prieb, P.O BOX 880, Phnom Penh, Cambodia

phone. (855-11)814129, (855-92)255613

e-mail. banteayprieb@gmail.com

website. <http://www.jmic.or.kr>

<http://cafe.naver.com/banteayprieb>

5. 일지

*캄보디아에서 지내던 중의 일기 중 발췌한 내용이다. 보고서에는 적지 못했던 매 번의 고민들을 훑쳐보면서 수빈이의 6학년 1학기를 좀 더 상상해보시길.

-2.23 / 호치민 공항 환승장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불에서 나오기를 두려워했는데 불과 몇 시간 뒤 나는 차창 밖으로 야자수가 보이는 어딘가에 앉아 있다. 아침에는 가족들과 함께였는데, 지금은 나 혼자다. 말 걸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가 말 걸기도 두려운 때다. 앞으로 잘 지낼지는 둘째치고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내게는 더 중요하다.

-2.24

일단 봉사자라는 타이틀부터 스스로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나는 봉사한다고 왔지만 할 일이 없는 건 둘째치고, 음식, 청소 빨래, 다 해주는 집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설거지는 때에 따라서 어떨지 몰라도, 방청소와 빨래는 내 손으로 직접 해야겠다. 내가 이 곳에서 봉사자 아닌 무언가로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나누고 싶은 것, 그들이 필요한 것은 뭘까?

-2.25 / 고아원에 다녀와서

우리가 보기엔 가슴 아플지 모르지만, 이미 3-4살 때부터 혼자 볼 일 보고, 손 씻고, 더러운 옷을 입고, 맨발로 돌아다니고, 머리와 발 위로 여유가 없는 침대에서 혼자 잠들고, 울어도 안아주지 않는 곳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이 아이들에게 과연 뭘 더 해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라도 정을 주고 안아주는 것이 혹시나 희망고문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리석었던 것 같다. 어떻게든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줬다면, 오늘 말과 행동에 '나는 잠시 있다가지만 너희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담았다면, 그 정도쯤은 다들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텐데... 다 내문제다. 내가 움직이면 괜한 생각도 풀리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2.26

세상엔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난 항상 그들을 분류 안에 가두려 한다. 그것도 그들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기준으로 맘대로 재단하고 선을 긋는다. 누구나 자신을 보여줄 때, 어떨어떨하게 읽히기를 기대 할텐데 난 그런 마음은 헤아리지 않으면서 오만하게 판단한다.

내 모습이 이러니 나는 항상 남 앞에서 조마조마하다.

간디학교도, 꼬레도, 누구 딸도 아닌 그냥 나로서 누군가를 만나는 연습을 하고 있다. 말이 아니라 손짓, 발짓, 눈빛으로 이 곳 사람들과 대화하는 순간순간이 그렇다. 그 때 그 사람들과 나는 진심으로 평등함을 느낀다.

-2.28

장애를 전혀 실감할 수 없을 만큼 밝고, 독립적인 사람들이라서 아예 잊고 있었다. 장애라는 특별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다들 저마다의 어떨어떨한 사연이 있을테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여기 모인 것인데 지금까지는 언어도 부족하고, 낯설기도 해서 별 생각

없이 지냈다. 철없이 왔다갔다 거리면서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다들 아픔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렇다. 다들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공감하도록 노력해야 진정한 배려가 나오지 않을까.

-3.2

반티프리업 23기 학생의 사진을 붙인 보드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참 더디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았는데, 뭐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글씨를 모르니까 자꾸 물어봐야 한다. 나는 노는 게 싫어서 자꾸 일하고 싶은데, 내가 일하려면 남에게 짐이 되어야하는 게 참 힘들다. 말만 제대로 할 수 있었더라면 진작에 끝냈을 일이었을텐데. 학생들의 이름을 모르고, 크마에어를 읽을 줄 모르니 이름 밑에 사진을 붙이는 제일 중요한 작업은 모두 교장선생님이 다시 봐줘야 하는 일인데도 내일 끝낼 자신이 없다. 사실 별 것도 아닌 일인데 자신감이 많이 줄었다. 내가 이곳에 쓸모있는 사람이고 싶은 욕심이 나도 주변도 모르는새 힘들게 하고 있나보다.

잊지 말자. 나는 이곳에 그저 놀러 왔다 !

-매주 화요일, 예수회 모임에서

영어로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웅얼웅얼 거리는 미사 특유의 문구들은 역시 힘들다. 미사는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고, 잘 모르는 지라 어떻게 해야 할 지 언제나 허둥댄다. 손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떡을 집어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성호를 긋는 것은 어차피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 흥내조차도 안 내고 있고, 가끔 뭔가 예를 표할 때는 같이 인사를 한다. 성만찬(천주교에서는 영성체라고 하는 것 같다)은 집에서 하던 거라서 계속 하기는 하는데, 해도 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떡을 집을 때는 괜히 가슴이 쿵광거렸다. 마음이 온전하다면 세례 여부에 상관없이 떡을 집은 내 손이 자신 없진 않을텐데. 그 순간 내 가슴이 그렇게 쿵광거렸던 것은 아마도 그동안 내가 미사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일테다. 사실 형식에 상관없이, 그 순간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나와 모두를 위해 기도드리는 마음이 온전하다면 그런 자질구레한 것에 마음 졸일 이유가 없겠지. 내 행동이 혹시 이 종교를 가진 분들에게 무례가 되는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무례로 느끼시지 않도록 미사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해야겠다.

-3.3 / 2주의 한 번씩 메일을 보내기 전

4시 반까지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일과시간이 끝나자 컴퓨터를 붙잡고 앉았다. 오늘은 드디어 메일을 보내야지 생각했다. 생각보다 글이 잘 안써졌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글 같았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내가 나한테 자신이 없는게 분명했다. 마침 백동훈 등등한테 메일이 왔다. 개네들은 잘 살고 있는 것만 같았지만 뭐 비슷할게 뻔했다. 내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건 역시 사람들의 기대였다. '넌 아무데서나 잘할 애니까, 난 걱정안한다.' 난 지금 '아무데'서나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대답을 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고민을 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항상 이런 것들만을 고민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고민하고 대답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잘'의 여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판단할 일이다. 그 어떤 누가 나에게 대해 어떻게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디 나의 일이 아니었고, 나는 지금도 게

으르지 않게 살고 있다면 나에 대해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은 이렇게 한다. 나는 지금 고민하고 대답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모두 다 내가 만든 기대, 내가 만든 부담, 내가 만든 환상, 내가 만든 확신. 결국은 내가 만든 것들 사이에서 나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파한다. 언젠가는 아플 게 뻔한 일이지만 나는 아프지 않기 위해, 고민과 대답을 미루고 숨기기보다는 그 어떤 판단이나 감정도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되 개의치 않는 태도로 꺾어 나가겠다.

계속되는 다짐으로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는 일 말고, 다른 방법의 하루정리는 없을까?

-3.6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잡초제거를 하러 갔다. 열심히 했다. 막 이제 손에 익으려던 참이었다. 더 열심히 했다. 무성했던 잡초가 내 힘차고 잦은 곡괭이질에 조금씩 견혀나가고 있었다. 그 때였다. 뱀이었다. 깜짝 놀랐다. 뱀을 본 건 괜찮았는데, 내가 그토록 때렸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다. 여학생이 잡아서 물에 던져줬다. 다시 건져서 물으로 던졌는데, 물 어봤더니 뱀이 죽었다고 했다. 내가 죽인 거였다. 충격적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슬프고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싫었다. 무엇보다도 미안한 마음이 컸다. 놀라서 그랬는지 미안해서 그랬는지 한참을 어쩔 줄 모르고 눈물을 흘렸다. 기분이 이상했다. 슬픈 게 더 이상했다. 난 평소에 벌레도 잘 죽이고, 고기도 많이 먹고. 내 생활이 살생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이것저것인데도 나는 뱀을 내 손으로 죽였다고 슬퍼하고 미안해하고, 충격에 빠져있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 손으로 그래서 그랬는지, 혹은 눈앞에서 봐서 그랬는지.

인간은 참 비겁한 동물 같았다. 맘대로 생각한다. 내 실수로 뱀이 죽었을 때는, 내가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더 오래 살았을 것이라며 슬퍼하고 미안해하는데 귀찮게 하는 벌레를 죽이고, 고기를 우적우적 먹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생명을 사랑하고, 되도록 많은 생명과 함께 잘 살고 싶은 것 같았다. 난 이런 생각이 드니 왠지 고기를 먹기가 힘들 것 같았다. 근데 또 저녁에 아무렇지도 않게 장조림을 하나 집어먹었다. 생명을 사랑하고 함께 살기 위해 배려하고 나를 양보하는 일은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일이었다. 아까 고기먹은 생각을 하니 왠지 속이 불편하다. 앞으로도 쉽진 않을 것 같다. 내가 왜 뱀을 죽인 뒤의 생각이 이렇게 까지 뻗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가면서 인간뿐만이 아닌 생명과 잘 살아가기 위해 취하는 나의 태도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매일 이렇게 고민하겠지.

-3.9

오늘은 화요일, 예수회의 개더링이 있는 날이다. 이번 주는 우리 집 차례라서 지난주부터 얼음과 음료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착하신 신부님, 수사님들께 인사를 하고 미사를 시작했다. 좀 길었다. 역시 어떤 신부님이 왠지 무서워서 혼자 쭈그러져 있었다. 내가 저들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기를 기도했다. 혹시나 나의 두려움과 어색함, 창피함이 그들에게도 느껴진다면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나를 북돋아주기를 기도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저 분들은 나를 기죽이려고 계시는 분들이 절대 아닐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고자 했지만 결국 무서워서 눈이 맞으면 바로 고개를 숙이는 일이 여러 번 이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왠지 신부님 수사님들 앞에 서면 쭈그러드는 나 자신을 매번 발견하지만 매 순간순간 그 순간에 온 힘으로 집중하면서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노력한다. 온 몸으로 듣고, 얘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어렵다. 도대체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나부터 어떤 식으로든 열어보려고 한다.

-3.15

크마에어 공부를 하고, 교무실에 앉아 밀린 메일을 확인했다. 이런저런 메일들이 와있다. 친구들의 메일에는 징징대게 되고, 어른들의 메일에는 의연하고, 그냥 아는 사람에게는 명랑하다. 가면. 가면. 가면. 솔직하되 간결해지자는 원칙을 지키는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

-3.16

나는 이 곳에 오기 전에 오만하게도 '혼자서' 첫 걸음을 뚝이라고 생각했다. 난 이제 혼자일 거야. 혼자여야 해. 외로울 거야. 수빈아 파이팅. 그러나 난 절대 혼자일 수 없고, 언제나 함께 한다. 내가 지금까지 느낀 혼자서기란 주어진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잘 배워나가는 것이다.

준비하면서도, 이 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여기서 지내는 매 순간순간, 친구들과 얘기 나눌 때마다. 참 따뜻한 마음을 느낀다. 누구나 환영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들어준다. 나도 저렇게 누구에게나 열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 신부님들과 캄보디아 사람들을 보며 흔쾌히 나를 내어주는, 진정 활짝 열린, 누구나 들고 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활짝 활짝 웃어주는.

-3.29

역시 누군가 무서울 때는 '저 분은 날 사랑하셔' 주문과 함께 나 또한 열심을 다 하면 괜 찮아진다.

-4.26

거의 3주만의 일기다. 왜 이렇게 그동안 나태했나. 아. 나도 잘 모르겠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갈피가 잡히질 않는다. 나는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4.27

점심을 먹는데 신부님이 5월의 방문객에 대해 얘기하셨다. 나도 모르게 탄 짓하다가 혼났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 나는 탄짓하는 내가 좋다. (...)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게 어렵다. 가만히 듣는 게 좋다가보다도 그냥 멍 때리고 마음을 허공에 붓 띄우는 게 편하다. 그럴 때는 살살살살 마음을 끌어당겨서 단전 쪽에 단단히 가둬두고 싶다.

-4.28

점심을 먹었다. 신부님이 너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고 하tu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국에서는 자주 들었던 말인데, 캄보디아에서는 너는 도대체 안 좋은게 뭐냐는 얘기만 들었었다. 그런 신부님이 나한테 인상을 쓴다고 했다. 어제도 너 왜 사람 말을 안 듣냐고 물으셨다. 탄짓하고 있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살 찼다고 하셨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무썬 내 몸 뿐만 아니라 주변의 신호도 무시하지 말고 잘 살펴보자. 잘 듣자. 일단은 허공에 있는 정신을 끌어 와야 한다.

-5.2

뭔가 생각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5.4

멍멍멍. 한참을 멍하게 있었지만 나름대로 정리되는 것들은 있었다. 뭘 끄적이다 안 되겠어서 오늘 해야하는 일인 편지를 쓰기로 했다. 별다른 얘깃거리가 나오질 않았다. 한 문장도 쓰다말고 울다가 다시 쓰다가를 반복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또 멍하다. 그래도 써내고 마니 마음이 많이 풀렸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기분이 많이 나아졌다. 돌아보니 처음으로 다짐 아닌 고백을 써내려간 글이었던 것 같다. 대충 두루뭉실 놓쳐버린 그런 잘 지낸다는, 잘 지낼거라는 말이 아닌 그냥 요즘 그렇다는 얘기를 서툴지만 조금씩 써내려가니 마음이 전보다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가벼워졌다. 내가 이런 얘기를 부담 없이 전할 수 있다니 참 존재자체로 힘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

기분 전환을 위해, 하고 싶은 일부터 차근차근 했다. 프로덕션 앞 꽃밭에 잡초를 뽑고 바느질을 했다. 저녁에 개더링을 위해서 양갱을 만들었다. 오랜만에 호박을 다듬고 삶고 으개는 작업이 모두모두 즐거웠다. 냉장고가 부실해 제대로 굳지 않았지만 다들 맛있게 먹어주어 좋았다. 양갱을 만들고도 바느질을 하다가 뜨개질을 하다가 했다. 디자인 회의랍시고 머리띠를 잔뜩 늘어놓고 수다를 떨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수녀님과 종교에 대한 잠깐의 대화를 나눴다. 잘 들어주시는 분이어서 너무 너무 좋았다. 마음이 편했다. 나도 잘 듣고 싶었다.

-5.8

또 다시 행복해진다. 앓쌀라 알리알리 스와스바꿈.

어버이날이다. 전화를 하고 즐거운 대화를 했다. 어색하긴 했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니, 다른 이유 없이도 참 감사할 일이다.

-5.10

컴퓨터가 켜지는 동안 인터넷으로 할 일을 공책에 적었다. 적어놓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어딘가를 헤매다가 필요한 일도 못하기 일쑤다.

-5.11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야속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금방 7월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갈 것만 같다. 열심히 살아야 겠다.

-5.12 / 캄보디아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한국 청년들을 만나고

다들 고민이 많은 것 같았다. NGO, 개발, 그 자체에 대한 딜레마도 많은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낀 실망과 좌절도 적지 않은 것 같았다. 온 지 2달 3달 정도라는 사람들에게서는 힘든 마음, 더러는 이미 많이 무기력하고 패배적인 기운도 조금 느낄 수 있었지만 1년 정도가 지난 사람들은 모두 희망을 얘기해서 다행이었다. 신부님이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긴 하셨는데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주로 마음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답답한 건 분명 그것뿐만이 아닐테니.

난 개발이 뭔지, NGO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은 참 즐겁다는 것을 느낀다. 스스로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낀다. 내가 다른 이와 함께할 때 더 행복하구나,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당연히 행복하구나. 만나면 더 행복해지는구나, 행복하기 쉽구나.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지금 여기서 느낀 사람을 만나는 일에 대한 감사, 사람을 만나는 일의 즐거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아무 것도 안 하는 일'. 이 상태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5.23

그림을 그리고 시를 읽고 영화를 봤다.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그래, 난 원래 인생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또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또 동경하는 사람이었다. 곧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오늘 시를 읽으면서, 쓰지도, 달지도, 시원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뭐라 할 수 없는 그 오묘한 맛들의 시를 읽으면서 슬픔을 포함한 삶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고 표현하는 그 행위가 한 없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 삶 또한 말이다. 몇몇의 것들은 분명히 아팠다. 그러나 아름다웠다. 슬픔을 보듬어 안았기에 나올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느껴졌다. 나도 그렇게 차근차근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것을 인정하며 그것이 무엇이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지난 금요일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을 봤다.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AIDS 전문가로서 미국인인데 여기저기에 강연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었다. 세계 곳곳을 다닌 사람답게 천천히 쉽게 말해줬다. 나에게 몇 가지를 물어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문명이란 어떠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히는 것. 한국과 비슷한 곳(유럽이나 미국 등)이 아니라 많이 다른 곳(캄보디아 등)에 온 것은 정말 잘 한 일.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것이며 시야를 더 넓혀줄 것. 캄보디아에서 발견한 것, 느낀 것을 마음 속에 씨앗으로 간직하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아름답게 키울 것. 매 순간순간 느끼는 것을 글로서 기록할 것.

일반적인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을 전달하는 눈빛과 표정,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이 외에도 뭐 좋은 말들이 많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많은 것에 감사하시던 게 기억난다. 65살이라고 하던데, 천천히 느릿느릿 얘기하셔도 답답한 노인이 아닌 배려하는 어른으로 느껴졌다. 좋으신 분이였다. 평화로웠다.

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빌어주심을 느낀다. 나는 무엇을 위해 빌 수 있을까?

-5.25

설거지를 하고 밖으로 나와 평상에 누워 하늘을 봤다. 나무사이로 보이던 별들도 오늘은 아니었다. 비가 올런지 하늘은 뿌옇고 습한데, 아직은 덥기만 하다. 조금 있다 보니 누군가 와서 재밌냐고 물었다. 사실 요즘은 별로 재미없는데 또 습관적으로 재밌다고 해버렸다. 재미없다고 하면 뭐 별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몇 마디 주고받다가 가만히 있다가를 반복했다.

이상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이 가깝게 느껴졌고, 이 곳이 좁게만 느껴졌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지는 않을텐데 생각했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깊이가 있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그 사람들만 다 만나도 좁은 느낌은 들지 않을 것도 같았다. 근데 그게 잘 안된다. 어쨌든 오늘은 기분이 이상했다.

-5.29

어제는 아침 일찍 따깨오에서 돌아왔다. 별다른 소득 없이 계속 놀다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왔지만 송구한 마음이라고는 온 데 간 데 없고, 뻘뻘스럽게도 ‘그냥 놀다왔는데요?!’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지경이었다. 스스로 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지 놀다왔다는 말이 튀어 나오는데는 한 치의 부끄러움과 기다림도 없었다.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되었나.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잠시 쉬다가 재봉반에 갔다. 고아원에 가서 무엇을 할지, 같이 샘플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일단 언니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고 진희언니와 나는 이것저것 만들어보는데, 또 뻘질거렸더니 진희언니한테 약간 혼났다. ‘수빈아 일단 뭐든 하렴.’ 또 뻘뻘했던 것이었다. 휠체어타고 실렁실렁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킁킁대고. 여기서 내 위치가 뭔지 난 항상 헛갈린다.

-5.30 / 한인 교회에 한 번 나가 봄

어제 밤새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러 나갔다. 약간 헤매다가 예배에 5분쯤 늦었는데 그 덕에 새 신자 소개는 안하게 되었다. 열심히 찬송하고 아멘아멘 거리는 했지만 고개가 가우뚱거려지는 설교였다. 캄보디아에 온 뒤 종교가 객관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참 기분이 애매하다. 전엔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냥 원래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편하긴 하지만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

-6.1

아침에는 출근해서 어제 써놓았던 편지를 보내고, 카페에도 올리고 약간의 방향을 거친 후에 어제 쓰다 만 기사를 다시 썼다. 하루종일 맴맴맴맴 돌았다. 글을 너무 착하게 쓰려고 하고 구구절절 쓰려고 한다. 나쁜 버릇이다. 바보같이 글 하나가지고 몸을 배배배배 꼬다가 소령언니가 불러서 과자를 먹으러 나갔다. (.....)

사무실로 돌아가 다시 몸을 배배 꼬다가 밥을 먹고, 그림을 그리고, 수다를 떨고, 일을 시작하고 또 다시 몸을 배배 꺾다. 해야 하는 건 알지만, 하기 싫은 그 상태. 몸을 배배 꼬는 와중에 더듬더듬 진행되는 일. 학교에서 하던 짓과 비슷했다. 익숙한 짜증이 밀려왔다. 몸을 배배 꼬다가 원래 내 일이 아닌 뻘언 인터뷰 번역을 도왔다. 뻘 일에 한 눈 팔고. 이것 역시 학교에서 하던 짓과 비슷했다.

내일은 어떻게든 글을 끝내야 하는데, 오늘 오후에 다른 NGO의 재봉작업장 방문하는 것도 포기하고 한 일인데, 내일은 어떻게든 끝내야 한다. 오, 주여 도와주소서. 열심히 하겠나이다.

-6.3

소령언니에게 글에 대한 의견을 물으러 갔다가 생각보다 긴 얘기를 나누게 됐다. 뉴스레터에 좋은 조언도 됐지만 무엇보다도 뉴스레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좋았다. 혼자서 하려니 킁킁대게 되고, 용기가 없어 웅얼웅얼 대다 보니 별다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했는데 뭐라도 얘기해줘서 정말 좋았다. 생각보다 글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 잘 될 거라고 믿는다.

-6.7

노트북을 꺾다. 이제부터는 손으로 일기를 쓸 것이다.

내게 남은 날은 한 달하고 조금 더. 난 지금까지 뭘 했고,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과거와 미래, 현실과 상상, 여기와 저기, 머리 안과 밖, 내 손안과 밖, 내 발 바로 밑과 저 반대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가-----만히 주변에 귀 기울이고 관찰하고, 신경을 곤두세운다.

-6.13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무지개떡을 먹고 미사에 갔다. '봉브로 페르난도'를 위한 부제 서품식이었다. 2시간 조금 더 했다. 짬짜오의 스레이 넥이랑 놀면서 그런대로 잘 버텼다. 흐름이 잡히니까 이제 좀 견딜만하다.

-6.14

잡은 지 열흘 만에 '칼의 노래'를 다 읽었다. 간결한 문장을 겹겹이 쌓고 펼쳐서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김훈의 능력이 놀라웠다.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저렇게 쉽고 간결하게 쓰고 싶었다.

-6.18

아침에 일어나 미사를 드리는데 나눔을 엉망으로 했다.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대충 웃음으로 농쳐보려고 했다. 내가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그렇게 됐는데, 결국 그 자체가 더 창피하고 쪽팔리는 일이라는 건 당연하다. 자기 자신의 한계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만으로도 진심을 다하는 일은 자기 자신과 주변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정말 힘든 일이다.

-6.19

집에 돌아와 바로 점심 준비를 시작했다. 생선과 고기를 다듬고 감자를 썰었다. 한쪽에서는 감자를 찌고, 돼지기름에 단호박과 양념한 돼지고기를 구웠다. 양이 적지 않아 한참을 구웠다. 씻고 내려온 소나이가 소스를 만들어 끼얹었다. '양 주름'이 순식간에 스테이크가 되었다.

-6.20

한 3일쯤 노니까 몸이 리듬을 잃고 너절너절해졌다. 오늘 아침도 신나게 늦잠을 잤다. 내려가 물을 한 잔 먹고 9시에 미사를 드렸다. 원피스로 갈아입고 스레이 오운 결혼에 갔다. 시골 마을에서 종종 보던 천막을 쳐놓고, 귀에 익숙한 음악을 뽕뽕 튼 채 고기요리를 먹었다. 느꼈다. 스레이 오운 언니는 작년에 졸업하고 조각 프로덕션에서 일하고 있는데, 역시 작년 졸업생과 결혼을 한다. 남편 인상이 좋아보였다.

-6.21

하루에 크메르어를 열 마디 이상 하지 않은지 꽤 오래된 것 같다. 확실히 퇴화하고 있다. 내일부터는 점심에 기도를 하고 오후엔 학생들과 대화를 하겠다.

뉴스레터 초안이 나왔다. 사실 맘에 들지만 웬지 모르게 부끄럽고 영 자신감이 붙질 않는다. 괜찮다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남에 대한 핑계를 덧붙이거나 자포자기하는 식이다. 왜일까? 그건 진짜 내 마음일까? 아니면 뭘 감추기 위한 걸까?

나는 사실,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어디까지나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다. 또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고 나는 그것들을 군소리 안하고 잘,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나가면 되는 거다.

명상에서 돌아온 미애언니와 한참을 떠들었다. 즐거웠지만 말을 많이 할수록 나 자신을 잃는 느낌이었다. 내가 욕먹을 가능성을 점점 늘리고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기도 하고, 시끄럽고 멋지게 살고 싶기도 했다.

-6.23

2시 30분쯤 재봉반에 가서 꾸미는 걸 도운 다음, 집으로 와서 팬케익을 굽기 시작했다. 되는데로 계란을 풀고 믹스를 넣고 물을 넣고 바나나와 시나몬도 넣었다.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다. 슬라이스 바나나로 장식한 팬케익을 4장 구워서 겹겹이 쌓았다. 부족했지만 어쨌든 시럽도 발랐다. 네모나게 썬 옹과와 꽃으로 장식을 하고 나니 4시에 겨우 맞출 수 있었다.

접시와 찜들을 조금 더 챙겨 종종종종 재봉반으로 갔다. 사람이 모이자 진희언니를 불러 생일파티를 했다. 오늘은 사실 언니 생일이 아니고 하루 전날인데, 내일은 내가 고아원에 가야해서 오늘했다. 다들 도와주고 기뻐해주서 다행이었다. 케익도 맛있었다고 했다. 오예 !

-6.30 / 고아원 가는 날

오후에 학교를 가는 스레이 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 안 가는 애들과, 오후에 가는 애들이랑 고무줄놀이를 하면서 밖에서 놀았다. 해가 구름에 가려서 나가 놀기 좋았다. 애들 머리도 빗어줬는데 애들이 많이 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좋았다.

-7.10

며칠 일기 쓰는 게 두려웠다. 웬지 모를 불안과 우울, 아마도 인정하기 싫었을 슬픔과 후회 등에 대한 두려움이 피곤함을 핑계로 그냥 잠들게 했다.

스스로랑 제대로 대면도 하지 못해서인지 하루 종일 우울하게 내 주위를 맴뎈 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그 자리에 흡수되지도 돋보이지도 못하고, 뭔가가 었힌 사람처럼 잠시 미소지었다 근육을 풀기를 반복했다. 눈물이 금방 날 것 같기도 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감정과 생각에 마음이 단단히 체해있다. 제대로 울지도 웃지도 못한다.

5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이 곳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려서, 이 곳에서의 나를 평가할 자신이 아직은 없다. 아마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선 시간이 꽤나 필요할 것 같다. 소화를 시켜야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7.12

바쁜 하루였다. 하루 종일 컴퓨터랑 바빴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는 교무실로 도망와 이런저런 작업을 했다. 영어공부는 하기 싫었다. 뉴스레터 인수인계 문서도 만들고 JMIC에 업로드도 하고, 사진 보드용 이름표도 만들고, 이래저래 바빴다. 우와- 바쁘고, 배고프고, 조용하고, 컴퓨터 오래해서 정신없고.

오늘은 돼지를 낳는 날이라서 저녁밥을 먹고 언제 낳는지 물어보러 갔더니, 벌써 한 마리를 낳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 때부터 계속 3시간 정도 봤는데, 총 10마리를 낳았다. 9번째 새끼가 좀 약한 것 같지만 금세 나아질 거다.

처음에는 텃줄과 꼬리 자르는 것, 피가 여기저기 묻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곧 만질 수 있게 되어 엄마에게 깔릴 뻔한 여섯 번째 녀석도 구해주고 엄마도 쓰다듬어 주었다. 3시간에 새끼를 10마리나 낳고 아기주머니까지 쏟아내는 엄마를 보니 참 마음이 경건

해졌다. 삶과 삶 사이, 죽음과 삶 사이가 참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달까.
모두 다 예쁘다. 내가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다. 피곤하지만 뿌듯하다.

-7.13

야속하게도 갈 날이 다가오자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일상'다워져 있다.

-7.15 / 고아원 마지막 날

아이들과 지내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찍으니 눈물이 날 듯 슬펐다. 아무리 마지막이어도 분필과 사탕을 여러 개 가져가는 애들에게 큰소리는 내게 되더라.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밥도 먹이고 청소도 하고, 평소와 비슷했지만 좀 더 열심이었다.

밥을 먹고 애들이 나를 위해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려주고 꽃도 따줬다. 순간 눈물이 날 뻔했지만 잘 참았다. 근데 그 때 이후로 자꾸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아이들과 인사할 때도 수녀님과 인사할 때도 마음을 완전히 못 내준 것 같아 아쉬웠다. 아아 앞으로 계속 기도하게 될 것 같다. 마지막에 원장수녀님께서 계속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던 말과, 계속 기도하겠단 말을 가슴에 간직할 것이다. 사람을 돕고 섬긴다는 말이, 그 분들께 들으니 참 자연스럽게 듣기 좋았다.

-7.16 / 마지막 소풍 날

깜빡빡으로 가는 버스에서는 가라오케 대신 드라마를 봤다. 신이 난 학생들이 깔깔 거리는 소리가 버스 안에 가득했다. 똑같이 시끄러운데 지난 3월처럼 짜증이 나지 않았다. 가는 길에 잠이 깨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데 울컥울컥 눈물이 났다.

파도도 타고, 공놀이도 하고, 선생님들도 물에 빠뜨리고, 계속 놀아도 계속 재밌었다. 정말 친하고 편한 사람들과 오랜만에 신나게 논 기분이었다. (...) 지난 3월에 놀러왔을 때는, 뭘 해야 할 듯한 부담에 매여 있었는데 이번엔 진짜 신나게 놀았다. 남자 선생님이며 학생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할 일이 없기도 했고.

-7.17 / 떠나기 하루 전 날의 파티를 하고

교장선생님이 저녁 식사 때, '땡큐 마이 프렌즈'라고 해주셨다. 모든 사람의 모든 말들이 참 고맙게 들렸다.

아침에 밥을 먹고 정리를 좀 더 한 뒤 학생들을 만나러 다녀왔다. 조용한 학교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학생들과 인사했다. 이름은 아직까지 다 못 외웠지만 정말 친근했고, 보고 싶었고, 따뜻했고, 아쉬웠다. 정말 좋은 친구, 언니, 오빠들이었다.

-7.19

반티에이 뿌리업을 떠나왔다. 꼭 채운 5개월이었다. 5개월까지만 지내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겠다는 듯이 참 열심히도 미뤘었다. 막상 떠나고 보니 아무렇지 않긴 한데, 갑자기 울적해지기도 하고 아직 마냥 기쁘지만도 못하다. 그냥 마음을 가지런히 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다.

거짓말 보고서

최용현

[순서]

I 어떠한 거짓말을 생각 했나? (구상)

1. 적절한 변명의 시작
2. 거짓말의 확장

II 거짓 활동 내용 (활동)

1. 진주환경운동연합
2. 조재규 교육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3. 진주지역 자활센터

III 거짓의 증명 (결과)

1. 사람들
2. 사회의 이해
3. 반성

I 어떠한 거짓말을 생각 했나?

1. 적절한 변명의 시작

4개월 간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는 단체 생활을 바라지 않았다.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단체에 들어가든 그것은 분명히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감수하고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정도로 강렬한 목적의식 또한 없었다.

하지만 인턴십이 쓸모없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폭넓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함으로써 내 정신적 경험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그로써 만족한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의 타협점이 진주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를 체험하고 탐구하여 그에 대한 실전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을 얻는 것이었다.

2. 거짓말의 확장

어떠한 단체에 갈 것인가? 어디에 체험의 기준을 정할 것인가? 처음 계획을 세울 당시의 후보지는 이랬다.

생협, 참여연대, 전교조, 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YMCA, 적십자, 바살연, 새마을운동

진주내에서 어떻게든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연락, 한 달정도의 체험 허락을 받고 깊이 있는 관찰과 실제적 경험을 하는 것-다음의 의문사항을 만들어 보았다.

1). 각각의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 ①내부적인 구성, 체계
- ②실질적인 활동들

2). 간디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시민단체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①가치 그대로를 추구하는지, 반대인지, 그렇다면 어째서 그러한지

3). 시민단체가 정말로 괜찮은 활동을 하는지

- ①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가?
- ②단체 내 구성원들의 열의와 의식 수준은 어떠한가?

4).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①그들의 활동이 효과가 있는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5).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 ①정부지원은 어떻게, 후원은 어떤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를 토대로 우선 한 곳을 정해 허락을 구한 후 한 달이 지날 즈음 다음 단체를 찾아간다는 계획 이었다.

II 거짓 활동 내용

1. 진주환경운동연합 (3월~4월 2주까지)

1). 범죄의 장소 (보충)

개요: 지구의 벗이라는 국제 환경단체에 소속된 한국 환경관련 시민단체로 80년대 말에 만들어진 남강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라는 진주의 환경단체가 다른 지역 환경단체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다.

목적: 각종 오염과 공해,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행위로부터 자연과 인간을 보호하며, 생명·평화·참여의 가치가 구현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활동: 지리산 둘레길 개발, 천왕봉 케이블카 반대, 4대강 저지등 진주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활동

2). 알리바이들

① 도서정리와 사진 데이터 베이스작업

활동 중 가장 주된 업무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인 만큼 10년분이 넘는 과거의 사진들을 연도와 활동별로 가능한 한 정리, 스캔하기

② 이삿짐과 창고정리

이사한지 한 달이 되지 못해 너저분한 사무실을 정리

③ 관련된 강의, 행사 참여

가장 유익하고 내 개인적 성장의 시간이 된 활동들, 다양한 사람들, 실제 현안을 마주하는 시간

-도법스님 강연

-한승현 강연

-지구의 벗 총장 니모배시 강연

-함안보 집회 참석

-4대강 공판 참석

-지리산 둘레길 만인보 참여

3). 공범자들

①사무소 사람들

사무국장 - 이환문

부모님과 얼굴을 익히 알고 있으신지라 잘해주려고 애쓰신다.

어떻게든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시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신다. 그러면서도 귀찮아 하시거나 깔끄러워 하시는 기색이보여 미안해진다. 일을 할 때 그리 체계적으로나 계산적으로 하시진 않는듯하다. 지방시민단체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자신의 말처럼 국장님도 생기는 일이나 다른 흐름에 따라 일을 하는듯하다.

탁영진 간사

독특한 성에다가 여자라서 이름이랑 잘 안 맞는다고 느꼈다. 환경련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고 사무실을 지키며 사무일을 사무국장님과 도맡아 하고 있다. 오늘 얘기에 따르면 여러 케이스로 체험활동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대학 학점, 과제) 제대로 승인되는 건 특별한 일로써 우릴 굉장히 특별하게 봐주는 것 같았다. (국장님처럼) 그다지 의식화 교육이나 인문학적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우리를 적절하게 배려해주셔서 참 편하다.

②만난 사람들

택시기사 - 사무실을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들었다. 운전

중에 계속 코를 후비고, 빨리 가려는 듯 계속 앞차를 앞질러 끼어들려고 했다. 그것을 위해 계속 클랙션을 눌러 댔고, 말 그대로 거리의 무법자를 연상 시켰다.

청중들 - 흔히 강의 중에 강사가 쉽게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알고하는 농담이 아닌)사람과 있어보이게 대답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이것은 강사의 일반화에 의한 실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때 나에게는 상대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청자의 자세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산장지기였다는 아저씨 - 얼떨결에 대형 깃발을 들게 되었을 때 수염을 덩수룩 하게 기른 진행 스탭 아저씨와 얘기를 하게 되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파괴되어가는 자연에 대해 알려주시려고 되게 애를 쓰셨다.

4). 진술

① 첫 방문

-사무실 위치에 대해 전화로 물어서 적어놓은 쪽지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주원이가 방문하기로 한 사무실 빌딩 아래서 노트북을 이용, 장소를 검색하여 찾아갔다.

-처음 위치를 물을 때 환경련 측에서 용건을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용건이 요청서에 적혀있기도 했고 자세한 용건을 말하기에는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 정중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② 도법스님 강의

도법스님 강의를 들었다. 그냥 세미나 줄 알고 들어갔는데 녹화후 방송을 타는 정규 프로그램이었다. 그걸 의식해서인지 앞자리에는 아무도 앉으려 들질 않아서 맨 앞줄 한 가운데에 앉았다. 뭔가 바짝 긴장이 돼서 화장실까지 미리 다녀오고 필기 준비까지 했는데 생각보다 지루하고 맥빠지는 흔한 얘기였다. 중요한 이야기였지만 너무나 낮은 단계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같은 주제를 여러번 되풀이해서 재미가 없었다.

③ 페인트 칠

양철문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국장님이 녹색페인트를 연하게 하는데 색이 어떠하냐고 물어 보셨다. 사실 뭐가 좋고 나쁜지 느낌이 오진 않았지만 그냥 좀 더 진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때 회계잡무 등을 보는 누나가 왔고 이번에는 그 누나에게 감상을 물었다. 누나는 좀 더 열어야겠다고 말했고 난 괜시리 창피해졌다. 다행히 그 누나는 원색 페인트를 칠한다는 걸로 착각을 했던 것이었고, 문 색도 예쁘게 나왔다.

④ 주의력 부족

국장님이 내일 오전에 시간이 난다면 지구의 벗 의장인 니모시배 강연을 들으러 가라고 하셨다. 강연이 마산 경남대에서 있었기에 아침 일찍 나가야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약간의 고민 후 가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서야 영어수업이 있었던 게 떠올랐다.

⑤ 마산여행

-마산에서 강연을 듣기위해 아침 7시에 출발하여 마산에 도착하였다. 인터넷에서는 분명 마산 남부 터미널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도착하니 북부터미널... 택시비도 7500원이나 나

왔다.

-경남대 도착 후 당연히 게시판에 안내 포스터가 있는 줄 알았다. 상당히 유명한 분이 신데도 불구하고 어디도 관련 정보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 덕에 찾아 들어가는데 한참이나 걸려 들어갔다. 성의 없음의 문제였을까? 아마도 경남대와 환경연합 측의 역할 분담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집에 돌아가기 위해 마산 터미널에서 표를 끊으려 할 때, 동녘이의 주민등록번호가 91인게 문제가 되었다. 세심히 보면 증명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저 91이라는 것 때문에 증명될 수 없다며 동녘이는 어른 표를 사야했다.

⑥ 간디토론

스캔작업을 중단 후 잠시 쉬는데 국장님께서 우리들이 일반학교 애들보다 참 괜찮은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꺼내셨다. 난 그것이 혹여 간디학교에 대한 일반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하여 간디학교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들을 주절주절 얘기했다. 학생회, 무책임한 교육, 방종과 자유의 착각 등. 하지만 국장님은 내가 너무 비판적으로 보고있고 아직은 간디학교가 성장의 시기라고 말하셨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난 이미 그 시기는 지나갔고 지금은 이미 침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⑦ 만인보

걸으면서 눈에 띈 것은 사람들과 풍경이었다. 어떤 곳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했으며 어떤 것 예쁘게 꾸며지고, 어떤 것은 분수와 보도 블록으로 인공 조형 되어있었다. 만인보 참가자들은 사진기를 한 손에 들고 예쁜 꽃, 호수, 좋은 길에 환호하며 찍어댔다. 그리고 그 옆에선 아저씨 한분이 장작을 만들고 계셨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⑧ 집안자랑

탁간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난 말하고 간사님은 듣고 동녘이는 가만히 있고. 부모님에 대한 얘기에서 영화 얘기로, 그리고는 집안 자랑이 되어 버렸다. 우리비은 영활 보고 토론하고 싸우는 멋있는 집이에요 하고 자랑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후회한다.

⑨ 마지막

마지막 환경련 출근, 즐거움이 온몸을 감쌌다. 무언가 끝나는 이 순간, 참으로 흥겨웠다.

2. 조재규 교육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4월 16일~6월 1일)

1). 범죄의 장소

개요: 올해 지방선거에 처음 실시되는 교육의원 선거를 위해 구성

활동: 선거 활동

2). 알리바이들

- ① 주소록 엑셀에 옮기기
- ② 문자, 전화 날리기
 - 텔레마케팅 2시간, 최악의 순간

3). 공범자들

-석선옥 사무처장님

어른들의 접대의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적절한 모금활동 동참과 손님들을 대하는 느낌이 배려심이라기 보다는 접대라는 느낌이 강하게 달았다. 사무관련 모든일을 총괄해서 설세 없이 움직인다. 나한테서 글쓰기를 잘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홍보물서 내가 지적한 부분을 너무 깊이 받아들이신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모습이 보여서 애매한 기분을 느꼈다.

-이수정 직원

나보다 한 달 먼저 일하기 시작한 누나다. 진주 보건대서 대학 졸업뒤 취업 준비 차 일하고 있으며 평범한 20대다. 성심은 착해 보이고, 이 누나도 나한테 뭔가 글쓰기 관련 기대감을 보인다. 가끔 오시는 대머리 아저씨와 심히 친해서 뭔가 모종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유슬아 전교조 봉사자 경상대 국문학 5년차 대학생

전교조에서 일하며 가끔 사무실에와서 일을 돕는다. 털털한 성격이고 홍보전화거는 일에 능숙하다.

4). 진술

-교육의원 선거의 핵심은 교육의원을 알리는 것, 모든 홍보물에 교육의원 설명이 들어간다.

-지방선거인데다가 교육의원의 첫 직선제 선거, 다른 후보 하나는 선거 운동 안하고 좋은 번호가 나오게 해달라고 불공을 드린다는 루머가 있다.

-주 활동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인사하며 명함을 주고, 인력을 동원해서 비밀리에 주소록을 모으는 것이다.(학교주소록, 동창회, 농협조합원)

-문제는 주소록 작업,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모아서 광고를 날려야 하는데, 전화번호 단체 발송을 하려면 엑셀로 모아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소록은 문서로 날아온다.

-작업이 굉장히 따분한 노가다기에 내가 은근히 도움이 됐던 것 같다.

-v6필름은 이제 웬만한 전자마트에서는 구하기가 불가능하다. 하이마트, 전자마트, 엘지, 삼성, 이마트까지 다 뒤졌지만 구하기가 불가능해 결국 개소식을 다 담지 못 했다.

-입력작업을 위해 친척, 친구, 고딩알바까지 고용됐다.

-위원장 스폰서분들께서(친구인 듯) 밥을 한 끼 사주셨는데 계속 먹이려고 하셔서 배가 터지는 줄 알았다.

-시장 선거단 인원은 100명, 교육의원 10명-다리에 일렬로 선 선거인단

3. 진주 자활 센터 (6월 3일~ 6월 30일)

1). 범죄 장소

소개: 진주자활복지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며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창업과 취업지원 등의 심리적,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러한 사업에는 자활공동체, 시장진입형 사업,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에는 집수리 공동체 '늘푸른 집', 간병공동체 '참사랑 간병', 청소 공동체 '늘푸른 사람들', 재활용 공동체 '행복한 가게', 실내 장식 공동체 '늘푸른 장식' 제과제빵 사업단 '한솔 생베이커리' 등이 있고 2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사업은 기술습득과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일정기간동안 저소득 주민 스스로 독립하여 자활공동체 창업을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청소 사업단 '나눔 청소', 종합재활용 사업단 '늘푸른 자원'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은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활 능력개발과 의지를 고취하면서 향후 취업 등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사업단 '아름다운 동행', 보육교육지원 사업단 '아동 지킴이', 간병 사업단 '돌봄', 생활재활용 사업단 '나눔 재활용', 영농사업단 '허브나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 서비스 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 나눔은행 맞잡은 손 등이 있습니다.

(출처: 전동벽)

1). 일자리 사업 체험

-영농(허브농장)

-재활용 센터

-빨래방

-되살림터

2). 아름다운 가게

-카운터

3). 지역아동 센터

-애들 보기

4). 공범자들

행복한 가게 사장님 - 과거에 큰 가게를 가지고 있다가 IMF로 망하고 일을 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가게의 벤치마킹형 사업으로 창업을 하셨고, 재도약의 꿈이 강하게 느껴졌다. 우리에게 끝없이 사업 아이디어와 제안을 물으셨다.

아름다운 가게 대학생 누나 -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나온 누나, 간디학교와 우리들의 삶에 대해 얘기해주니 부러워하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간디가 가지는 문제를 소개해주니 나를 굉장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봤다.

ADHD 아동 - 아동센터의 주권을 휘어잡은 2학년 꼬마, 거칠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관심을 가지려 애쓰는걸 보니 마음이 불편했다. 이런 시설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고, 다른데선 쫓겨나기 일쑤라는 얘기를 들었다. 나름대로 참을성과 애정을 가지고 대해주니 날 참 편하게 생각했다. 내가 간다는 얘기에 너무 싫어해 미안했다.

5). 이야기

① 행복한 가게

행복한 가게 사장님 한분과 헌옷수거를 나갔다. 간디학교 설명회로 이야기를 시작해 재활용 센터와 행복한 가게의 구조를 꽤나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 행복한 가게는 재활용 센터 일을 마친 두 분이 시작한 가게로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맥락의 사회적 기업이었다. 재활용 센터는 행복한 가게와 같이 일하며 추가로 플라스틱 등을 분류, 정리해서 팔아 수익을 낸다.

② 재활용 사업

재활용 사업에 대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들었는데 아파트 단지별로 쓰레기를 매각하는데 이권 다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 단지에서 나온 쓰레기가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굴러가게 하고 또 이것이 계약등과 같은 진지한 문제로 이야기 된다는 것이 무척 흥미로웠다.

아름다운가게에도 도둑은 있다.

-없어진 비누들

③ 빨래방의 고객, 할머니들

홀로 사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현재 노인들의 삶에 우리들이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이 옳을까 고민 해봤다. 좀 더 고민 해봐야겠다. 중간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들렀는데 할머니는 방안에서 이상한 신음을 내지르시고 간병인이 빨래를 건네 주셨다.

④ 꽃따는 일

모자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게 후회스럽게 햇볕이 따가웠다. 처음에는 꽃냄새를 맡으며 일한다는 게 무척 낭만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꽃냄새가 역해져 두통까지 느껴졌다.

⑤ 허브농장의 분쟁

꽃 나르는 일중 예는 반장님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이야기를 했는데 꽃 따는 데서는 반장님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일의 자세한 사항은 판단 할 수 없었지만 이 상황 자체가 흥미진진하게 느껴져 재밌었다.

⑥ 남자 선생님이 필요한 남자아이들

지역아동센터내 남자아이들이 나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형들이 함께 놀아주고 공부 도와준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다. 여길 떠나지 말고 계속 있어 달라는 부탁을 해서 주마다 한번씩 가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내일에 치여 못가고 말았다. 다음에 찾아가 볼 생각이다.

III 거짓의 증명

1. 배운 것

나는 세 곳의 장소를 다녀왔다. 처음의 의도와는 많이 달랐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뜻뜻이 배운 게 있고 그것이 내 성장의 초석이리라 생각한다. 좌파우파 따지지 않고 시민단체 속에 들어가 시민단체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시민단체의 구조, 문제, 긍정성, 의미를 생각하고 자 했지만 실제로는 그와 크게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하나로 통합할 수 없는 말 그대로의 '경험', 삶과 인간과 사회와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의 정리와 맥을 짚을 필요는 있기에 세 곳의 활동장소에서 가장 크게 배운 세 가지를 정리해보겠다.

1). 싸우는 사람들-환경연합에서

환경연합에서는 활동기간 내내 여러 강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총 세 강의를 들었는데 도법스님, 니모배시, 한승헌이었다. 셋 모두 현실의 문제와 불합리에 대항해 자신의 소신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었다.

도법스님은 생명평화의 가치와 그 실천을 강의했는데 그다지 큰 감흥은 일지 않았다. 생명과 생명이 연결된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하고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간디에서 주구장창 듣고 흘렸던 똑같은 소리라는데에서 실망이 있었다. 사실 그보다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해온 싸움, 삶, 활동을 추억하며 실천적인 대안과 방안을 제시했으면 했다.

니모배시는 인상적이었다. 지구의 벗이라는 세계환경단체의 회장으로 나이지리아의 석유유출문제를 전세계에 알리며 함께 싸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즐거웠던 것은 이미 공부했던내용을 귀로 생생하게 듣는다는 것이었다. 강하게 울리는 현장감 속에 다시 한번 초국적기업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한승헌 변호사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흥분으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삶과 한국법의 역사를 함께 강의했는데 그 역사의 순간순간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내 길의 앞에 서 있는 인물이란 생각으로 큰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3명의 강의를 들으며 자신의 가치를 지켜가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제 작년, 나도 그리 살겠다는 결심을 한 후 나는 그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 그 끝에 분명히 나의 증명, 아름다움, 진리의 길이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나와 함께하니까

2. 정치와 선거, 삶의 예지

조재규 사무소의 두 달간, 지루한 활동 속에도 선거판도의 흐름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건 꽤나 고무적인 일이었다. 관심받기 어려운 교육의원선거라는 특이성 또한 그런 점에서 재미 있었다.

위의 활동 내용에 나온 것처럼 조금이라도 후보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벌이는 이 지겨운 사투는 우리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게 했다. 관심받지 못하는 선거축에 끼여서 그저 운으로만 당선되기도 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리위에 일렬로 서서 인사를 하고, 시끄러운 선거송을 주구장창 틀어대고, 짜증내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걸고, 지긋지긋한 홍보 속에서 나는 지쳐버렸다. 진정한 의미의 대의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고민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과 돈을 뿌리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일까지 해야 할까? 대다수의 후보들이 진정으로 이 나라와 시민을 위해 연단에 서는 것일까.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이런 짓까지 해야 할까? 그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이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짓을 하는 진정한 대표자들은 얼마나 우스운 상황에 처했는가?

사무소에 온 첫날, 한 분이 어른들의 깨끗한 면만을 볼 순 없을 거라고 하신게 기억난다. 아마 이것이 삶과 사회의 예지라는 것이리라. 이상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이상을 쫓는 이들의 길고 지루한 과정이리라. 인정한다. 나또한 그런 삶을 살 것이고 희망한다. 이 끝에 오는 세상은 분명 아름다울 거라는 희망을 품고

3. 그들은 누구일까?

자활센터에서 짧은 한 달간,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다.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매일 플라스틱과 헌옷을 수거하고, 분리하고 골라내며 죽어라 고생하지만 그들은 깔깔 웃고 있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참 끔찍하게 느껴진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거 정도야 할 수도 있지만 쓰레기를 줍고 분리하고 재활용하는 일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내 정신의 바닥에 자연스레 깔린 '부유함'은 그들을 나와 '다름이'로 보게 만들었다.

그래서 난 그들은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돈도 기부하고, 친구처럼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오만아래에 나는 뻔뻔스레 동정과 선의의 손을 내뻐는다.

그러나 그들은 웃는다. 자활센터를 떠나서 사업체를 만들고 취업을 준비하며 미래를 분명히 꿈꾸고 있다. 우리와 같다. 하지만 '다름'의 벽이 존재한다. 그 다름의 벽에 기대어 우리는 자기만족과 거짓양심을 지켜내며 살아갈 것이다. 가난한사람에게 천원의 기부전화를 하면서 마우스로 몇 십만원짜리 청바지를 살 것이다.

나는 이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기금의 나에게 그들을 돕는 건 '동정'일 뿐이다. 그들을 '동정'하지 않으며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 속의 '세상'을 관찰 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하고 판단하여 이 '다름'의 벽을 무너트릴 대안을 실천해보려 한다.

끝- 엄마,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의 인턴십이 끝났다. 그리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나는 예상외로 많은 것을 확인하고 배울 수 있었다. 내 삶에 이 배움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든 이것이 소중한다는 것은 변함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응석이나 부리고 싶은 이 나약한 마음을 호되게 이 끌어주신, 이끌고 계신 나의 소중한 어머니, 감사합니다.